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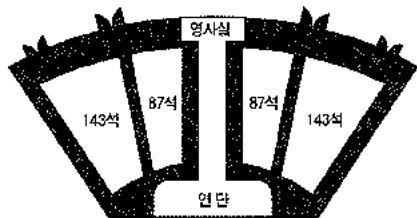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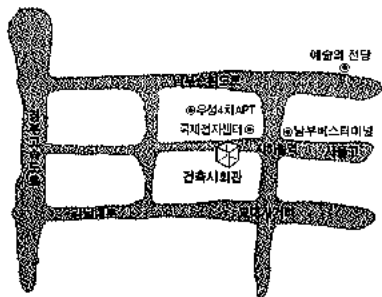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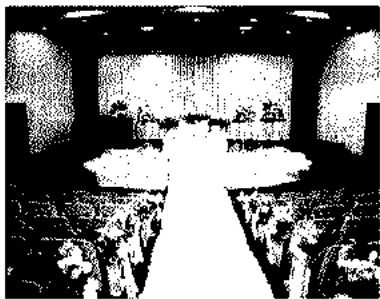
UIC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460석)



악도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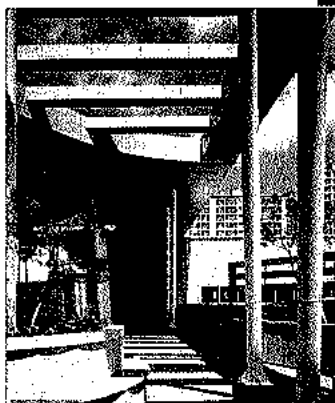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 _ 581-5711~4

Fax _ 586-8823



김해시 북부동사무소



컬럼	모름살이 티전을 잘 만들려면	이성국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엔젤클리닉	신창섭	24
	A. SHU'S 하우스	신창섭	32
	김해시 북부동 사무소	유수태 · 차창석 · 배상선	38
	쉬즈메디병원	주영정	48
	하나로통신 일산정보센터	송유석	56
	신길동 '뒷골'	유재득+이용재	64
	평창동주택	정구은	70
작품노트	이 시대 도시의 성전건축	최영집	76
기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	이순희	82
연재	공간 클럽 - 05	이재훈	8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2
	현상설계		96
	해외잡지동향		111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중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사덕, 이상림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96



102



104



Column

If we make better Residential Space? Lee Sung-Kuk 20

Cartoon Yoo Won-Jai 23

Works

Engel Clinic Shin Chang-Seop 24

A.SHU'S House Shin Chang-Seop 32

Gimhai-si Bukbu-dong Office Yoo Soo-Tai, Cha Chang-Seok & Bae Sang-Seon 38

Shes Medi Hospital Joo Young-Jeong 48

HTI-Telecommunication Center, Ilsan Song Yu-Seok 56

Singil-dong Met-kol Yu Jai-Deuk & Lee Yong-Jai 64

Pyeong Chang-dong Residence Jeong Goo-Eun 70

Design note

An Urban Sanctuary of Today Choi Young-Jib 76

Feature

Citizen-Friendly Architecture Lee Soon-Hee 82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84

Architects' Plaza

Archi-Net 92

Competition 96

Overseas Journal 111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모듬살이 터전을 잘 만들려면

If we make better Residential Space?

공동주택 설계방식의 대안모색을 위해서

이성국 / 대한주택공사 기술이사
by Lee Sung-Kuk

들어가면서

도시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우리네 삶을 일구어가는 터전이자 마당이다. 도시는 서로 다르다고 개성을 주장하면서도 서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얹혀 굴러가고 있는 모듬살이의 그릇이다. 그러한 그릇 속에 우리네 주거공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 중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나라 총 주택수의 절반을 넘어 도시 모듬살이의 대표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 주거양식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공동주택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공간속에서 어떤 틀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과연 개성을 주장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상반된 요구조건에 알맞게 보듬어지고 마름질되고 다듬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명제에 대해 공동주택이라는 모듬살이 그릇을 만들어지는 여건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바라는 작은 소망을 곁들여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의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서울의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하여 1962년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이 설립되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으로서 대한주택공사는 마포를 거쳐 화곡, 과천, 개포, 잠실, 산본신도시 등 주로 대단위단지 위주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해왔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아파트문화를 일구어 왔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정책적으로 공급지향의 물량주의에 가리어져 효율성과 기능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건설되었고, 시장에서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입주자의 요구사항 반영이나 도시경관이나 환경을 중시하기보다는 개별대지나 단지내에서 경제성 위주의 자기 완결적인 모습으로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대단위 주거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기 위해 종합설계방식, 총괄설계방식 적용 등 단지별로 분리된 것을 지구별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설계에서 달성코자 하는 목표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건축물 또는 단지별로 개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시설계, 상세계획 등 제도로써 도시차원의 제어, 규제방안들이 마련되었고 최근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등이 있어 명목상으로나마 도시계획이나 건축, 조정 등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분야로서의 역할과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주고자 하는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동주택은 대단위로 조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사람과 개별건축물은 개성을 요구하고, 각 개성들이 단지라는 한 그릇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도시차원에서 보면 도시의 개별적인 구성요소이면서 도시라는 커다란 영역의 집합체로서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특성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단지를 설계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에서 커다란 틀을 정하고 규제사항

들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건축사가 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순차적인 개발방식은 효율성과 경제성은 극대화되지만 가장 중요한 각 계획간, 사업주체간, 단지간 연계나 특성강화 등은 간과되어 공동주택단지가 갖고 있는 주거환경의 통합성, 다시 말해서 주거단지가 도시공간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도시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변한 우리 공동주택단지는 계획, 설계, 사회적 여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문제점을 키워 왔으나, 그 주된 원인은 주택정책과 관련제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 가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인 관련법제는 각 법이 갖고 있는 타당한 제정논리와 목표에 맞게 운영된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관련법들간의 배타성, 적용과 운영의 경직성, 일반적 규제에 의한 포괄성 등으로 그 몫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주거공간은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나 사회성, 공간의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여건과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해야 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기능과 형태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공간까지 단순한 제도적 틀 속에 넣어 일반화, 규격화, 평준화하여 잘 만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릇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도시경관의 악화, 환경친화적 개발 미비,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도시화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기존의 설계나 법, 제도 틀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워졌다.

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가

최근에는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동주택단지가 단순히 삶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과 문화의 장으로서, 자아실현과 공동체 구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준높고 매력있는 생활공간 창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운영되어 왔던 기존의 계획이나 설계로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 시대적 변화와 함께 공동주택단지 계획에 있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과 툴(Tools)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 개발시 고려해야 하는 경관, 생태, 환경, 교통 문제 등 주변 요소가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분야의 의견수렴과 계획요소의 체계적 검토가 고려되어야 했다.

공동주택 설계과정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2차원적인 틀내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 단지간 개발시기가 다르고 개발주체도 상이하여 단지의 개발주체에게는 전체 주거지의 조화나 통일감을 위한 3차원적인 개발방향이나 디자인코드 등이 필요하였고,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구상과 운영기준 등 대안이 요구되었다. 또한 계획과정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 수평적으로 분화된 설계조직들의 고리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열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진단과 대안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이 시점에서도 양적공급과 개발의 경제성 논리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대단위로 단지로 동시에 개발됨에 따른 각 블록간 연계부족, 도시경관요소로서 획일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거환경,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 관련분야가 개별로 진행되는 설계과정의 분산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제도 및 정책의 전환,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등 사회전반에 걸친 노력이 요구되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우리 건축사들의 입장에서 설계과정과 설계방식 개선, 설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제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환경을 다루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여 혼자서 복합적인 유기체인 도시환경을 향해 독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나 개성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합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일본의 주도공단(住都公團)에서 시행한 M.A(Master Architect)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설계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내 최초로 경기도 용인신갈지구에 적용하게 되었고, '01년에 용인구성, '02년에 용인보라, '03년에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03년에 길음, 왕십리, 은평 뉴타운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 잠정, 발산 등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M.A방식이란 대규모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 등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경험과 이해·조정능력이 뛰어난 건축사(M.A)가 주관이 되어 각 블록단위로 선정된 B.A(Block Architect)와 함께 설계를 진행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단지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단계까지 프로젝트개념 설정, 지침작성 설계조정, 관리 등 지구전체 설계과정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사실, M.A방식은 새로운 방식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계획이나 설계분야에서 “그렇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설계방식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즉, M.A방식은 일관된 개발전략과 계획기준이 계획초기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적용되면서 전체를 총괄하는 전문가가 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가장 계획 원론적이며 바람직한 설계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과천이나 목동, 상계동, 5개 신도시 등에서도 이와 같은 통합형 설계방식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케 하는 시대적 상황이나 정책 등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하였으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토양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 도시계획이나 건축사, 조경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와 조정, 보완을 통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을 아우르고 각 설계단위를 통합하는 일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주거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앞에서 살펴 본 설계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획개발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주거단지가 개발될 수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설계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초기부터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방향 등을 설정하는 등 주거단지개발과정에서 기획기능이 강화된 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계획적인 융통성 확보가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검토와 참여 전문가의 합의에 의한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로 계획에 대한 융통성이 커져 상·하위계획간 연계와 조직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셋째, 3차원적 개발형태를 고려한 검토로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에 최종적으로 설계되는 3차원적인 형태와 기능이 토지이용 단계부터 고려되어 상위계획이 작성되므로 경제적인 필지규모, 공공시설 위치, 적정 계획고 등이 수립되어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단지내 효율적인 공공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공공공간이 개별필지 규모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차원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공용공간과 단지의 공공공간이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설계되며 활용도가 높은 공공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

다섯째, 계획적 개발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M.A설계방식의 취지가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통합개발에 있으므로 최근의 준농림지역이나 수도권 난개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확산과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선계획-후개발”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마치면서

어떤 제도나 방안도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특히 계획이나 설계에서 정답은 없다. 다만, 장점을 얼마나 잘 살리고 단점을 얼마나 작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방식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설계방식의 전환 기초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영역을 주장하거나 폐쇄적인 사고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집을 버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조금씩 내어 놓고 양보해서 모두 함께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건축인들도 이 시대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도시환경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혀야 할 시기가 왔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도시를 서로 다르다고 개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얹혀 굴러가고 있는 모듬살이의 그릇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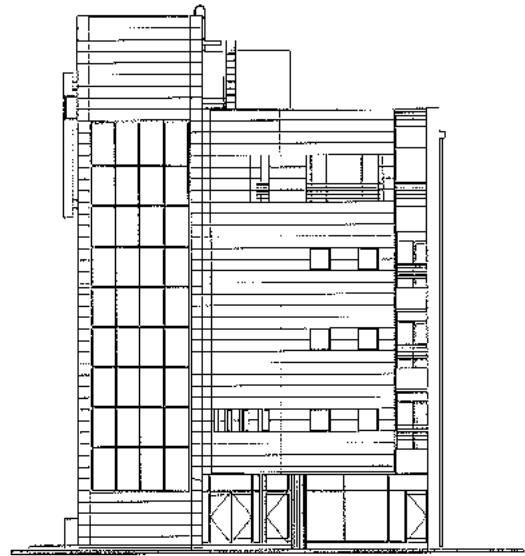
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무채색계통의 부드러운 질감을 지닌 재료가 필요하였고, 본 매스는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므로 색상이 분명하고 변색이 안 되며 오래도록 같은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였다.

결국 코아 매스는 베이스패널과 계단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투명유리 커튼월로, 본 매스는 녹청 산화동판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분화된 두 매스의 시각적 결함을 위해 600mm의 동일한 사이즈를 적용한 수평 물딩으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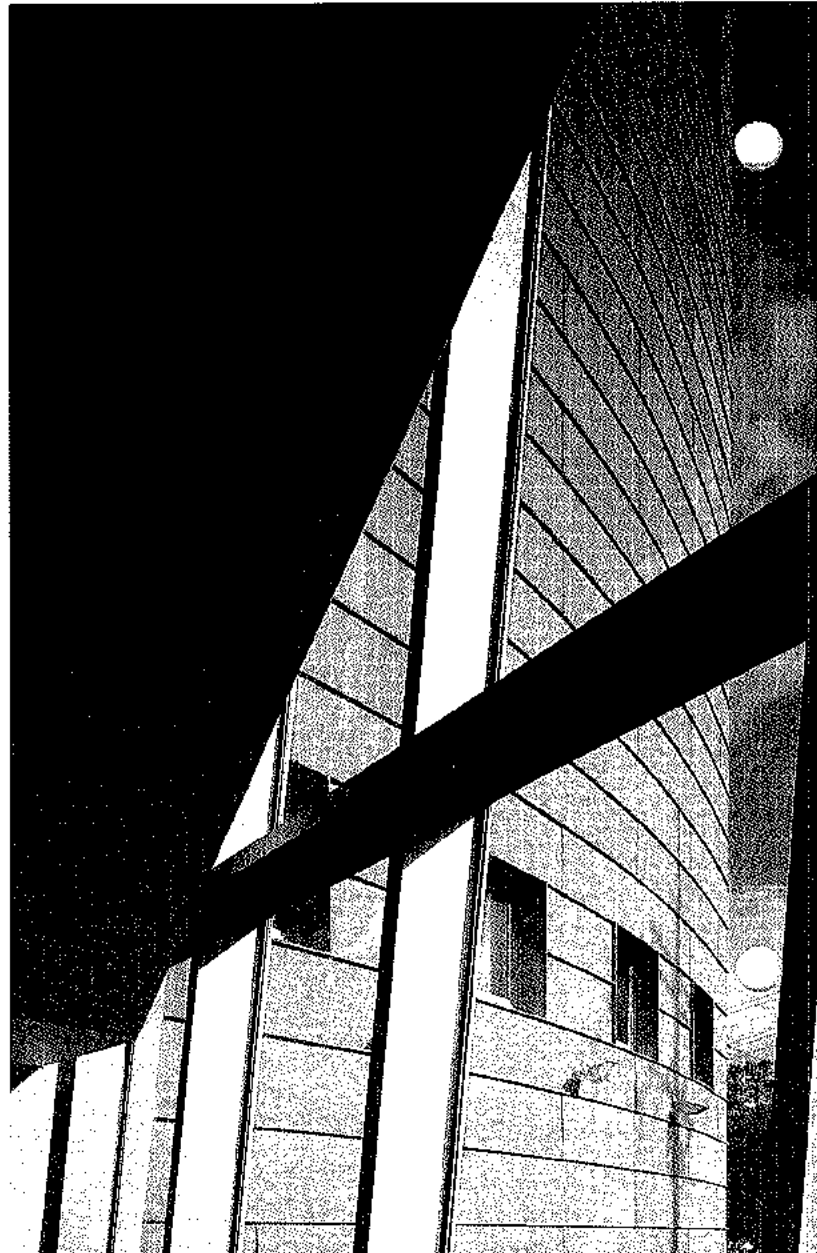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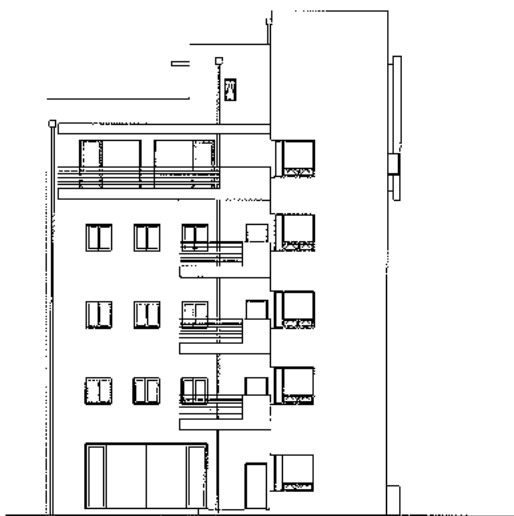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유선형의 본 매스는 배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암시하며, 녹청색의 동판은 제주바다를 상징한다.

얇고 높으며 앞으로 경사진 연화색의 코아 매스는 배의 돛을 생각한 것이며 이런 암시들은 직설적이기 보다는 은유적이다.(글: 신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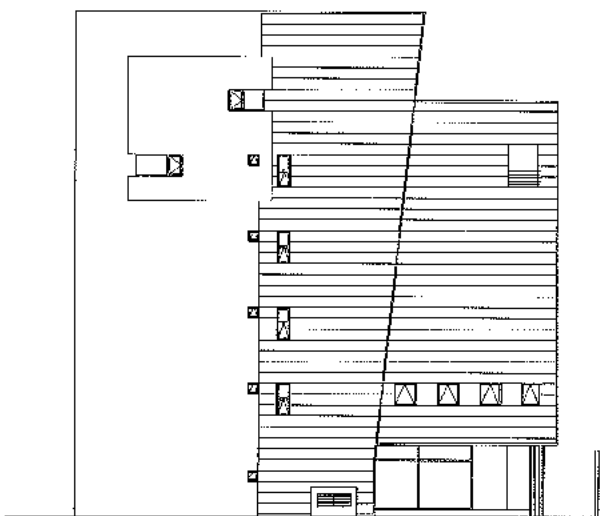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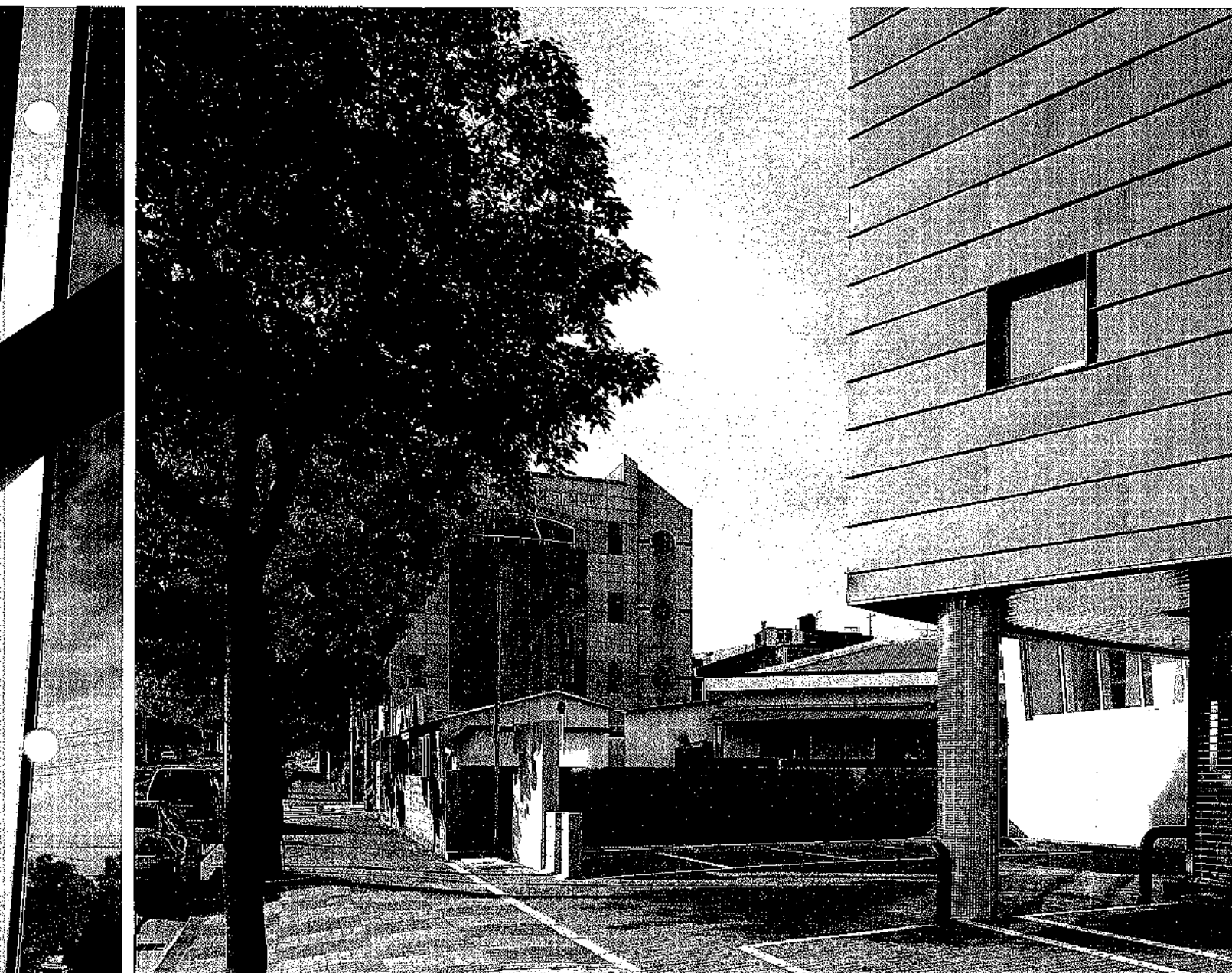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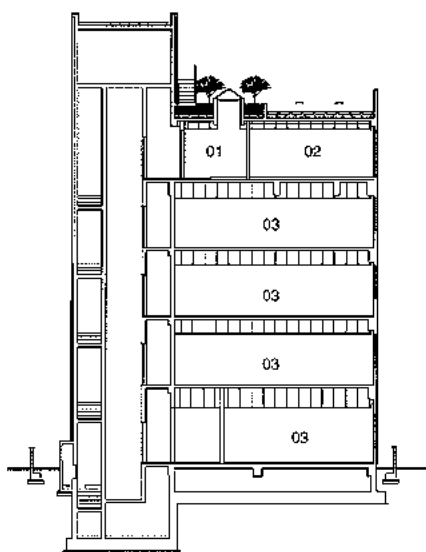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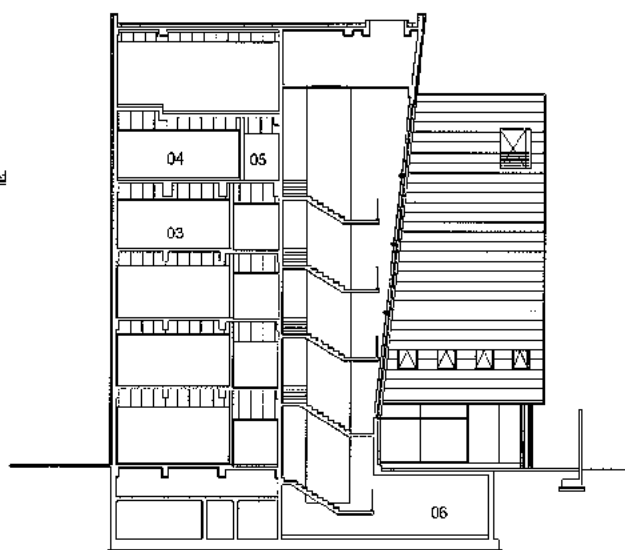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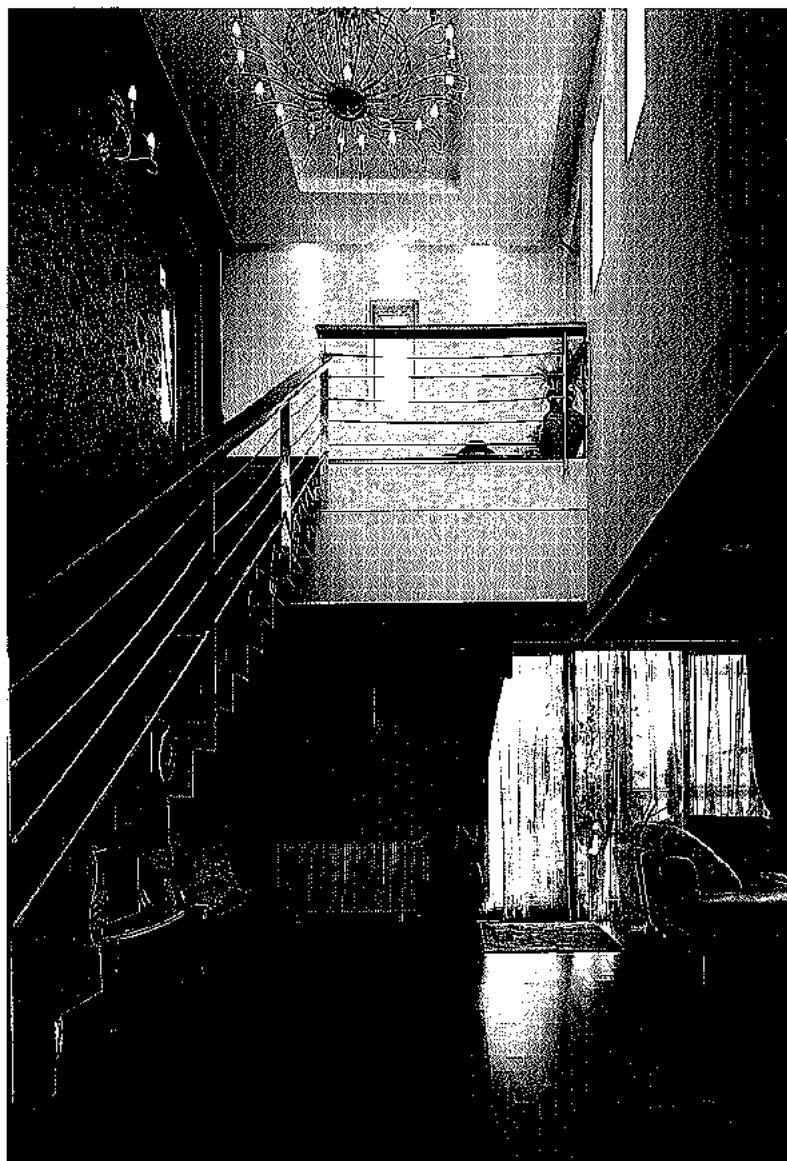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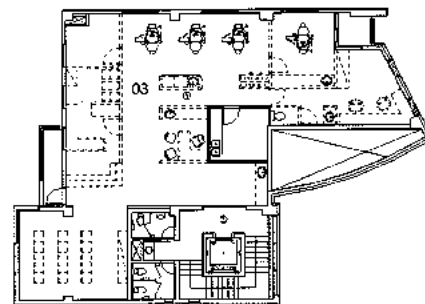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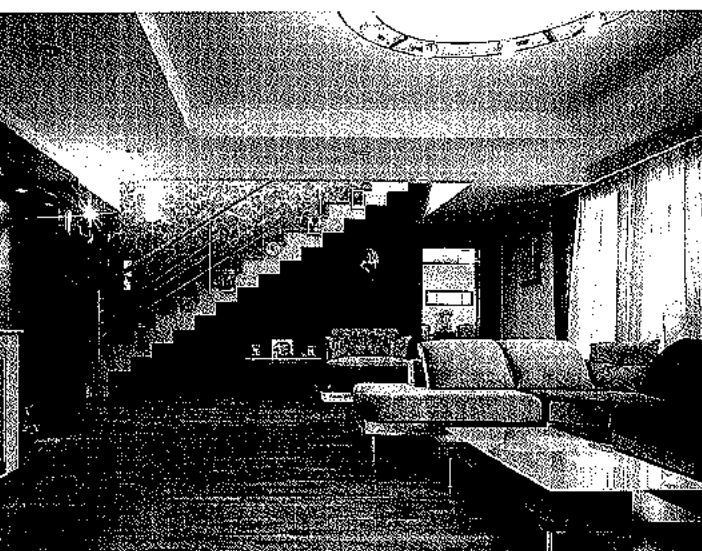


- 01_ 홀
- 02_ 식당/주방
- 03_ 근원생활시설
- 04_ 점심
- 05_ 화장실
- 06_ 물탱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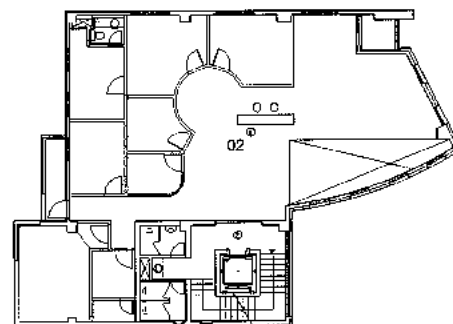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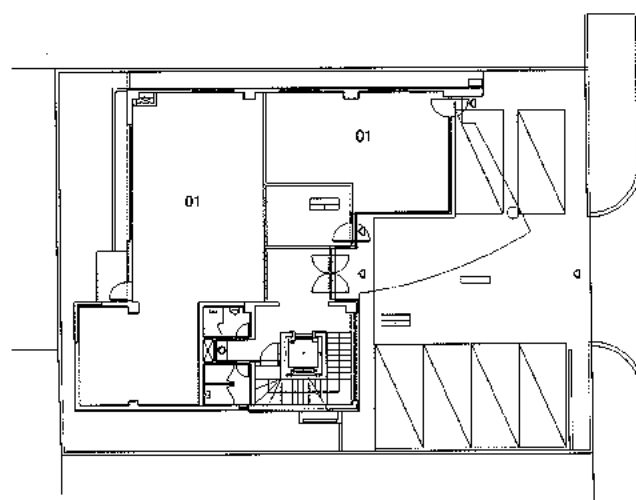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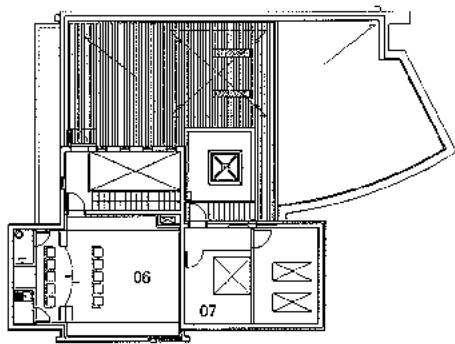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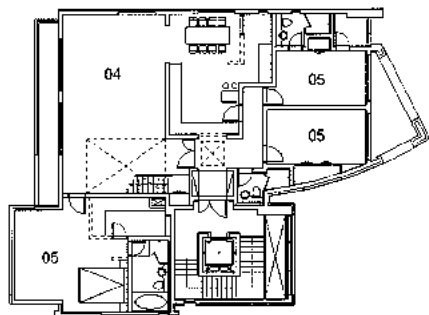
- 01_ 근린생활시설
- 02_ 소아과
- 03_ 치과
- 04_ 거실
- 05_ 원실
- 06_ AV룸
- 07_ ELEV.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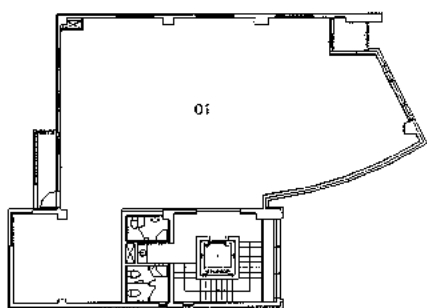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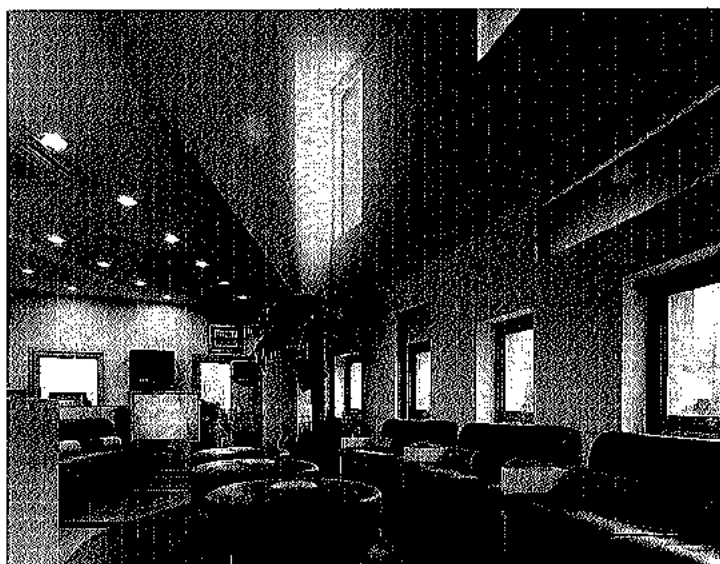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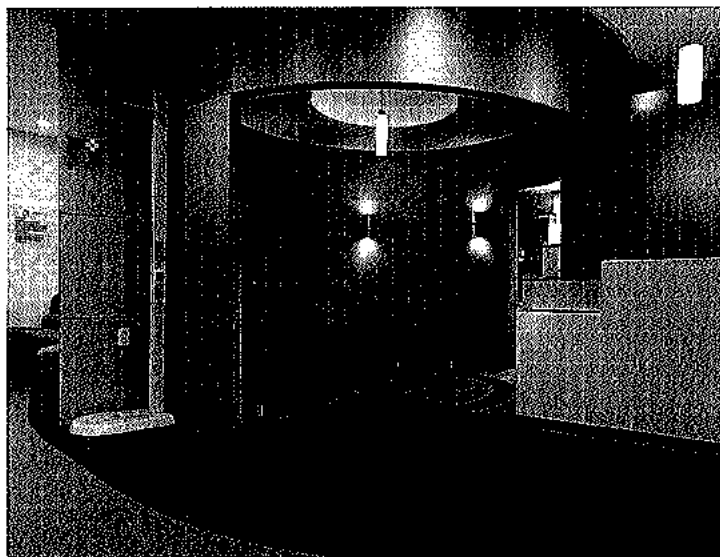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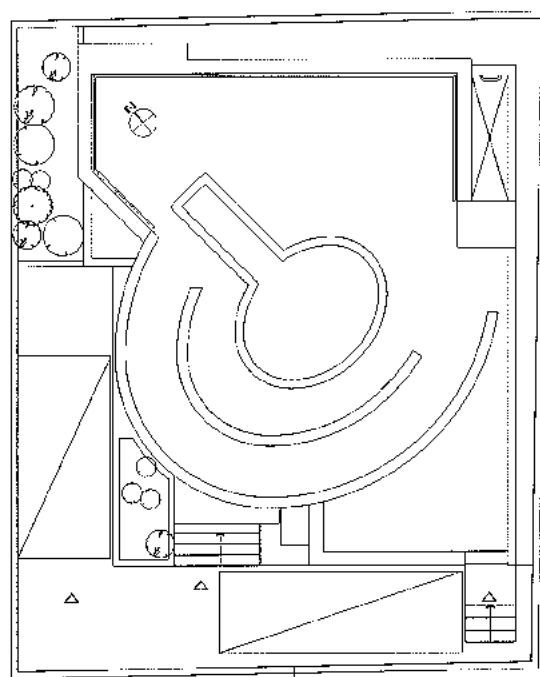
A. SHU'S 하우스

A.SHU'S House

신창섭 / (주)두가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hin Chang-Seop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26-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대지면적	212.90㎡
건축면적	105.53㎡
연 면 적	302.11㎡
건 폐 율	49.50% (법정 50%)
용 적 륜	97.50% (법정 4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2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비방식	개별 패키지 냉, 난방
내부마감	바닥/ 몰탈위 투명 우레탄, 벽/ 수성페인트 천장/ 노출천정위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바닥/ 공작갈 깔기 벽/ THK.0.6 주석동판, THK. 50베이스 패널
시 공 자	에스바스비드 (최병우)
설계담당	조원덕, 임은하
구조설계	한국구조사무소
기계설계	한은기술사사무소
전기설비	(주)우신이엔씨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제안

건축주는 재외교포로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 시작한 분이다.

ASHU는 건축주의 딸 이름인데 프로젝트명으로 삼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할 COFFEE & WINE HOUSE와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지는 지상 2층으로 건축이 제한된 관계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COFFEE & WINE HOUSE로, 2층은 주택으로 배치하고, 후면의 공원녹지가 잘 조망될 수 있도록 설계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배치계획

건축제한선이 있는 관계로 전면은 인접건물과 가급적 정렬시켜

배치하고, 타원매스를 이용하여 전면의 외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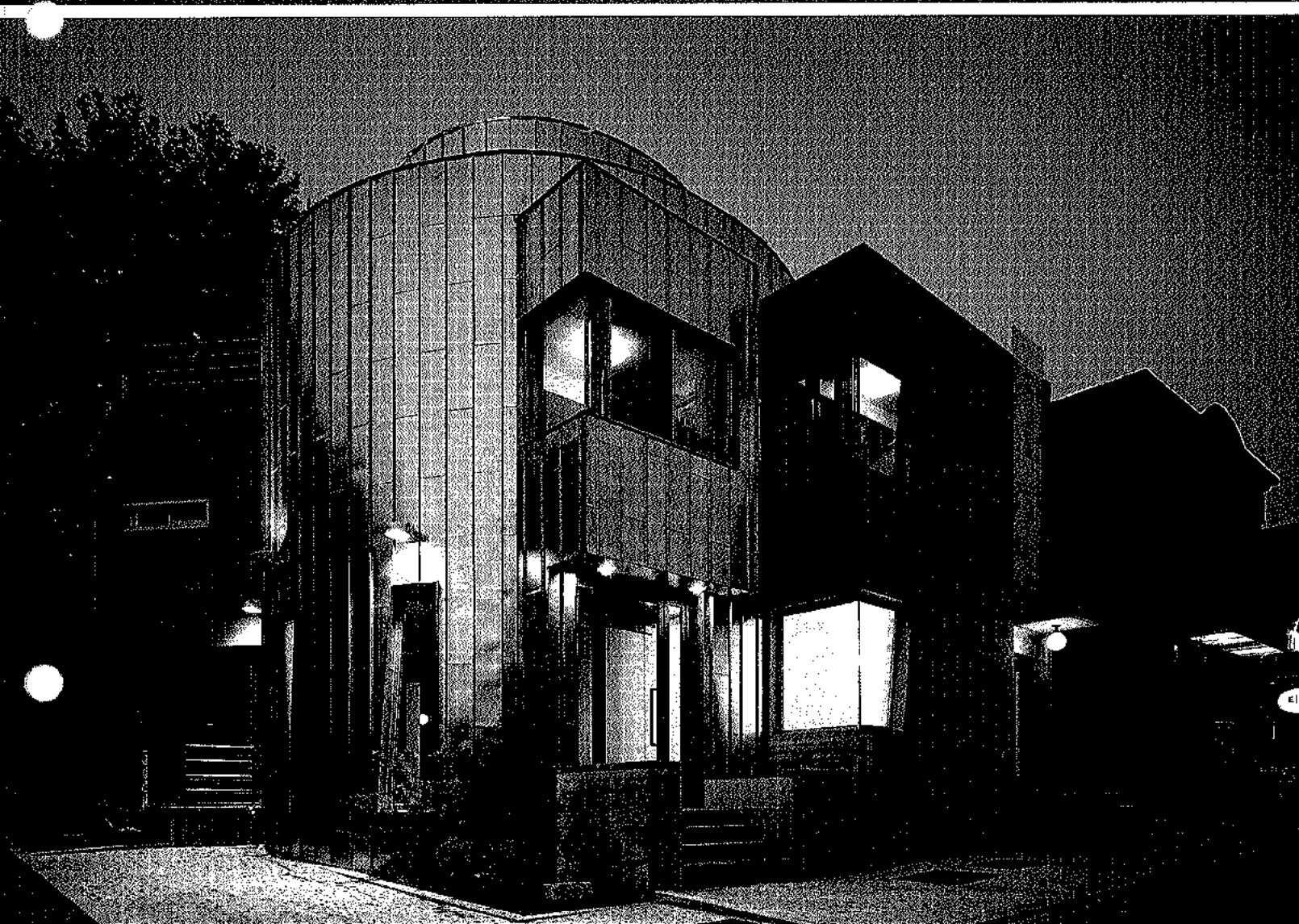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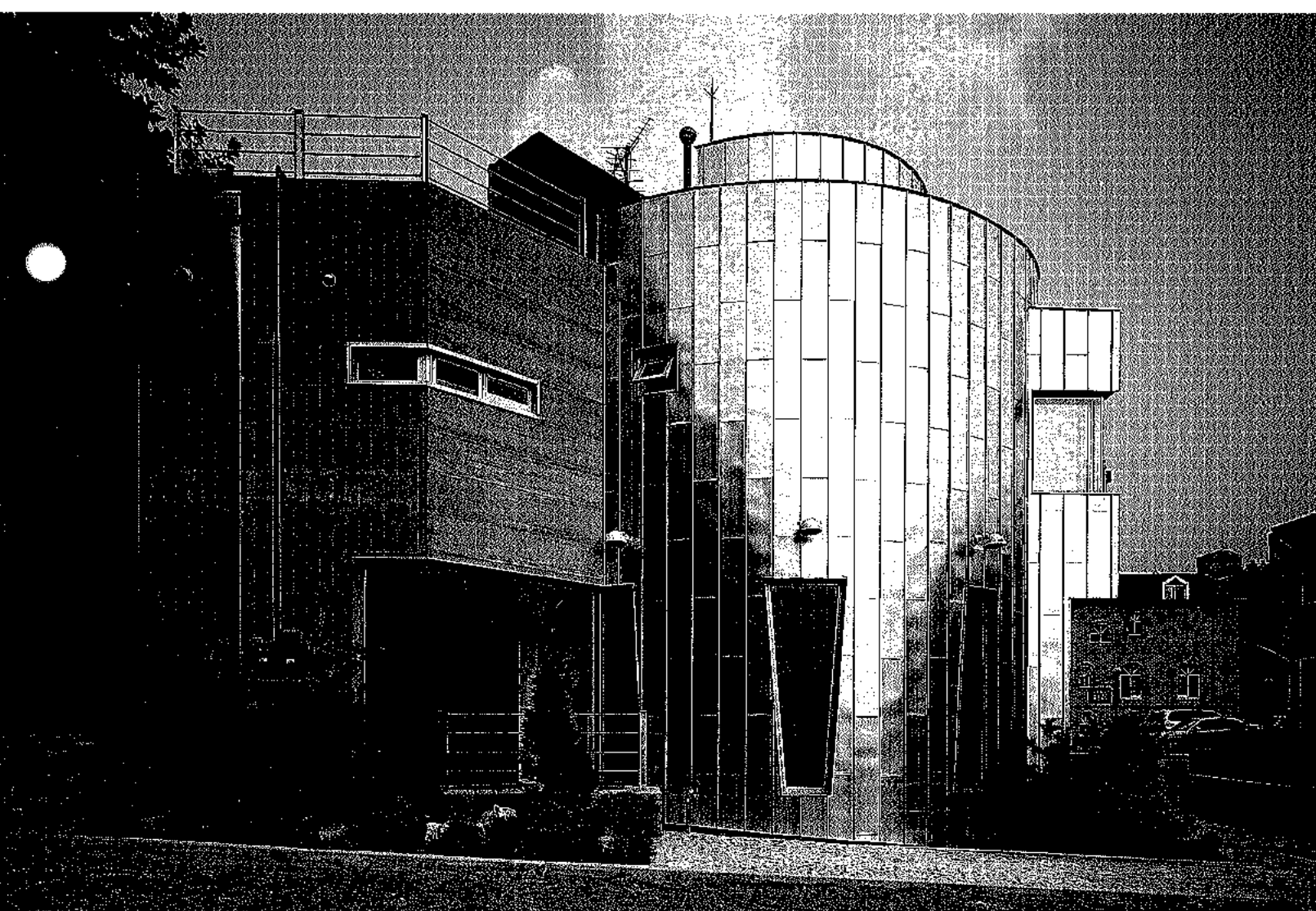
또한 건축주의 부지 추가 매입계획에 따라 좌측면은 타원형의 매스전체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였다.

매스계획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들이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매스의 규모로서는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기본 매스로부터 변형이 필요하였고, 사각매스의 코너를 절개하여 타원매스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였다.

외장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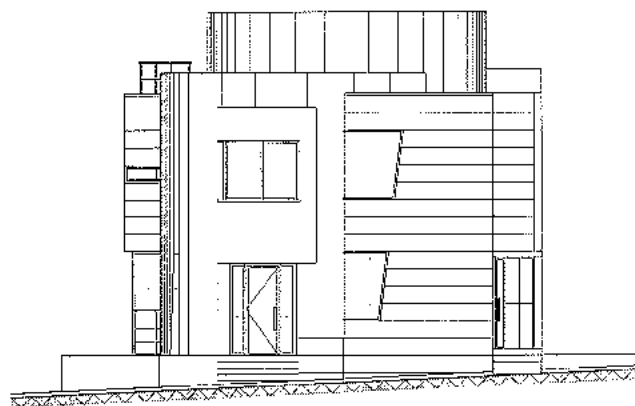
타원매스가 강조될 수 있도록 외장재를 금속계열 재료로 압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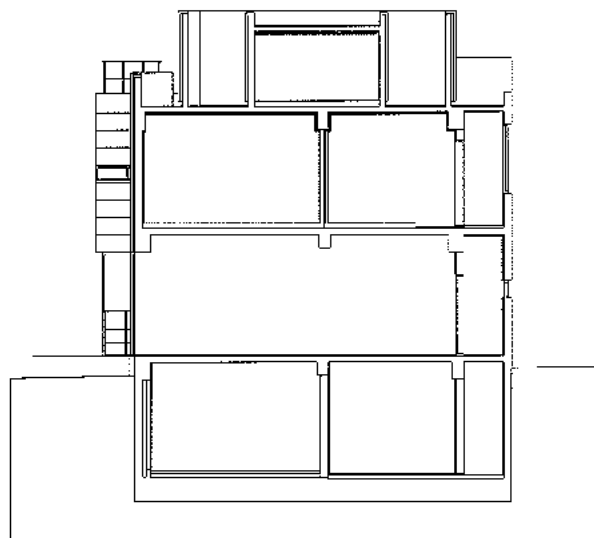
고, 타원형의 특이한 형상을 감쌀 수 있는 가공성이 유연한 재료 중에서 주석동판을 채택하였다. 이 재료는 처음에는 광택이 많이 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화하여 무광의 연화색으로 변화한다. 이 타원매스를 포용하는 박스매스는 베이스 패널로 시공하여 결국 같은 색 계열로 두 매스가 시각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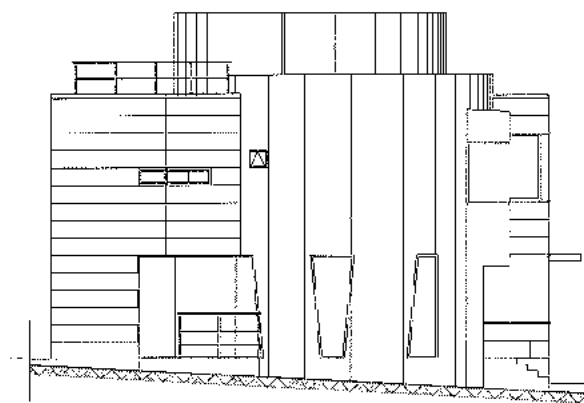
타원이 주는 곡선의 부드러움속에 금속의 차가움, 사각형의 완고함과 사선의 일탈성, 수직몰딩의 상승감과 수평몰딩의 결속력 등 대비적 속성의 혼재를 통하여 파문의 이미지를 갖도록 시도하였다. (글: 신창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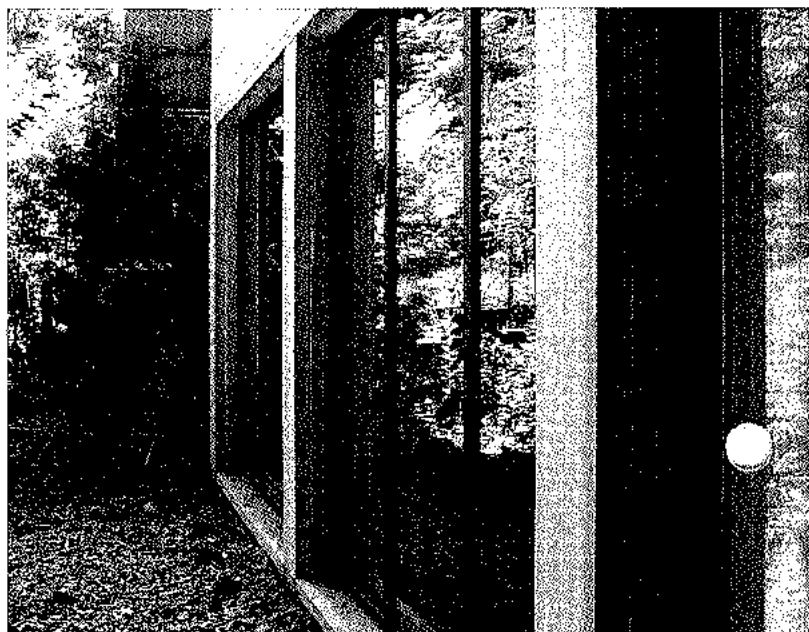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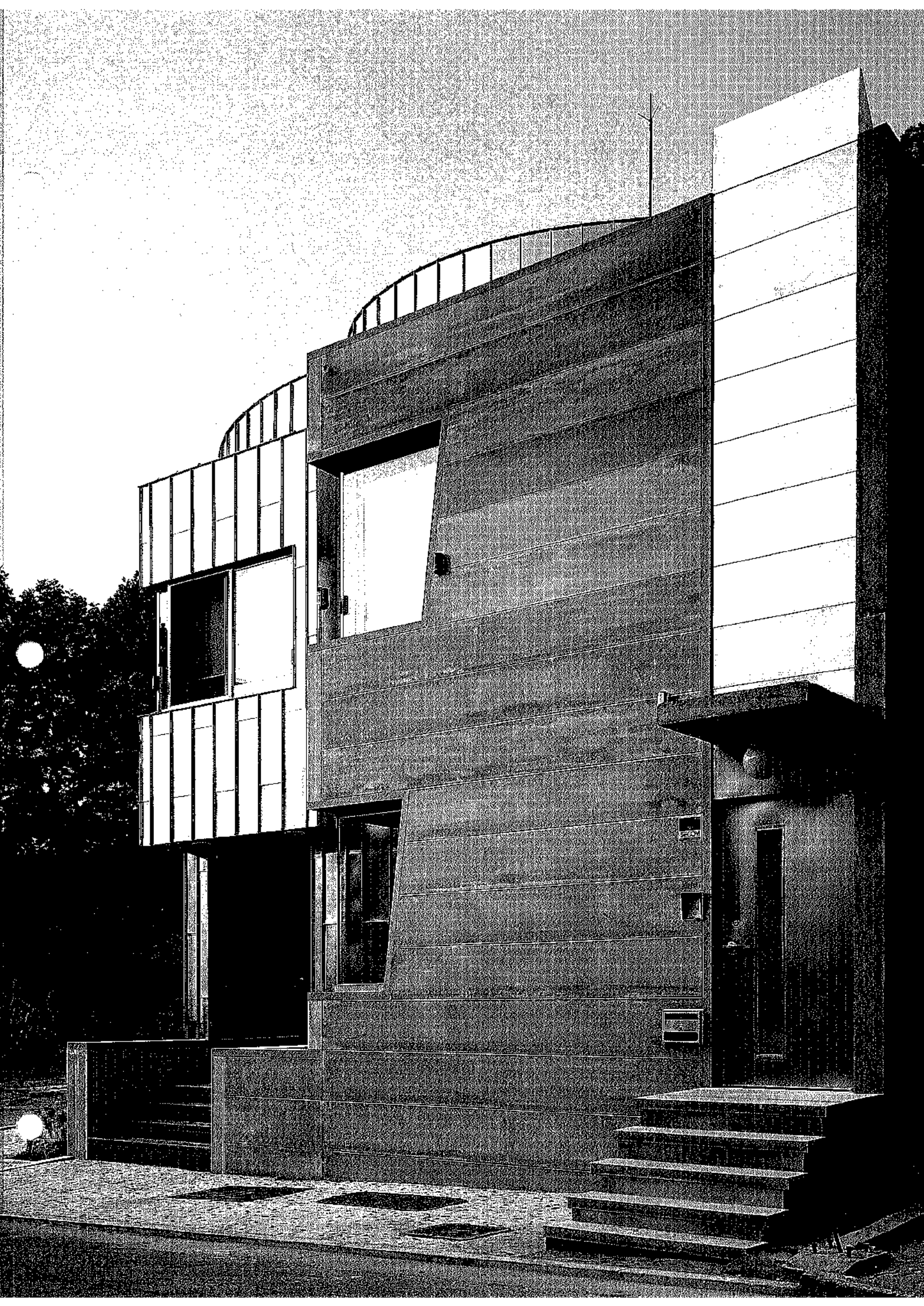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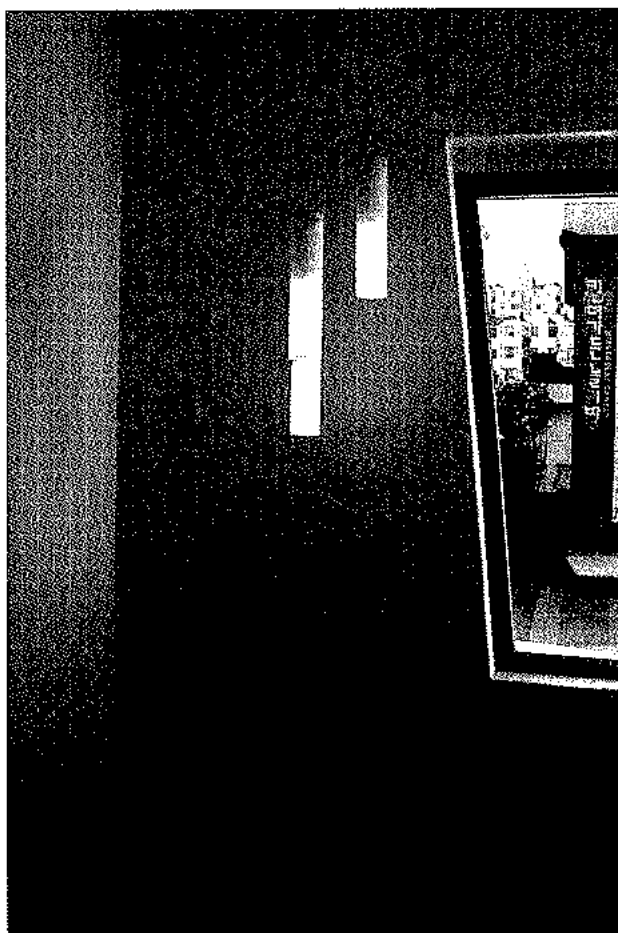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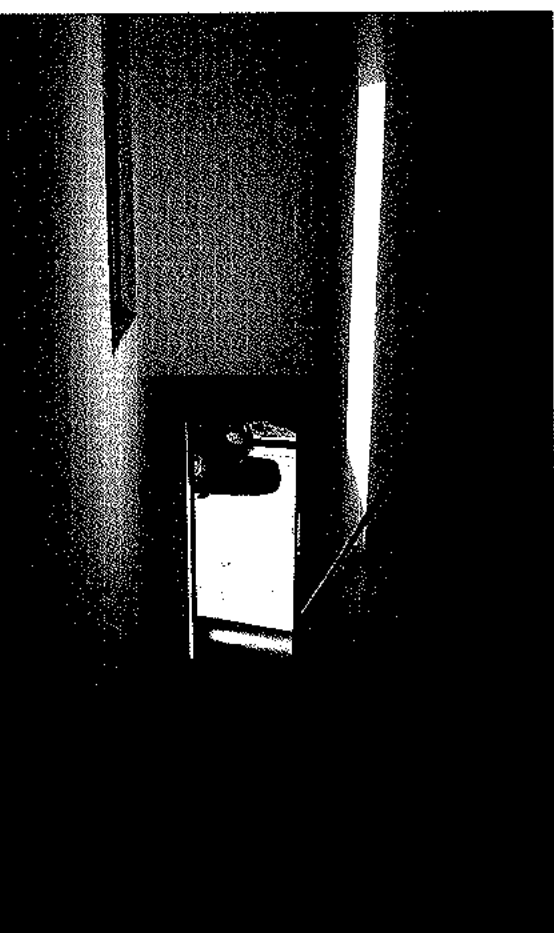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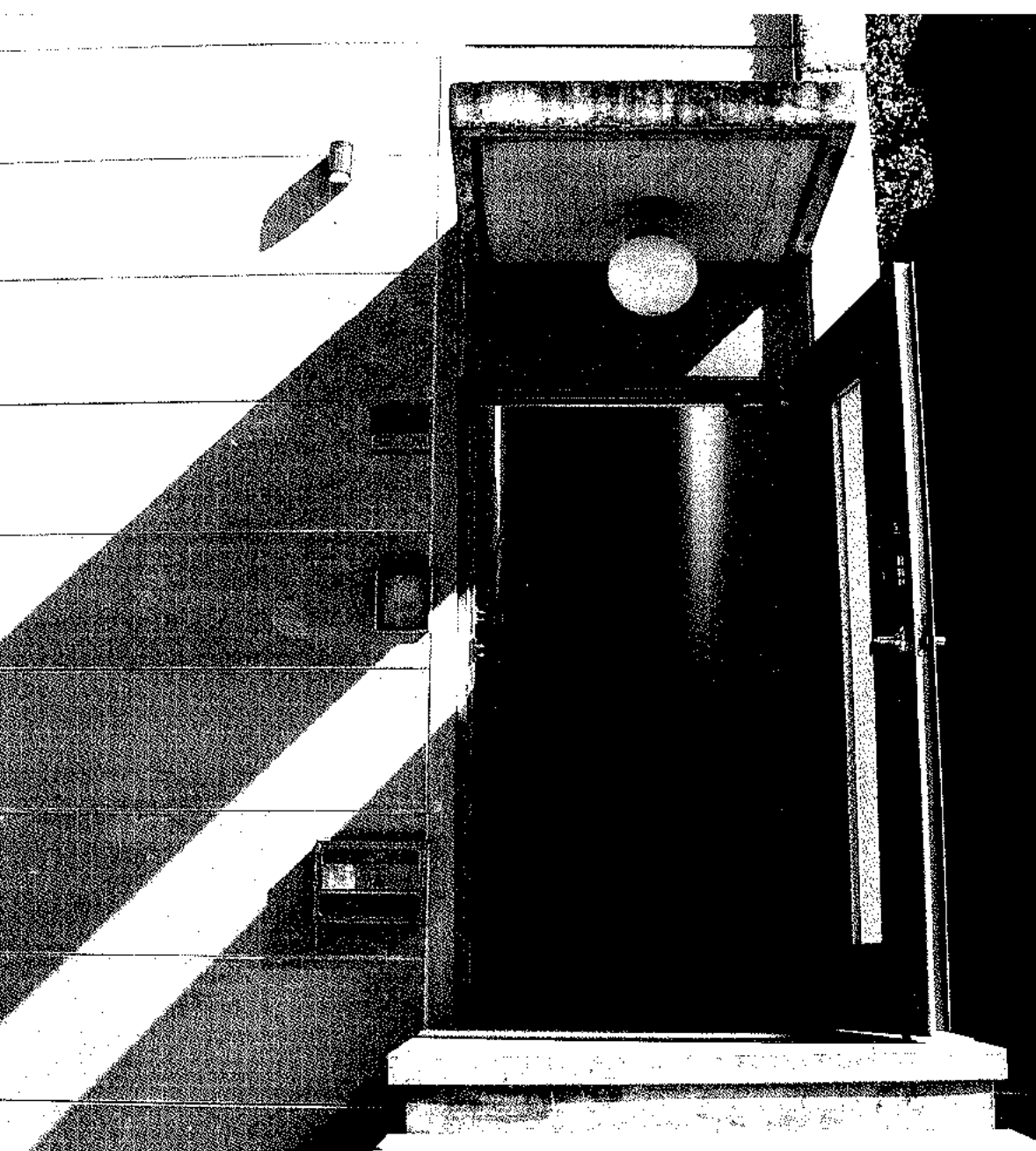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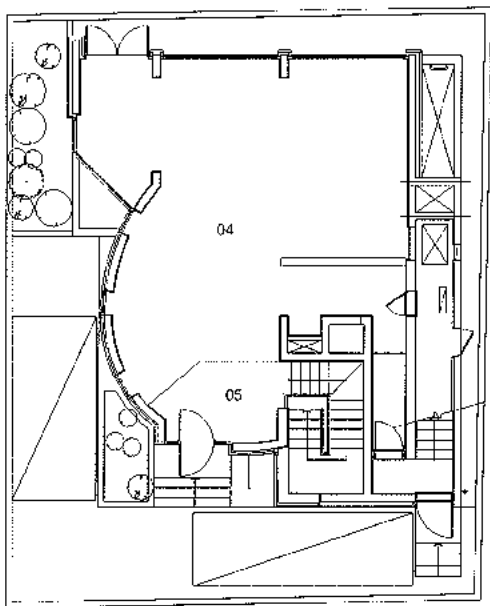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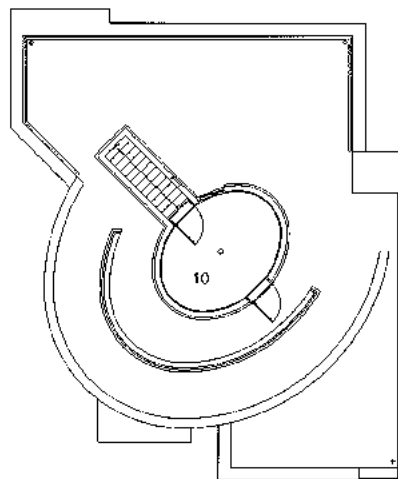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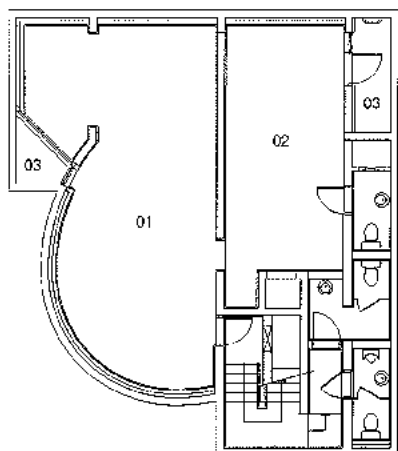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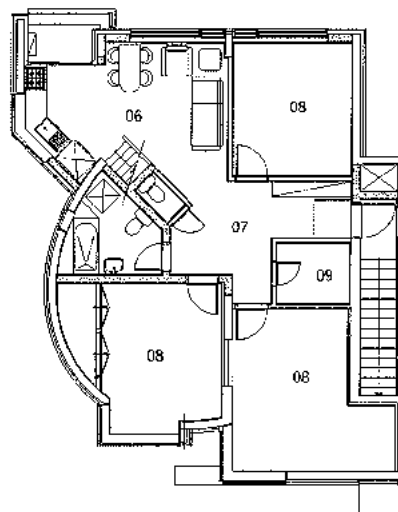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01. 원룸
- 02. 주방, 다용도실
- 03. 선반
- 04. 커피숍
- 05. 욕실
- 06. 거실, 주방
- 07. 현관
- 08. 침실
- 09. 창고
- 10. 물탱크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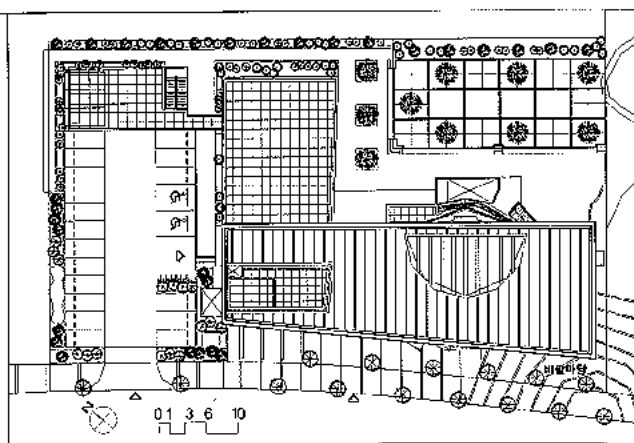
김해시 북부동 사무소 Gimhai-si Bukbu-dong Office

유수태 · 차창석 · 배상선/ 유수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 Soo-Tai, Cha Chang-Seok & Bae Sang-Se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4,469-7번지
지 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975.30 m ²
건축면적	1,141.56 m ²
연 면 적	2,578.38 m ²
건 폐 율	38.37 %
용 적 륜	65.11 %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부마감	아연도금강판, 적삼목널위 오일스테인 컬러알미늄커튼월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행정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변화였다. 특히 과거 권위의 상징이었던 관청건물은 그야말로 옛날 것의 표본이 되어버렸다.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 행정조직은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매우 민감해한다. 행정의 최일단인 동사무소 조직은 자치시대 열린행정의 첨병이며 말초신경이다.

김해시 북부동사무소 역시 행정업무 외에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춘 시설을 요구하였다.

주어진 대지는 서측에 주도로(폭20m)를 접하고 주도로 너머로 하천과 또다른 도로로 전면은 넓게 열려있으며 좌측(북쪽)에 우체국, 소방서 등 근린공공시설 부지가 있고, 우측(남쪽)은 좁고 긴 산책로형 근린공원이 위치한다.

후면(동쪽)은 일반 사유지와 접하고 있으며 전면 보다 후면이 3m높은 경사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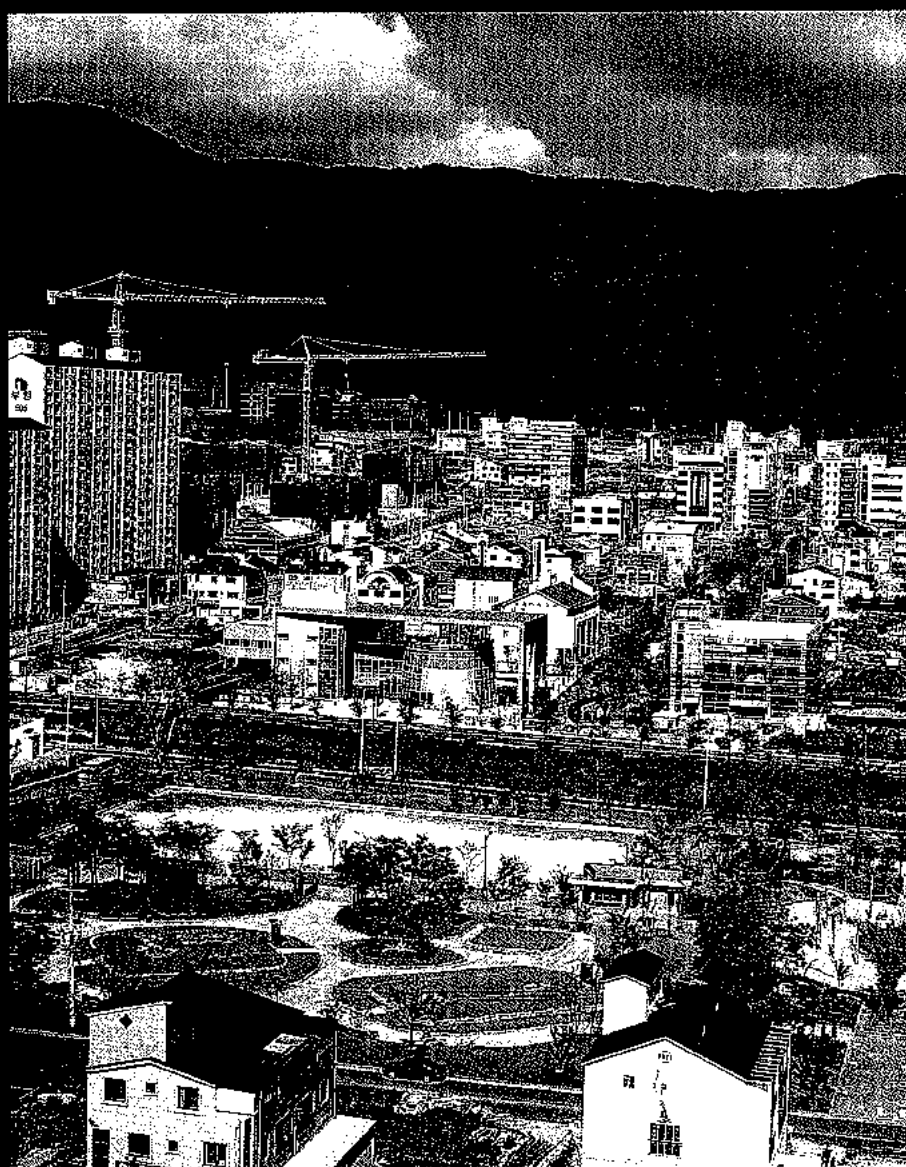
먼저 우리는 북측의 바림과 서측의 일사를 막아주고 좁고 긴 산책로형 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마당을 생각하며 이 마당을 근린공원에 내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 마당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만남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당연히 동사무소의 내정이 되게 하였다. 안마당은 높은 사각아치 아래의 몇단의 스탠드와 바깥마당으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안마당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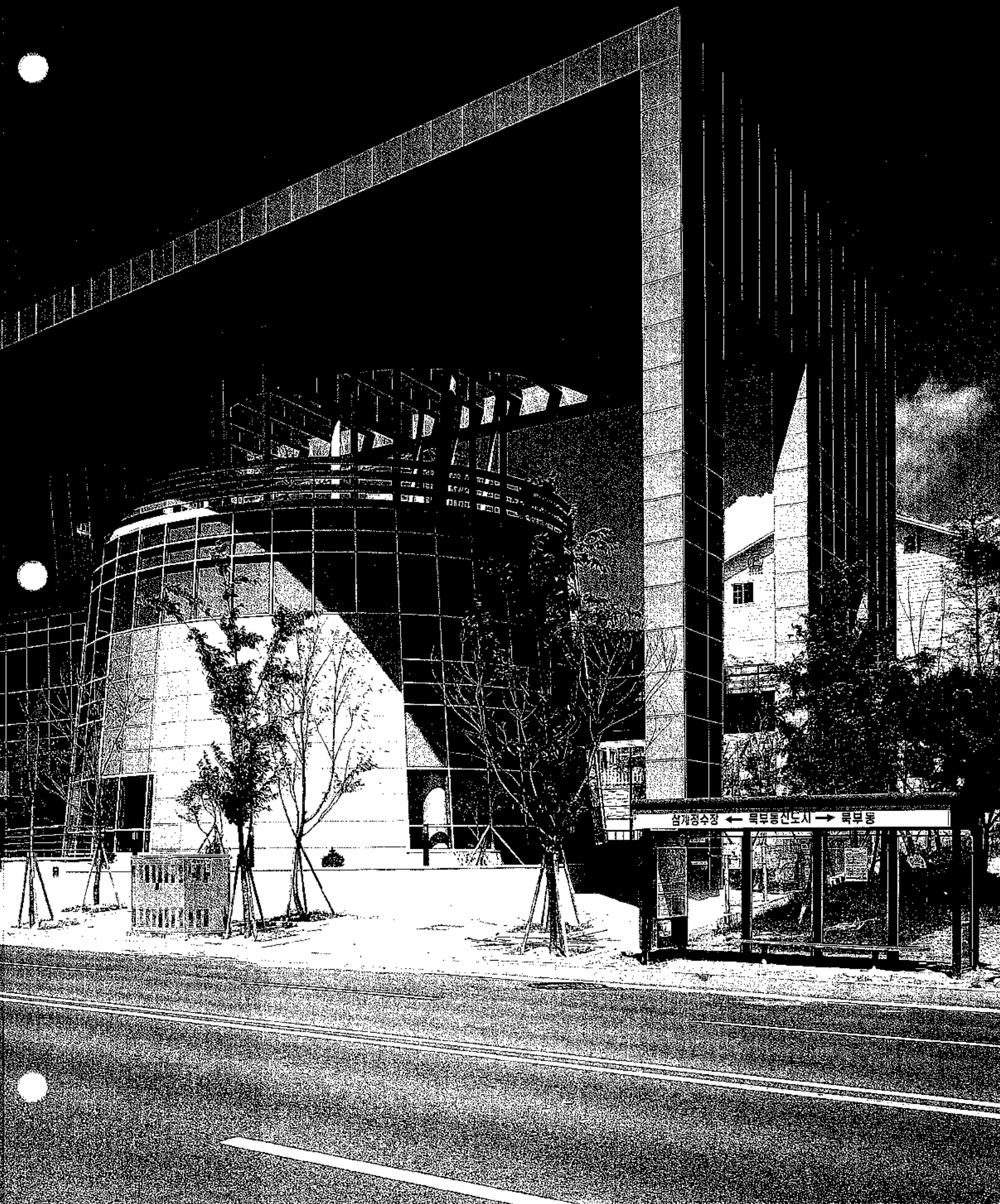
끌 것을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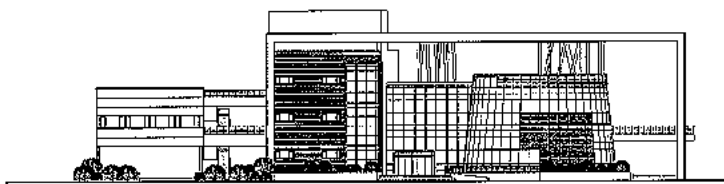
기능은 행정과 복지문화 공간으로 조닝하여 행정동은 남향이 되게 하였으며, 형태는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직육면체와 원통을 기본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서측일사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나 내·외부 공간의 상호반응을 기대하며 외피는 기암적 투명하게 하였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될 주변의 볼륨을 생각하여 강한 조형성이 있는 건물을 생각하였으며, 계획당시 다소 과도하거나 않을까 걱정하였던 사각아치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현재는 아담한 형태로 느껴졌으며, 주출입구와 옥상정원 그리고 바깥마당까지에 이르는 훌륭한 케노피 역할을 하고 있다.

좌측의 예비군 사무소는 현상설계 후 실시설계 때에 추가된 부분이며 감리는 종합감리회사에서 하였다. 중·소규모의 관공서 건물을 설계자가 아닌 종합감리 회사에 감리를 맡기는 것이 꼭 옳은 것인지는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며, 설령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시공자와 설계자간의 교감이 있었으면 한다. 상호연계를 기대하였던 근린공원과 안마당과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장애자화장실에 설치된 행거도어는 일반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것이 달려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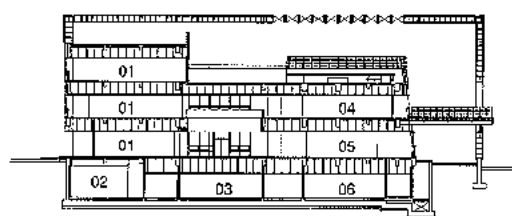




정면도



부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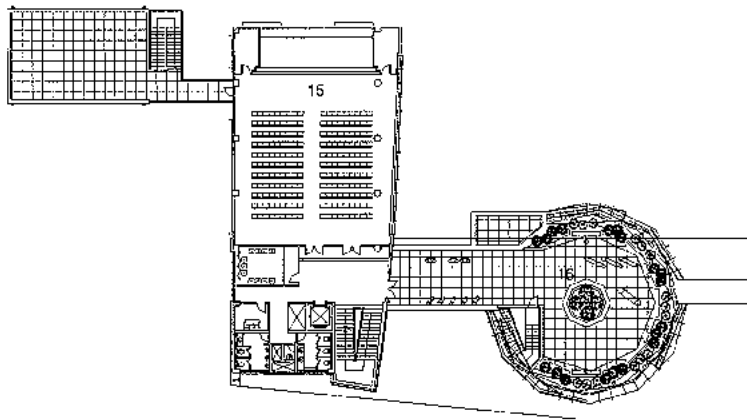
- 01_ 총
- 02_ 기계공조실
- 03_ 메어보익실
- 04_ 복도
- 05_ 휴게공간
- 06_ 헬스실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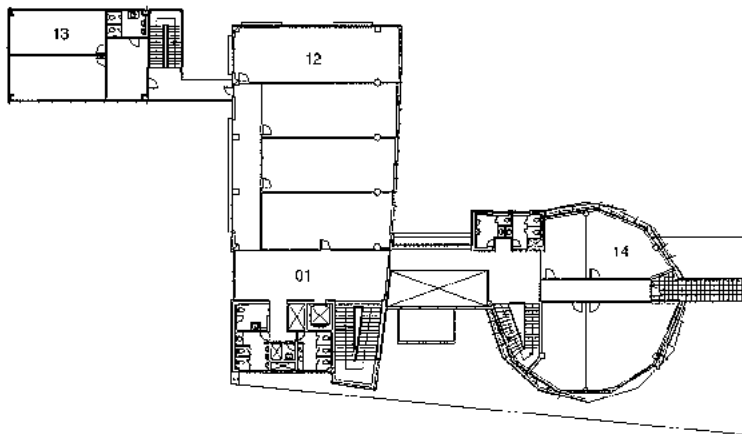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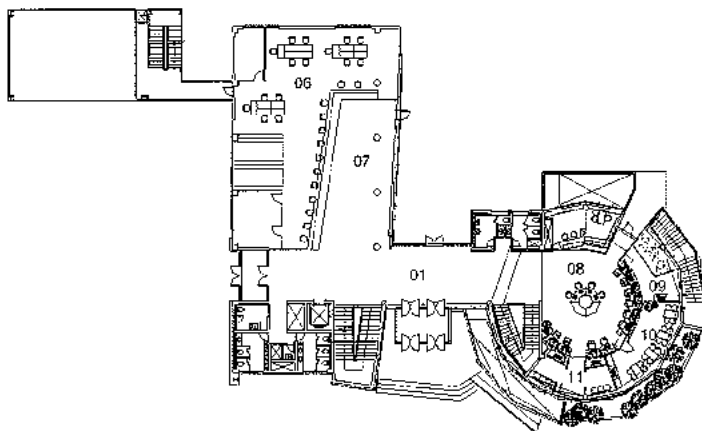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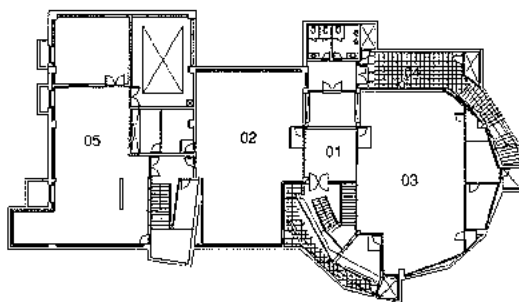
3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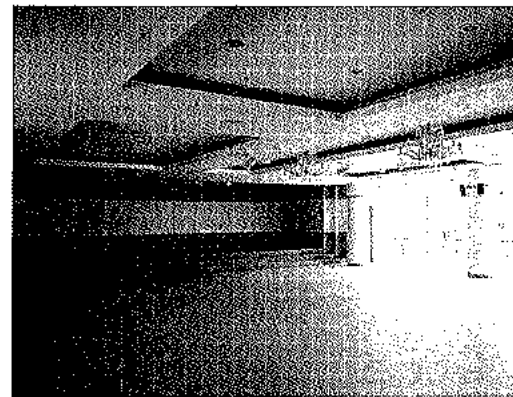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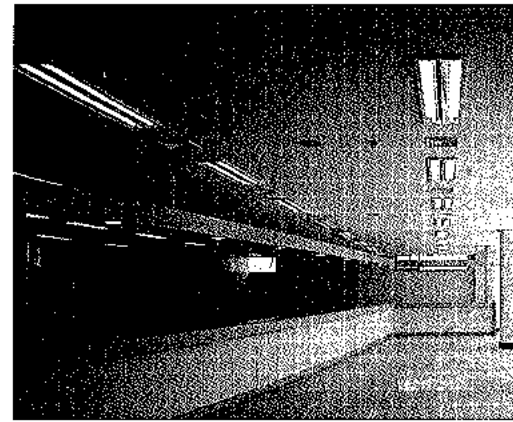


1층평면도



지하1층평면도

01 3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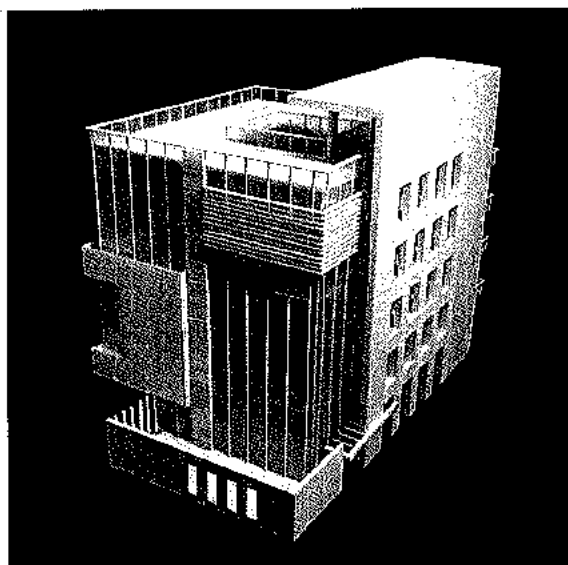
- 01_ 홀
- 02_ 에어호브실
- 03_ 헬스실
- 04_ 신관
- 05_ 기계, 공조실
- 06_ 민원실
- 07_ 민원대기실
- 08_ CD부스
- 09_ 놀이방
- 10_ 노인휴게공간
- 11_ 비디오부스
- 12_ 문서고
- 13_ 예비군 중대본부
- 14_ 동아리실
- 15_ 다목적홀
- 16_ 옥상정원

쉬즈메디병원
Shes Medi Hospital

주영정 / (주)에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oo Young-Jeong

건축개요

위 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8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2종미관지구
주요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대지면적	1,148.80㎡
건축면적	372.61㎡
건 패 율	32.43%
용 적 륜	128.54%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THK 24 복층유리, 아연도강판, 적삼목, 라암스톤
내부마감	무늬목, 비닐페인트
기 계	썬티엔씨
전 기	한국 EFT 엔지니어링
구 조	P.E.G 구조
시 공	희훈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一望 A sweep of the eyes

수원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1번국도간에 위치한 쉬즈메디 병원은 여성을 위한 전문화된 병원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병원이다. 도로에서 제일먼저 눈에 들어오는 전체 매스mass를 감싸며 커를 이루는 가벽은 도로로부터 전달되는 소음과 산만함을 걸러내고 있으며 깊이감을 가지는 창을 통해 내부에 어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近接 proximity

병원건축에 요구되는 특유의 기능성과 구조적인 특성을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위한 구성이 한데 어우러져 부분적으로 열림과 닫힘이 공존하며, 각면의 부분적 절절을 통해 거대이미지를 감수시켜 주변거물들속에서 맥락을 흐트리지 않고 놓여있다.

進入 entry

보행자의 흐름이 많은 삼각형 모양의 대지의 앞부분은 병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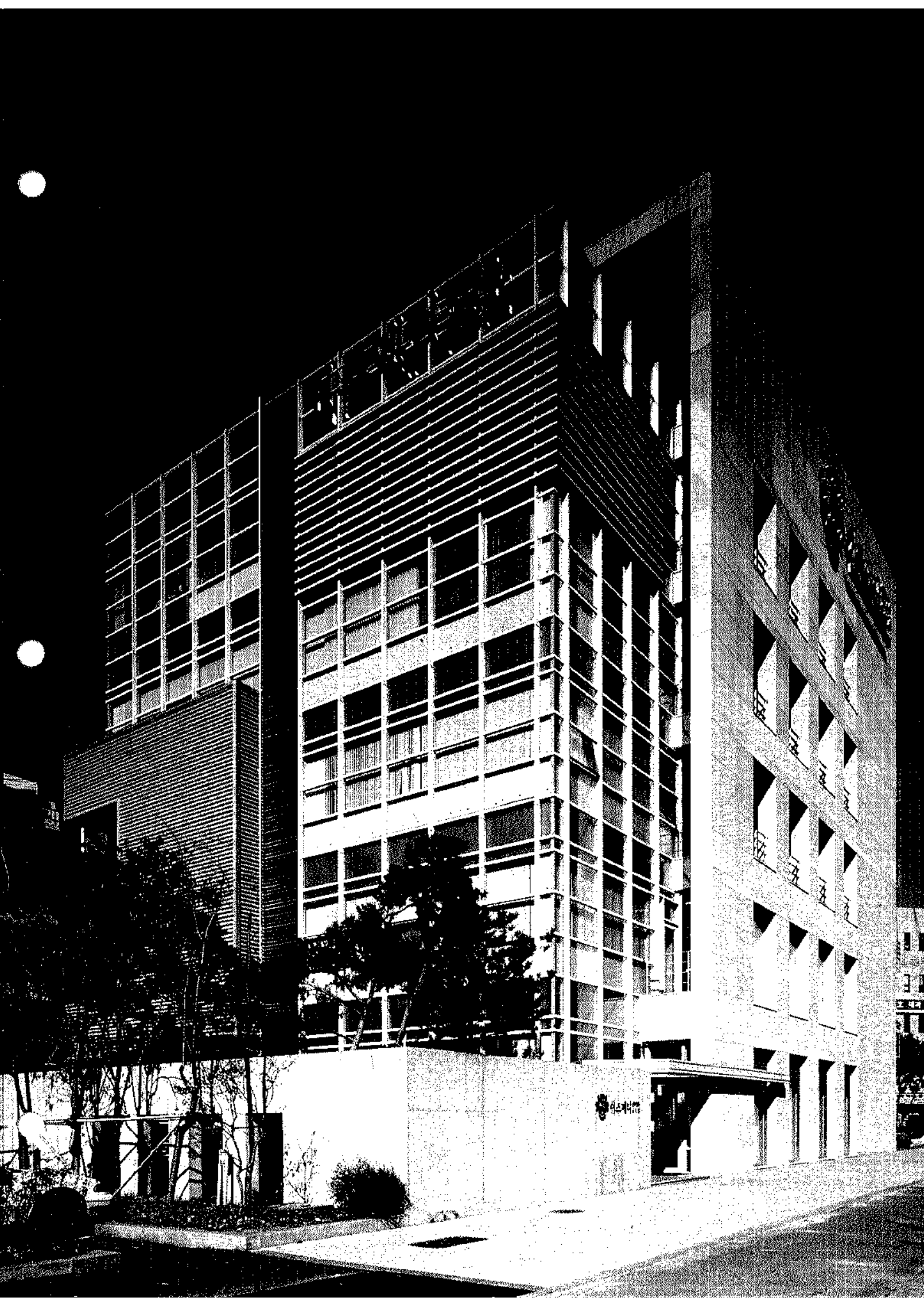
주진입공간으로 지나가다 한번씩 쉬어가기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도심속 자연공간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닌 예방과 관리의 열린 병원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건물의 모든 방향에서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들은 외부와 내부의 부분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一瞥 A glance

접수와 대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1층 로비는 투명한 커튼월을 통해 외부에 조성된 조경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며 자연광이 실내에 항상 풍만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가 유지된다.

외래진료자와 방문객, 입원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진료와 각 검사실의 이용이 쉽고 명료하며 또한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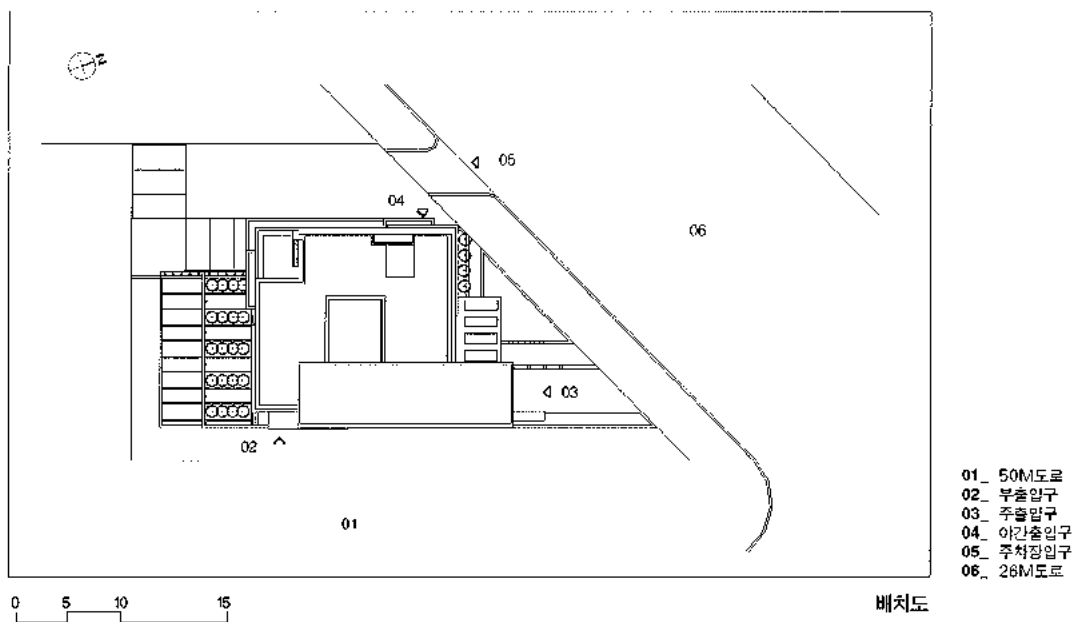
분마실과 회복실이 위치하는 2층은 분만과 대기실을 전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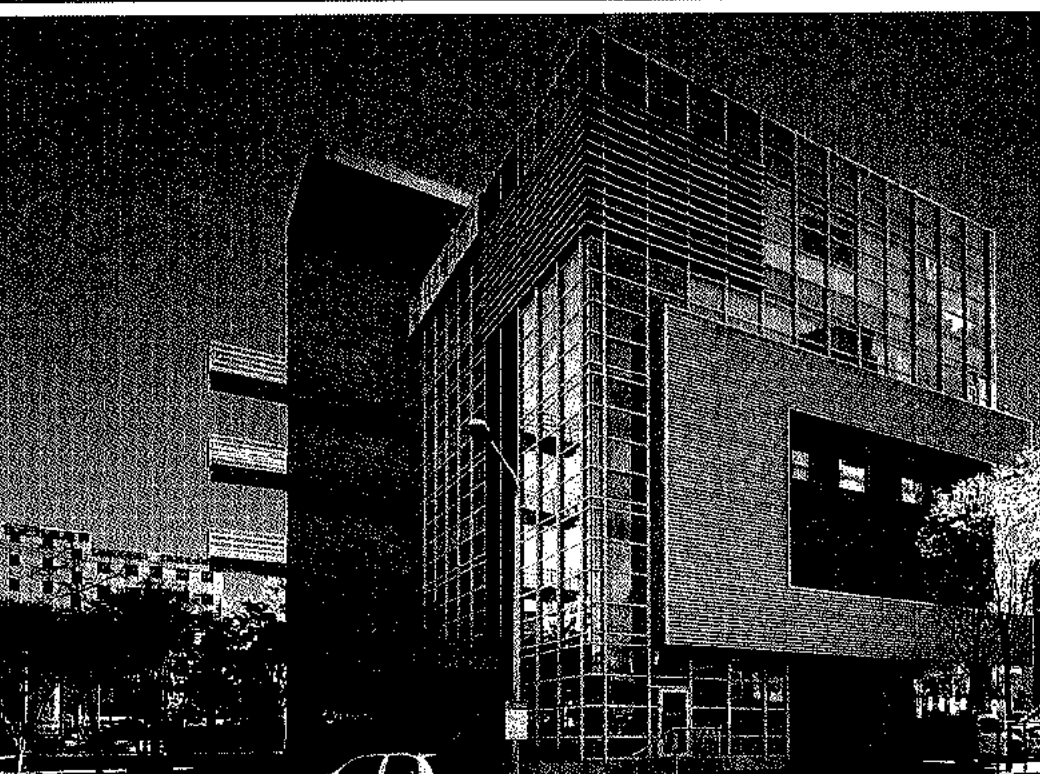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병원

스위즈메디
산부인과
소아과





로 분리하여 의료진과 내방객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으며 진통실에서 분만실과 수술실에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산과병동이 같이 배치되어 있어 진료와 산모를 보살핌에 용이하다.

신생아실과 입원실이 위치하는 3층은 입구의 N.S(간호사 대기실)에서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신생아와 산모의 보살핌이 용이하며 미숙아실과 신생아실의 경우 많은 장비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또한 차음 및 방진 전파차단 등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분야별 설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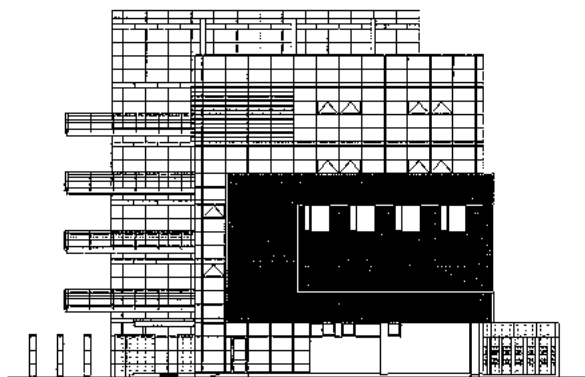
仰天 Look up at the sky

건물내부의 하늘로 열린 중정은 환자와 의료진들이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쏟아지는 빛과 상쾌한 공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인 병원 입원실들이 가지는 삭막함과 폐쇄성, 병원에서 요구되는 절대적인 기능성으로 인한 딱딱한 인상들이 하늘마당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함으로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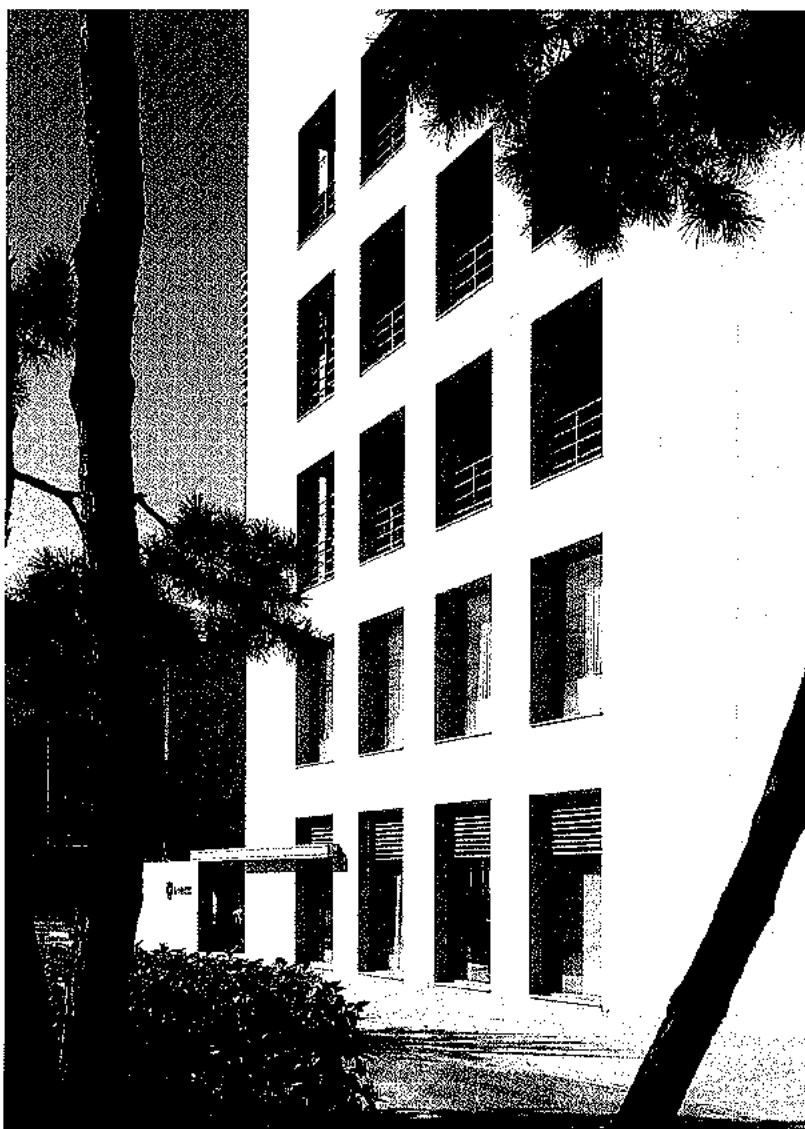
心事 A thought

다른 건축에 비해 절대적으로 기능성이 요구되는 병원건축에서 자칫 無用(무용)의 공간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공개공지와 조경, 건물내부 중정에 배려된 병원 측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술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병원신념과 닮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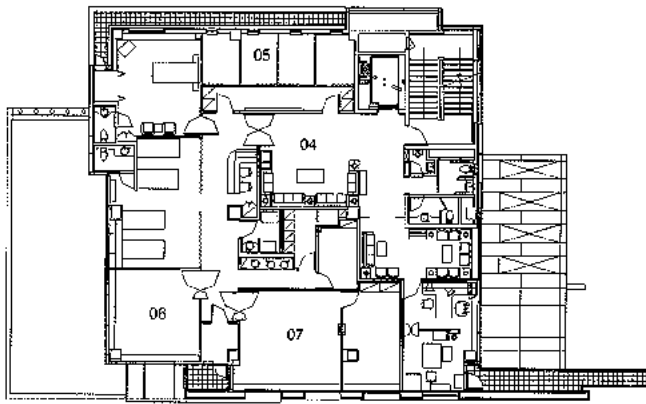
그러나 병원건축에 도입되는 여러 건축적요소들은 공간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지만 자칫병원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원건축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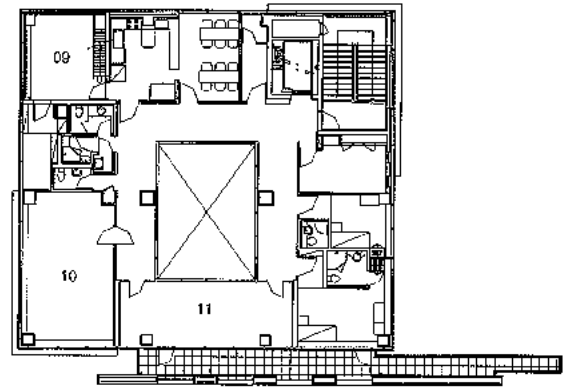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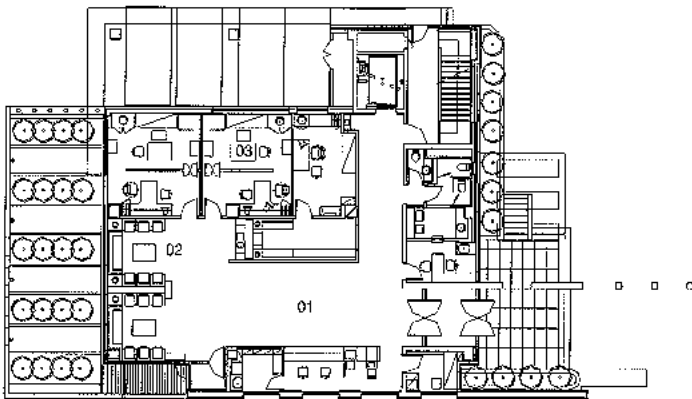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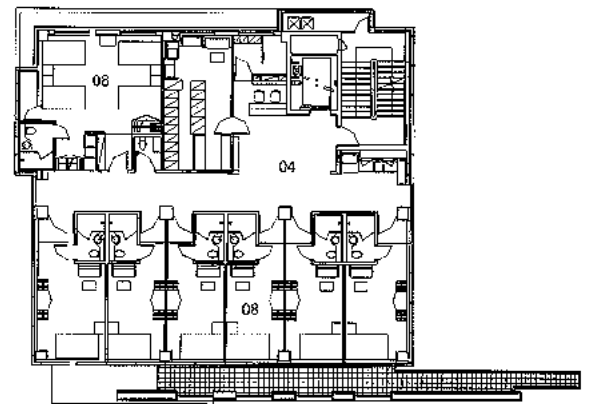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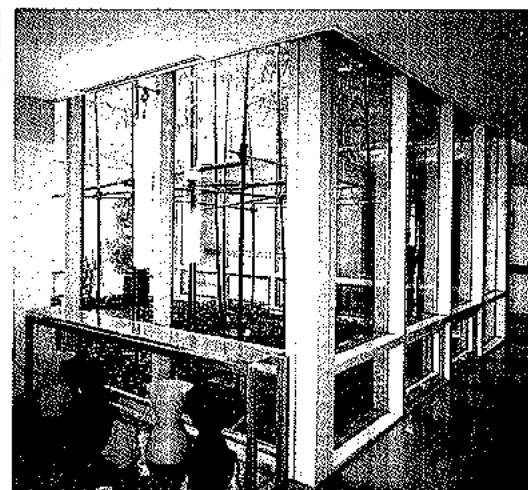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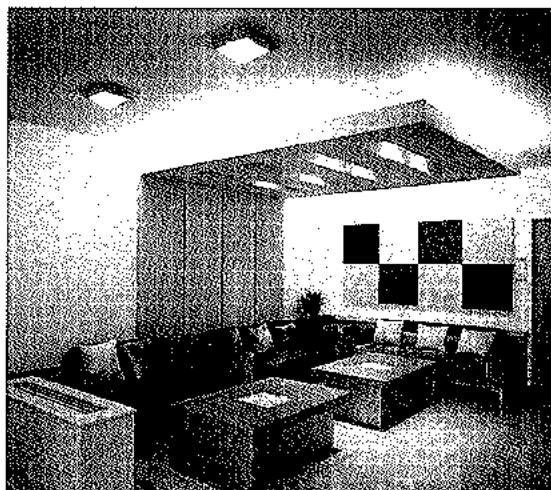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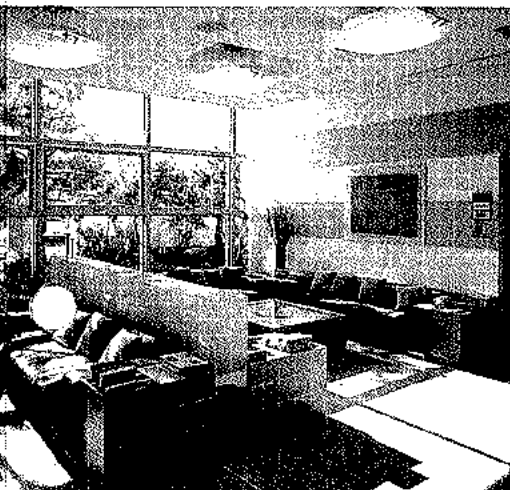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01_ 로비
- 02_ 대기실
- 03_ 진료실
- 04_ 홀
- 05_ 회복실
- 06_ 문안실
- 07_ 수술실
- 08_ 입원실
- 09_ 휴정
- 10_ 다목적홀
- 11_ 다용도실



하나로통신 일산정보센터

HTI-Telecommunication Center, ilsan

송유석 / (주)한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Yu-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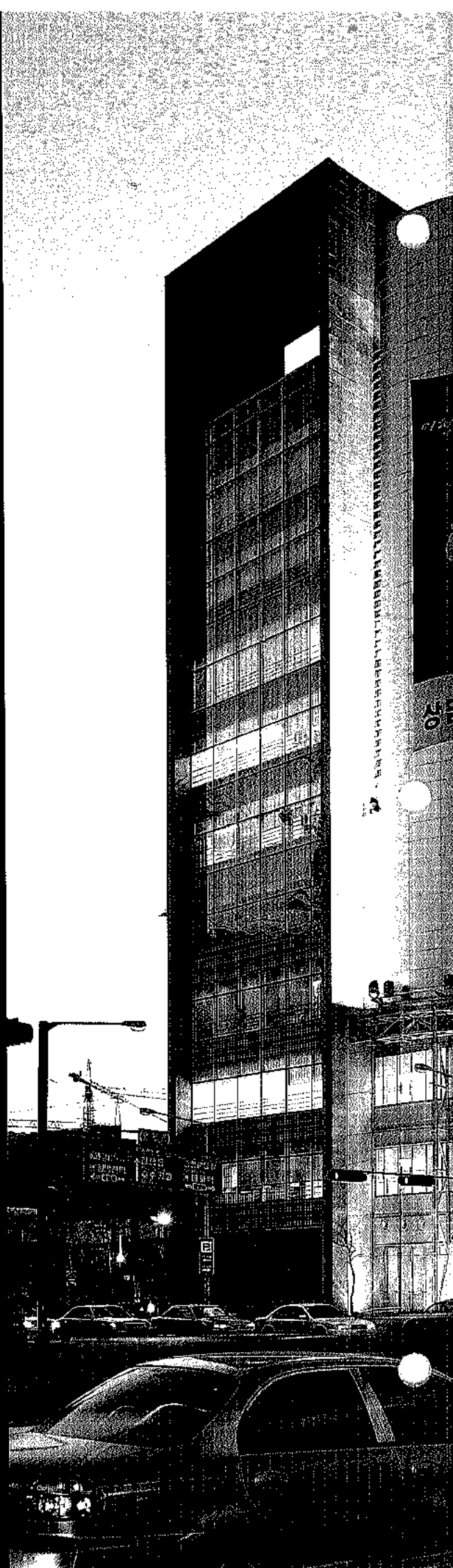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 2동 1726-1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계획지구, 상세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용시설(통신시설)
대지면적	6,020.60㎡
건축면적	2,927.60㎡
연 면 적	32,558.02㎡
건 폐 율	48.63%
용 적 륜	350.56%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11층
주차대수	법정주차 : 176대 계획주차 : 189대(옥내 158· 옥외 31)
외부마감	입 면 : T10스텐레스하니컴패널, S.P.G시스템, STONE PANEL 창 호 : T24저반사컬러복층유리, T6샌드브라스트유리
발 주 처	하나로통신(주)
감 리 자	(주)한기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자	금호산업(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일산(광역) 입지분석

- 하나로통신 일산정보통신센터는 일산구 장항 2동 726, 726-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 급속히 팽창하여 성장하는 옥산 중앙로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정발산 공원과 뒤트는 호수 공원이 근접하여 양호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 잘 계획되어진 신도시의 사거리에 위치하여 랜드마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이 근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용이한 위치에 입지한다.

주변 근린 입지현황

- 일산의 중심로의 중앙로에 위치
- 중앙로의 무궁화로 교차로 사거리에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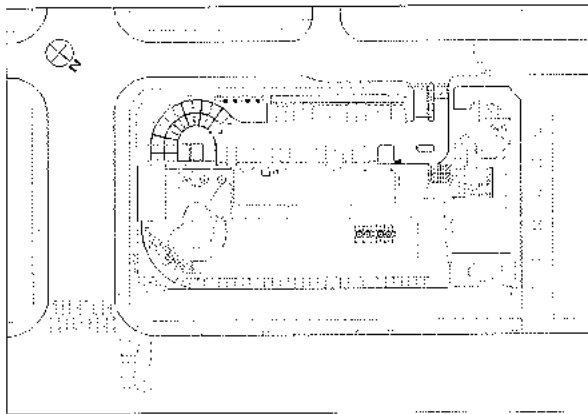


- 전면(중앙로) 40M, 배면 15M, 우측(무궁화로) 25M 도로, 좌측 8M 보행자 도로에 접해있어 보행자 및 차량진입이 용이하다.

계획개념

- 동기

일산의 도시설계 지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프로그램과 기



배치도



능의 조합을 얻게 되었다. 상세 계획구역의 작업들이 그러하듯 이 Project 또한 주어진 조건들(지침)을 따라 사업계획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프로그램 덩어리를 도시에 앉히는 작업이었다. 그러다보니 도시지표면의 연장과 프로그램간의 경계로서 생성되어진 Vacant한 외부 공간을 도시적 Context에 의한 연결을 할 것인가? 분리된 프로그램을 오브제로 남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스터디 과정에 주요한 문제였다. 결과는 형태 및 재료를 잘 조합하여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여지기 & 보여주기

급속히 팽창하여 성장하는 일산 중앙로에 도시의 Context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 작용함에 있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정보화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정보화 비전을 선도해 나가는 통신전문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상충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이미지를 도시건축의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경직되고 폐쇄되기 쉬운 저층부를 S.P.G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의 확장 및 투명성을 주었고, 주된 재료로는 통신전문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스테인레스 계열 메탈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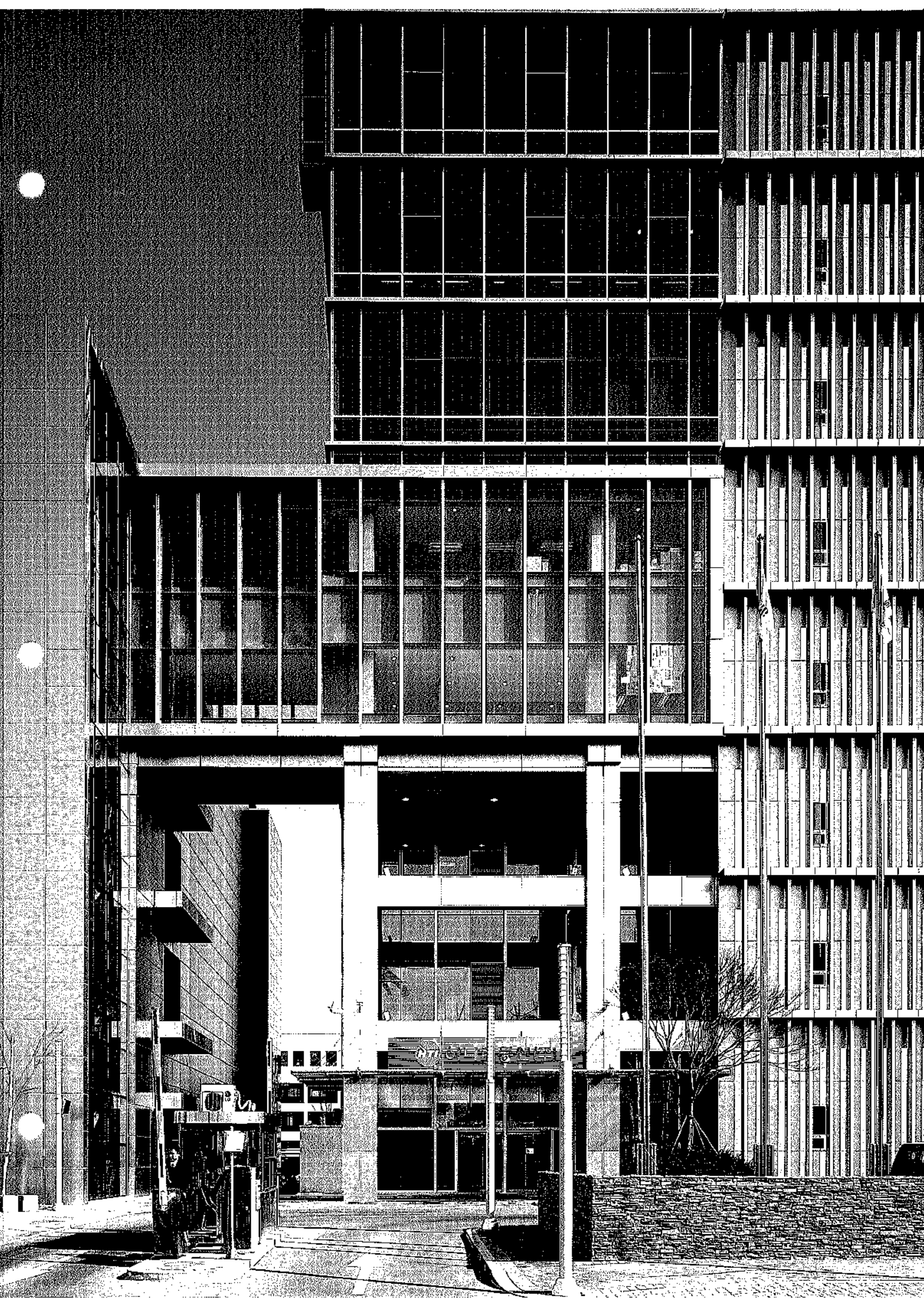
계획되어지는 도시 내부에 척추와 같은 Context의 한 요소로서 올바른 도시 건축적 측면에서 건강한 파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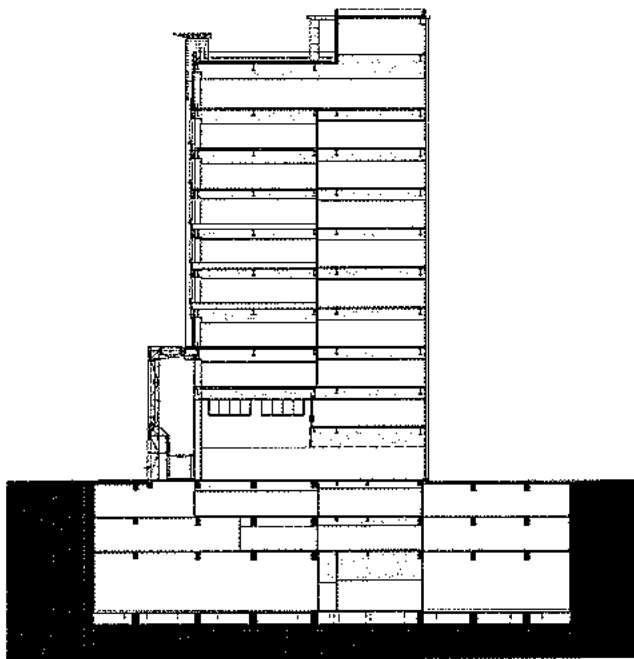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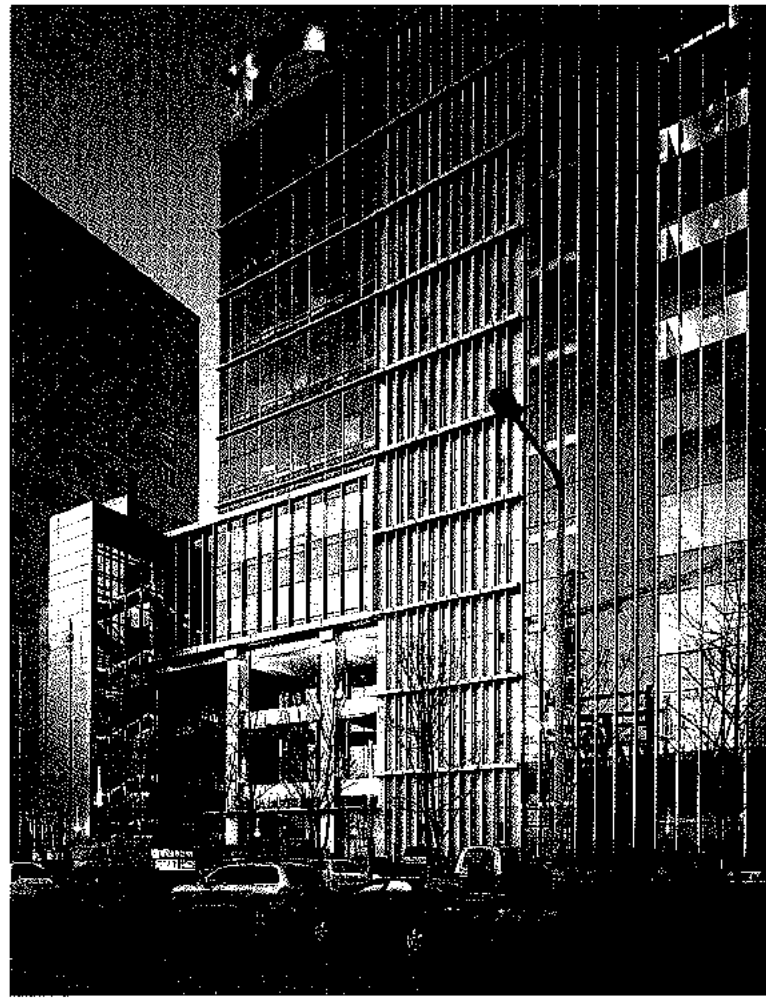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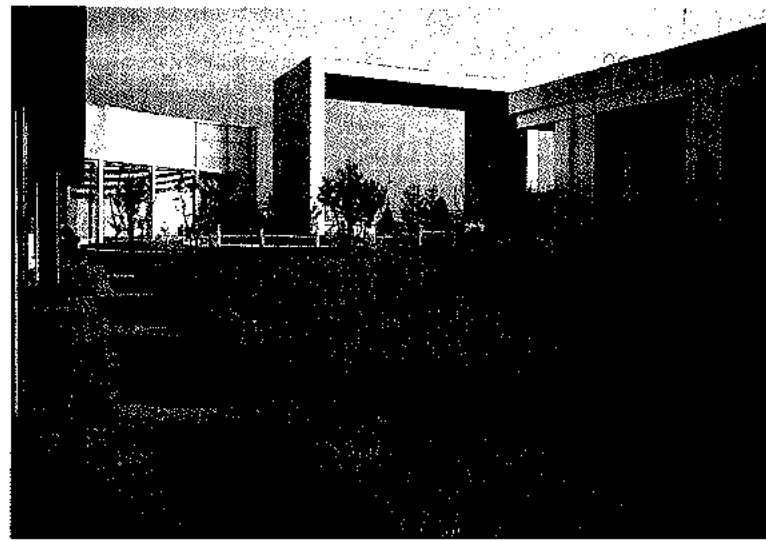
- 수직성 강조로 미래 지향적 이미지 부각
- S.P.G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층부의 개방감 및 공간확장
- 스테인레스 패널을 이용한 통신전문기업의 첨단 이미지를 부각

경관조명계획

- 최첨단 통신기술을 선도하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회사의 IDENTITY를 표현하고, 일산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
- 건축형태 분석을 통하여 Horizontal Line을 강조하여 건축의 전반적인 형태와 건축의 규모를 표현하며 Vertical Line을 강조하여 강직함을 표현
- 건축의 주된 부분을 Effect(Color Change) 조명하여 주간과 야간의 형태적 차별화
- 야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부분 조명
-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조명 (내부에서 배어나오는 조명을 배려)
- 원형적으로 개방된 부분에서 Search Light하여 통신회사의 이미지와 상승적인 이미지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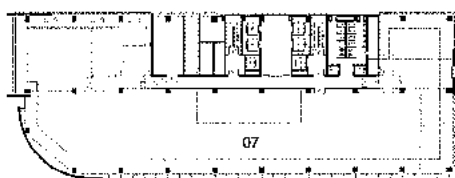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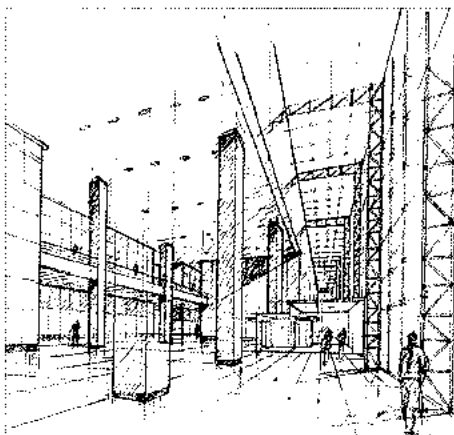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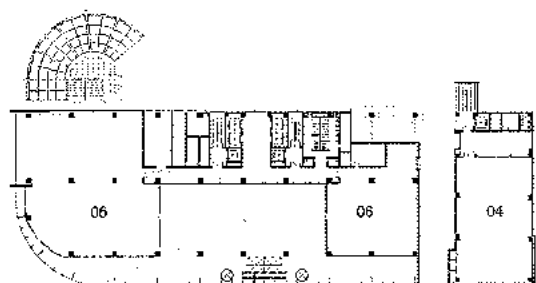
중단면도



- 01. 주출입구
- 02. 로비
- 03. 온탕
- 04. 통산기계실
- 05. 복외휴게공간
- 06. 통산운동실
- 07. 통산실
- 08. 소회의실
- 09. 유계실
- 10. 대회의실
- 11. 식당 및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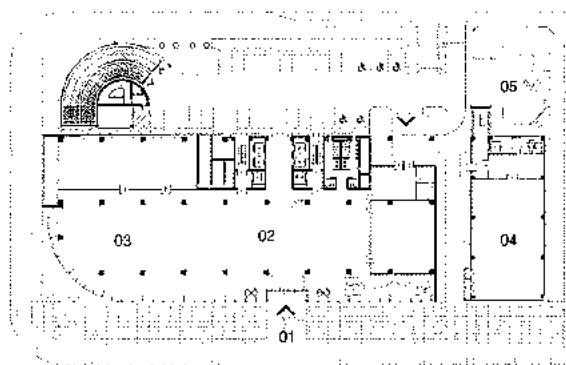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육상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0층 평면도

신길동 '뫼골' Singil-dong Met-kol

유재득 / 건축사사무소 일로+이용재 / 순천향대 건축학과 교수
Designed by Yu Jai-Deuk & Lee Yong-Jai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구로구 신길3동 362-12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51.30㎡
건축면적	90.38㎡
연 면 적	165.47㎡
건 폐 율	59.73%
용 적 륜	109.36%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조적식구조 + 경량철골구조
주차대수	1대
외부마감	우드사이딩, 드라이비트, 내후성 강판위 도장
설계담당	정은미, 이승만, 권선중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종훈 / 쟈스튜디오)

환경탈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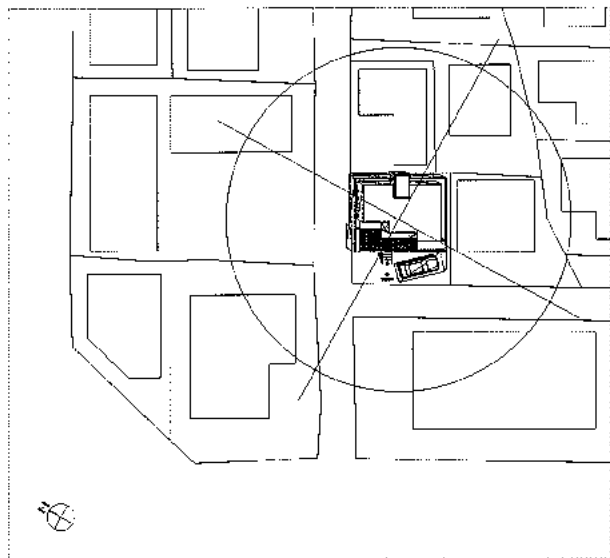
환경탈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뼈가 변하고 모양이 변한다는 뜻이다. 즉, 모든 뼈가 다시 맞추어지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얼굴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거나 혹은 기존의 구조를 분열으나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건축에 대입해보면 환경탈퇴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즉,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며 건물의 모양이 변하여 좀더 좋은 건물의 공간과 모습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건축물을 헐고 재건축 하였을 시에는 자원의 낭비, 환경의 파괴라는 커다란 개념은 차지하고서라도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제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부설 주차대수 등으로 인해 작은 면적의 대지는 그만큼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법적 현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축과 리모델링간 선택의 문제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성이다. 대부분의 대도시 건축 환검은 1坪이라도 더 짓기 위해 멀쩡







배치도

한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의 환경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고사하고 최대의 용적률과 1세대라도 더 무거 넣기 위해 노력 분투하는 현실이 우리네 건축 환경이다. 개발과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 되어 쓸만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철거되 나가며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는 슬픈 건축 현실 속에서 기존의 가치와 환경의 보전(Consavation)이야말로 이시대의 건축에 있어 진정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도시의 작은 이정표

25미터 도로전면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 대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시간의 편리와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내린 30여년 된 건물이다. 원래 영등포구 신길동 성락교회 건너편에 주거용도로 쓰여지던 건물이다. 깨끗하고 맛깔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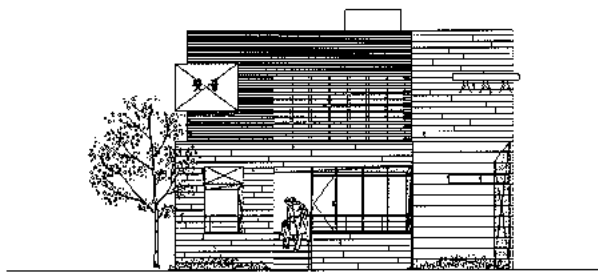
음식점을 구상하던 건축주인 세자매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계획을 의뢰하였지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 현실적인 계획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건축주 역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동의하였으며, 디자인에 관해 별다른 주문이 없어 소신껏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다. 30여년의 풍상을 겪어 수명을 다한 단독주택을 음식 전문점으로 리모델링 하여 새롭게 건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쓰러져 가는 이 건물이 이 지역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였다.

레이어를 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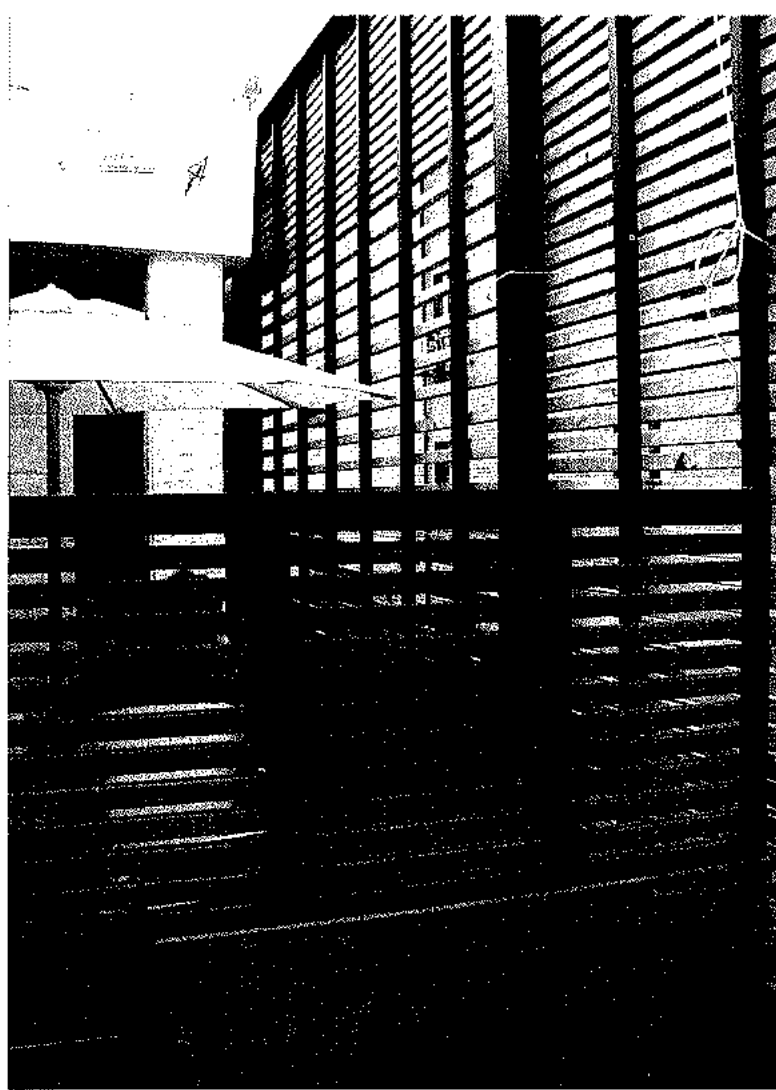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외장적인 측면에서는 덧씌울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외장적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박스의 단순함과 자연스러운 절제된 수평의 안정성'을 설계 요소로 활용하였다. 기존 건축물의 과거 레이어에 또 다른 오늘날의 레이어를 덮어 이의 우연한 중첩을 외장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외장재료 역시 자연스러운 느낌의 목재와 무채색의 철판을 사용하여 혼잡한 도시 구조 속에서 거친 드러냄 보다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설계언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2층 외벽 레이어를 목재 루버로 계획하여 본 건물 뒷면의 레이어가 오버래핑 되도록 의도하여 실내에서는 외부의 경관 조망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하나의 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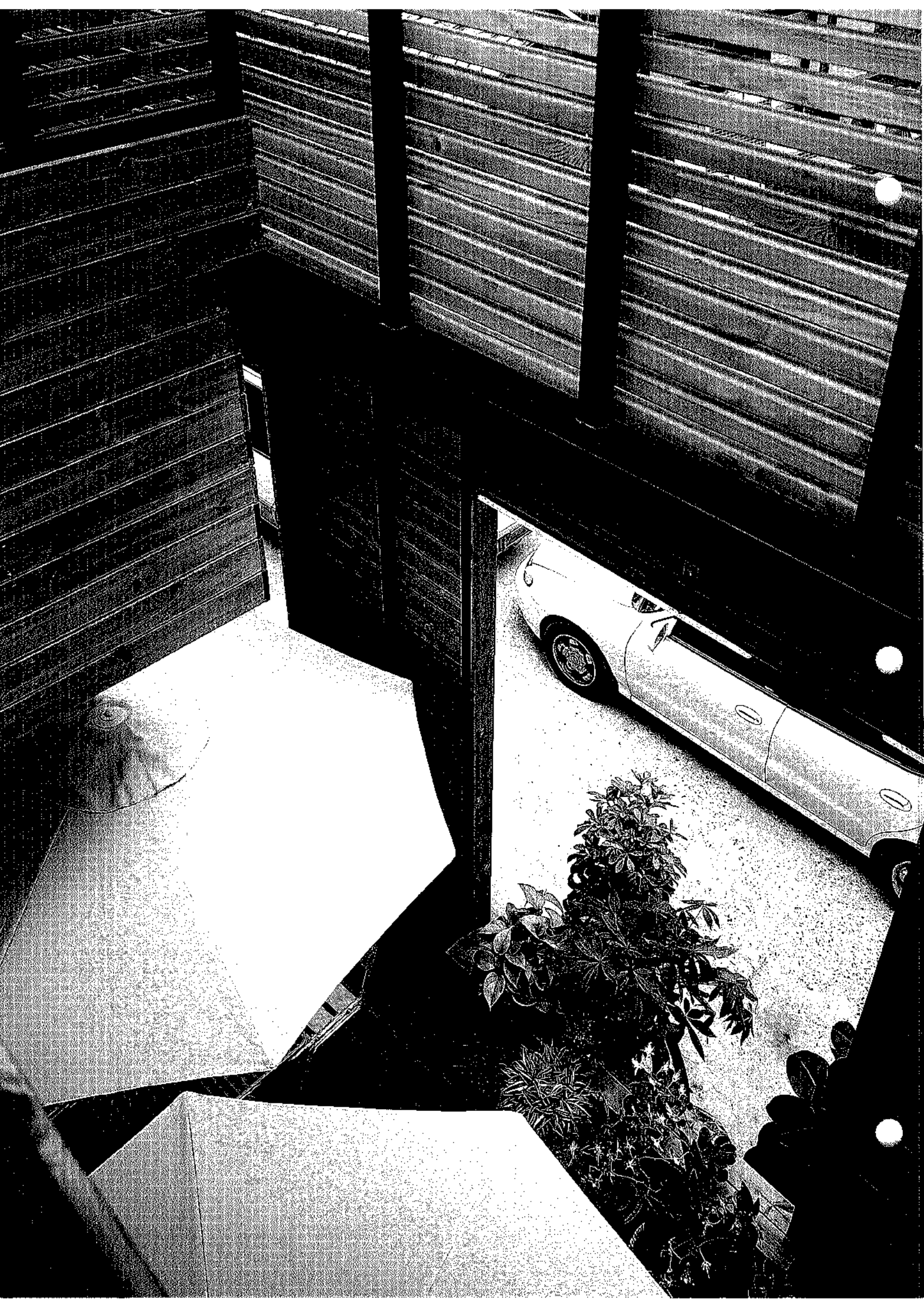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친 외벽(붉은 벽돌, 화강석)을 그대로 실려 옛것의 여유와 풍요를 현대적 공간에 투영시키도록 하였으며, 천정과 벽은 먼 처리 후 한지 도배로 마감하여 단순함과 더불어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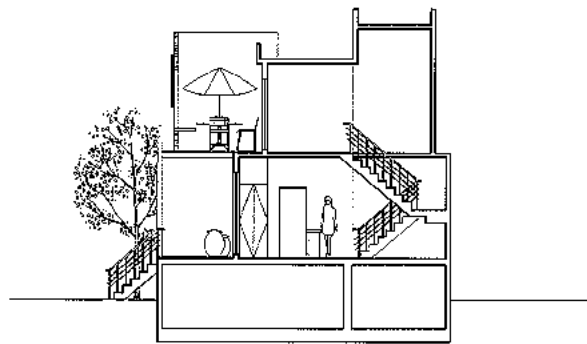
공사가 시작될 때 실내외의 마감재를 다 헐어내고 그 건물의 거친 속살을 바라본 후 "정말 이 건물이 온전한 건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커다란 걱정 속에서 시작된 이 건물이 완공된 후 개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도시 건축 속에서 또 다른 해법 중의 작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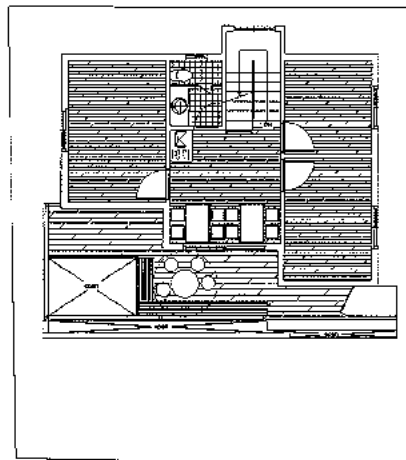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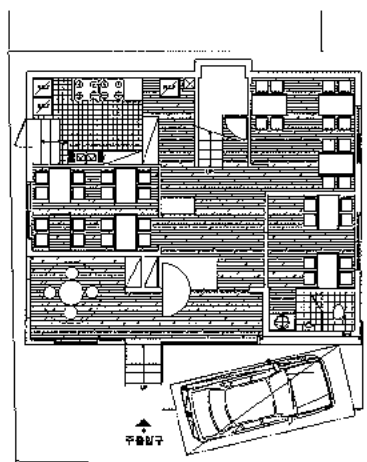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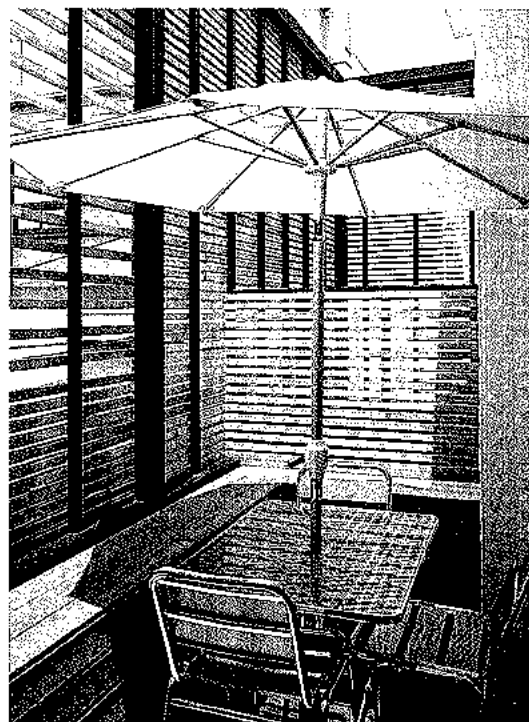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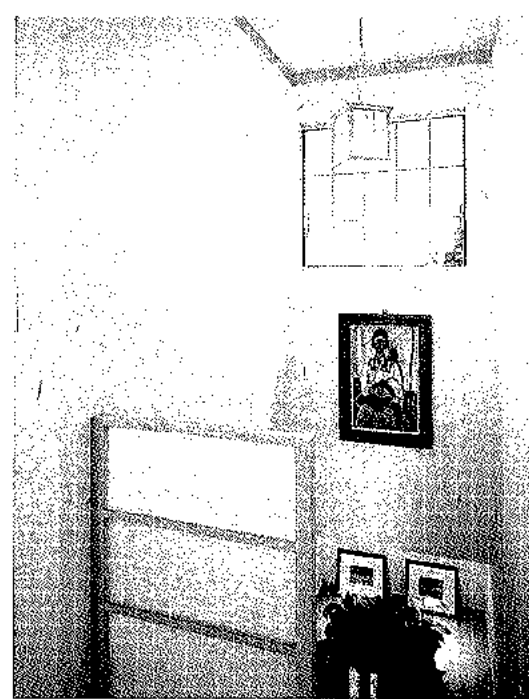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평창동주택

Pyeong Chang-dong Residence

정구은 / (주)삼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g Goo-Eun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602.00㎡
건축면적	179.00㎡
연 면 적	371.48㎡
건 폐 율	29.73%
용 적 륜	47.85%
규 모	지하층, 지상 2층
주차대수	2대
외부마감	미드랜드 수입벽돌, 천연슬레이트, 화강석 바산다움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실크벽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계획부지는 평창동 주택단지 초입의 경사가 급한 야산을 개발업자가 이미 택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별로 옹벽 공사를 마치고 주택 신축을 기다리고 있는 고저차가 심한 필지였다.

주변고도로 매우 경사가 심하여 차량진입조차 까다로운 진입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입부와 조성택지와의 11m정도의 고저차가 있어 진입부와 택지를 옹벽으로 구획하고 있는 부지 조건이었다.

또한 택지 내에는 남측과 서측으로 암반과 깎은 마사토가 절토된 채 경사를 이루고 있어 택지변형이 불가한 원형보존지로 포함된 대지였다.

주택을 계획하면서 처음 대지와 만났을 때, 이미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계획의 실마리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계획의 초점이 되었다.

처음 이 계획대지를 접했을 때 진입부와 부지를 가로막고 있는 8m 정도의 옹벽에서, 영주에 있는 우리 전통사찰인 부석사의 인양루를 떠올리며 필로티를 통한 누하진입을 생각해 보았다.

그와 같은 컨셉을 풀어가기 위하여 진입부에서 차고 위에 필로티를 두고, 소정원을 만들어 고저차를 완충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완충공간에서 잠시 쉬며 시선을 머물다가 계단을 통하여 마당에 올라 남측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연보전상태가 양호한 암반과 수목들이 이 집의 정원으로 들어온다.

이와 같은 수법은 마치 인양루를 통하여 부석사에 오른 뒤 돌아보면 태백산맥의 준령이 운무 속에 첩첩이 펼쳐진 장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을 이 주택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주택의 특징은 자연상태로의 원형보존지를 주택의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와 대지의 고저차를 필로티로 풀어 완충공간을 형성시키며 마치 누하진입처럼 진입부에서부터 필로티를 올려다보며 진입하는 진입부의 처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공간계획에서는 거실을 중심으로 식당 주방을 축으로 안방쪽과 서재쪽을 두 개의 wings로 하여 배치하였으며, 길어지는 거실 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식당에서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소정원을 계획하였으나 안방쪽 wings를 마당의 암반 때문에 후퇴시키는 바람에 소정원이 축소되어 채광창의 역할만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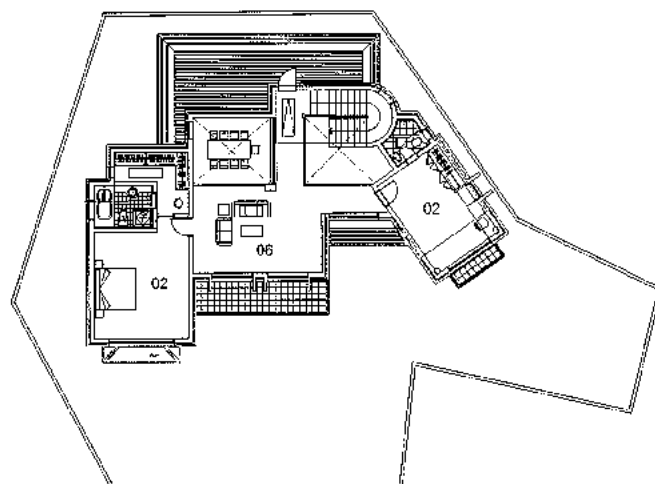


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부 공간에서 1층과 2층의 보이드(Void) 공간을 적절히 두어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능한 긴 동선의 유도를 통하여 시선의 전개를 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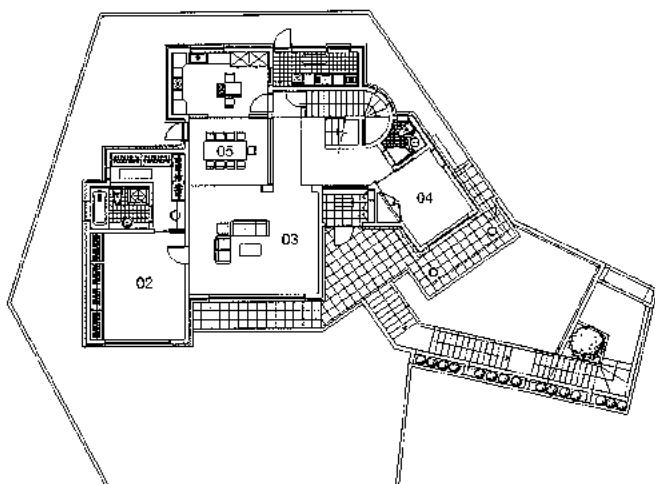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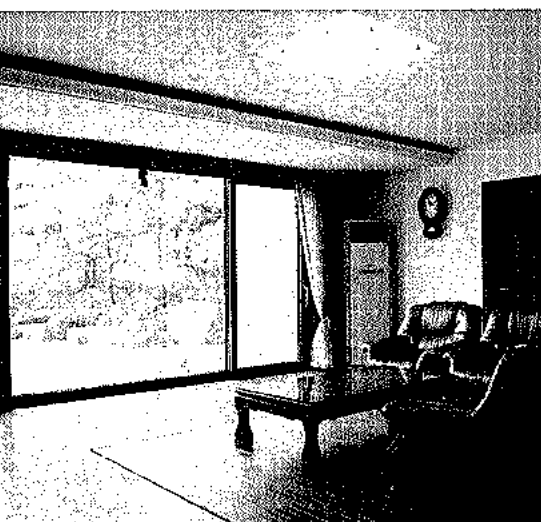
외부 디자인은 현대적인 것, 모던한 것, 고전적인 것 3가지 컨셉트를 건축주에게 보여주었으나 건축주는 고전적인 컨셉트를 택하였다. 건축가가 자기 취향인 건축 컨셉트를 건축주에게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주택은 건축주의 생활의 보금자리인 것이기 때문이다. (글/정구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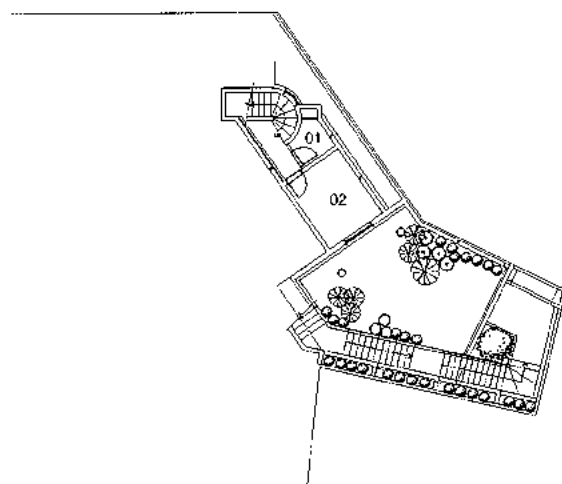
정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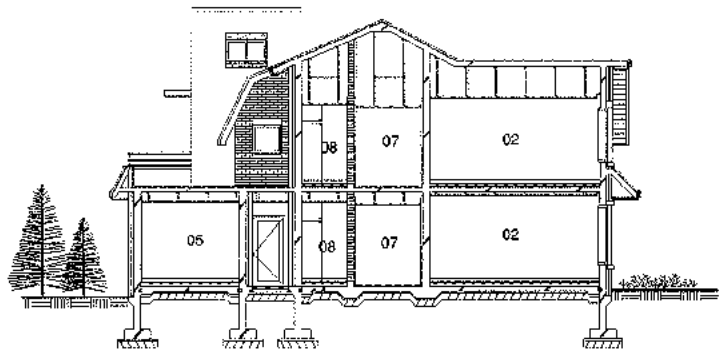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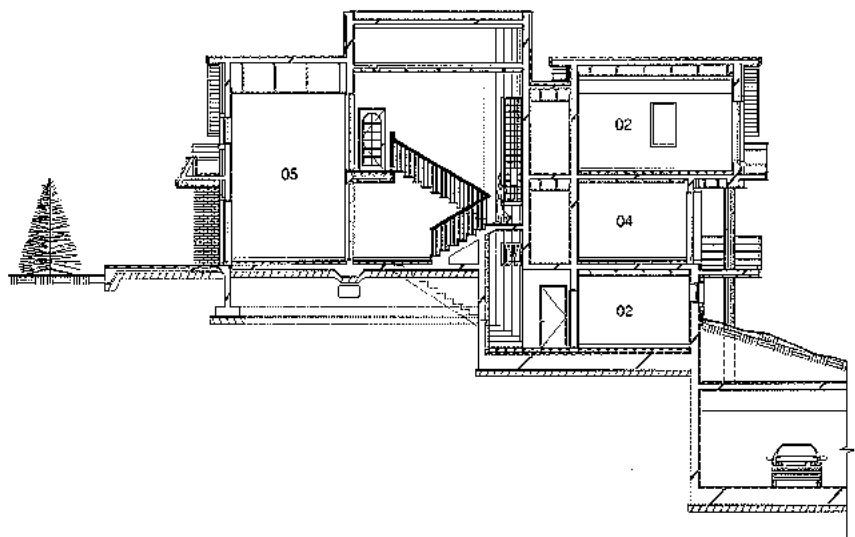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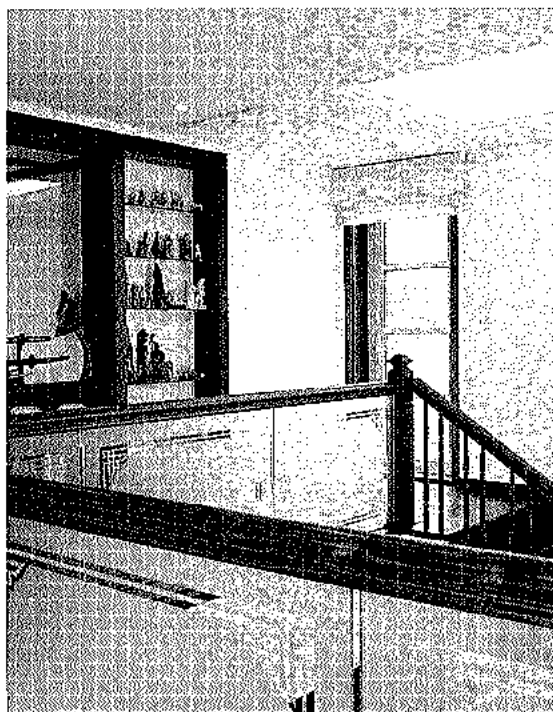
- 01_ 보일러실
- 02_ 방
- 03_ 거실
- 04_ 서재
- 05_ 식당
- 06_ 가족실
- 07_ 욕실
- 08_ 드레스룸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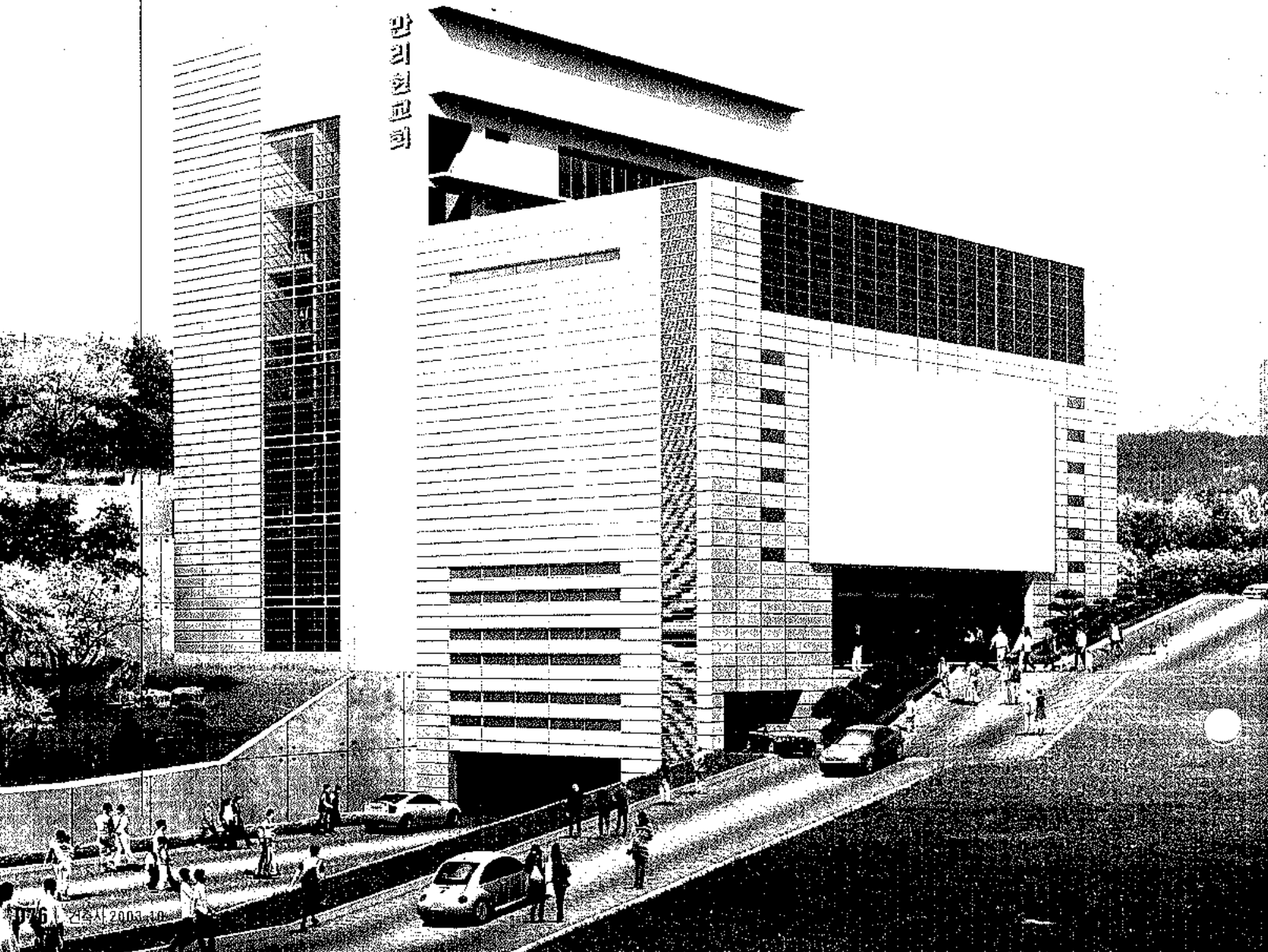
이 시대 도심의 성전건축 An Urban Sanctuary of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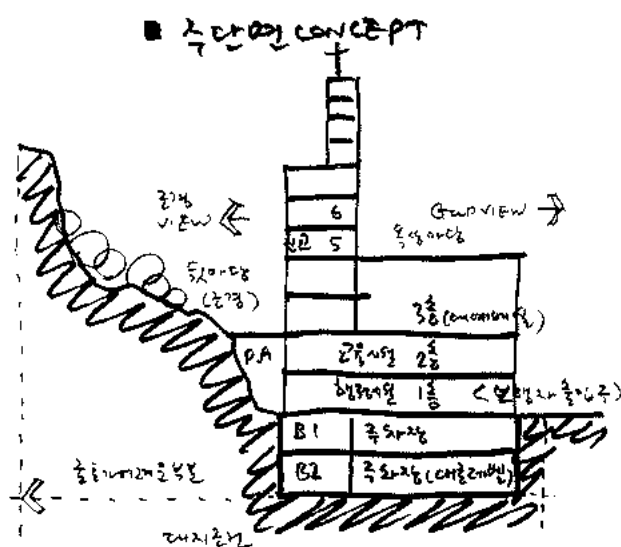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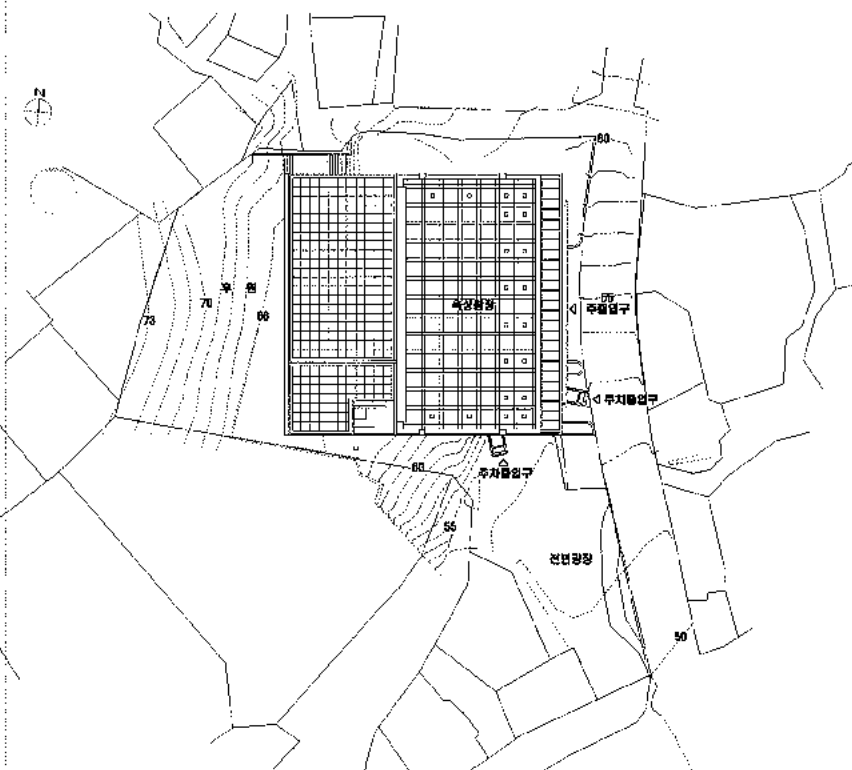
만리현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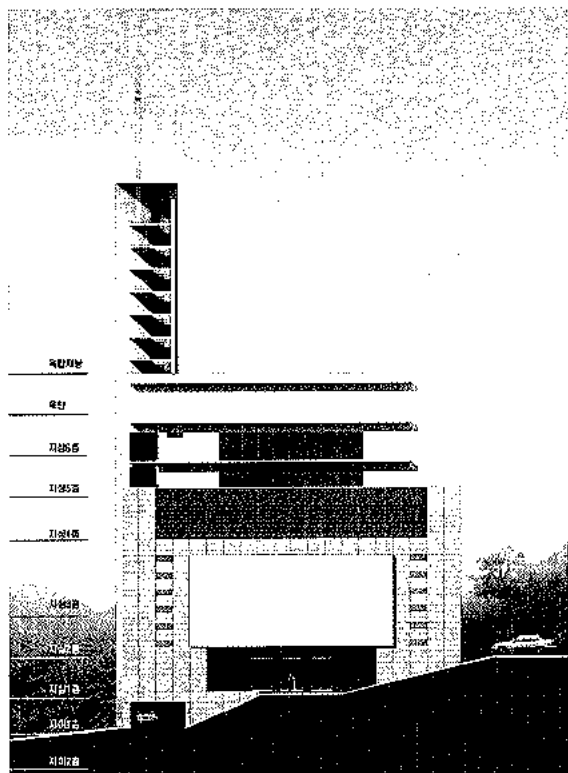
최영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J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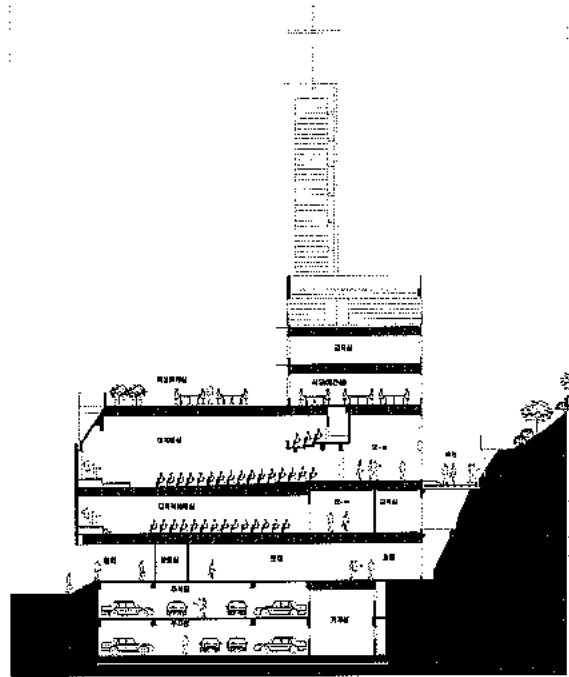
만리현교회







우측면도



단면도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살아왔다. IMF 후 모든 질서는 무너져 버렸다. 가뜰이나 설계·감리풍토가 열악한 상황에서 건축주(자본가와 그 대행자)의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으며 경쟁은 말할 수 없이 치열해지니 그나마 지켜지던 체면, 의리는 종적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서로 밟고 죽이는 살벌한 경쟁과 뒤통수 때리는 적당주의가 득약처럼 우리 건축설계분야에 뿌리 깊게 퍼져버렸다. 일은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은 공부해서 면허는 따지만 일처리능력이 없고 보고 배운 것이 없으니 잘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 줄을 모른다. 수주하기 힘들고 처리하기 힘드니 편법과 요령만 늘고 비겁하게 협회 회원등록도 안한 채 적당히 장삿술만 익히고 있다. 그나마 진작하지 않고 이민가지 않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 해외자본과 고급인력들이 밀려들어오면 국내건축사는 설계기능공에 허가처리업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야 한단 말인가.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30년 설계해서 작품도 남기고 이름도 얻었으면 무얼 하겠나.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조직을 키우지 못했으면 이렇게 건축사를 하직해야 하는가. 건축사가 언제부터 돈 많은 사업가였고 유능한 칼잡이들을 거느린 조직의 보스여야 했는가. 전문가이고 스승인 줄만 알았는데 그 시대는 이렇게 저물어가야 하는가. 국가면허를 만들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들답게 관리하고 키워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개발드라이브시대도 아닌데 1년에 20,000명씩 4년제 2년제 건축과 학생들

을 쏟아내고 검증되지 않은 건축사들을 마구 배출해낸다. 알아서 적자생존하라 하면 살사람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이 온갖 수단으로 살아난다.

현상이라는 이름의 마약

「건개연」운동 중 하나가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 설계경기풍토의 개선이다. 지명설계경기일 경우에는 지명참가자들에게 적어도 제작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고 일반 공모일 경우는 최소한 참가비와 함께 입선작 이상에게만이라도 제작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건축주가 좋은 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 당선이라는 유혹으로 병든는지 모르고 먹어야 하는 마약이 된다면 건축사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가. 건축이라는 고도의 전문직은 도박이 아니다. 계획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 복권을 맞추듯이 해보고 되지 않았다고 버린다면 얼마나 국력의 낭비인가. 오래 그래왔으니까 설계경기 신문 광고가 나고 혹시 지명경기라도 되면 죽는지도 모르고 또 달려든다. 경기지침들이 있으면 무얼 하겠는가. 3억 원짜리 설계일에 30작품이 달려든다면 6억 ~ 9억의 노력이 연기로 사라진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나 밤을 새워 바쁘고 재정은 엉망이라 허덕허덕하면서 작품을 남긴다는 미명으로 달려드는 놀음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설계경기도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참가자들에게 당



현황사진

연히 계획설계를 주어야 한다. 참가하는 사람들도 그 노력으로 대가를 받아 살 수 있어야 한다. 왜 온갖 아이디어를 온갖 포장으로 온 정성을 다해 무료로 상납해야 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건축사들이 마음먹고 부당한 설계경기를 거부하면 고쳐질텐데 자유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안 된다. 부를 축적한 사무실은 그만한 손실을 기회비용으로 돌리겠지만 그러기에는 건축사세계의 전체적 손실이 너무 크다. 치명적이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채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노력한 지적 재산과 제작실비는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 왜 수익자를 위해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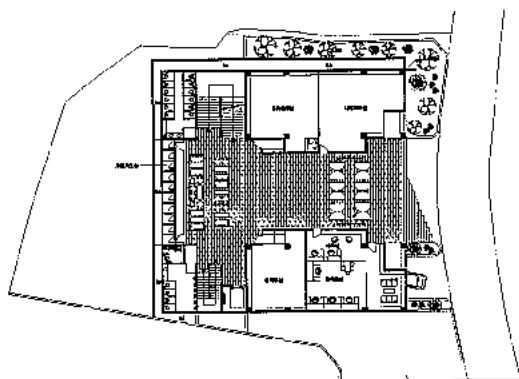
교회설계경기

언제부터인가 건축주들이 발주자로서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고압적으로 건축사를 다루며 설계업자 취급을 하게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전에는 그래도 순수하게 설계를 위촉하며 같이 고민하고 대안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아름답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소위 교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크건 작건 설계경기에 부친다. 주로 지명을 하거나 일반신청을 받아 몇 사무실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조건도 서로서로 점점 다듬으면서 건축주위주의 조항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민간설계경기부터 풍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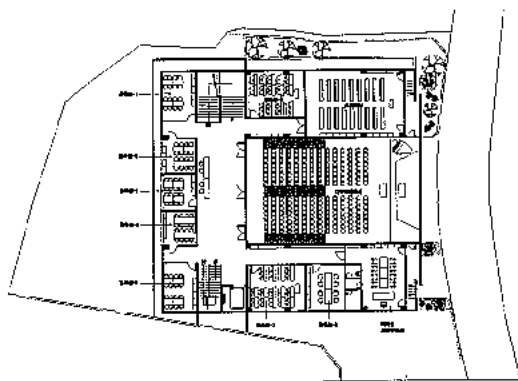
개선해야 한다고 하며 우선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달라고 설득해 보지만 교회도 능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인지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일반인 건축사들의 고통과 손해는 알 바 없다고 눈 하나 깜짝 안한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사랑이요 구원이요 구제요 실천이요 하며 공허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만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부터 건축사를 업자 취급하지 말고 전문참모로 존중해 줄 줄 알며 자기 교회를 위해 머리를 싸주고 노력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깊이 배려하며 대가를 보상해주는 풍토를 만들어 준다면 진정한 선교이고 전도의 길이 아닐까. 교만한 목회자와 무례한 장사꾼 장로들이 만들어 내는 썩은 냄새들이 교회를 자꾸 병들게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건개연」이름으로 설계경기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보지만 겸허하게 경청하며 의견을 수용하거나 존중해주는 교회를 보기가 어렵다. 경쟁이 싫으면 안하면 되겠지.

만리현교회

만리현, 서울역 뒤 만리동고개 지금은 마포로 넘어가며 아파트단지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도 해방 후 고단한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서울의 구도심이다. 1911년 창립하였으니 90주년이 넘었는데 발전의 뒤편길에서 아직도 50년대 60년대 교회의 모습으로 지역을 지키는 순수한 지역교회요 가족교회이다. 10년 전부터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소개받을 수 있어 여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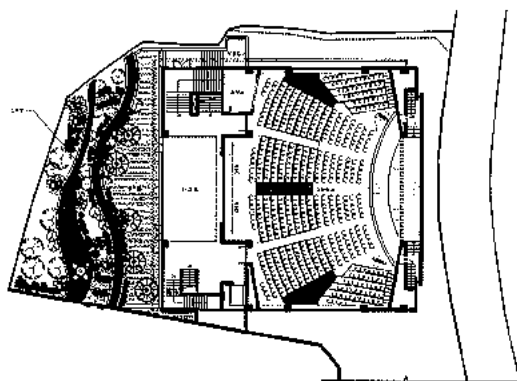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러 가지 계획안도 만들고 조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교회다. 창립 90주년을 넘기고 지역도 재개발되기 시작하는 기운에 힘입어 새 건축위원장을 모시고 성전건축을 결의하게 되는데 차분히 협의하면서 정식으로 깔끔하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우선 건축위원장은 교인들로부터 설계자들을 추천받으면서 설계경기에 부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하며 경기조건을 협의해왔다.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지명설계경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최소한 참가사례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너무 많이 지명하지 않도록 하고 출품성과물을 되도록 간단히 하도록 조안을 했다.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성격들이었기에 하나씩 하나씩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설계경기를 진행하였고 최종 3작품 중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판단으로 「탐」의 작품이 당선되기에 이른다. 참가사례비를 5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만한 작은 교회에서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반듯한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몇 단계의 자체심사와 심사과정을 통해 검증받은 작품인지라 설계에 애착도 가고 또 서울역 뒤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설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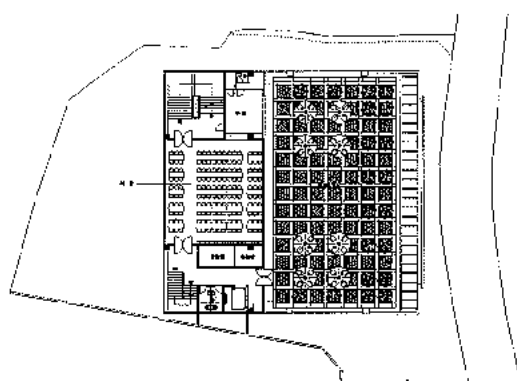
처음 보는 최악의 대지조건

서울시내에서 집을 지으려는 땅이 이런 경우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계 30년 만에 처음 보는 최악의 대지조건이었다. 만리동고개를 넘어가는 대로와는 6M정도 접해있고 속으로 들어오면서 넓어지는 형상인데 도로변과 제일 높은 부분의 고저

차가 자그마치 20M나 되는 심상치 않은 부지였다. 그 높은 부분 위에는 또 축대가 높이 있고 그 위에 연립주택들이 있는 기가 막힌 땅인데다가 또 암반지반이라 굴토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공사 시 민원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악조건이다. 교회 측에서나 설계경기 참가자들이나 모두 어려운 설계임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더욱 우수한 아이디어가 살아있어야 하는 중요한 설계경기였다. 지명자 중 몇은 설계를 포기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3작품만 접수되었다. 응모작은 모두 훌륭하였는데 대지조건을 해석하는데 있어 「탐」의 안 만큼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타 작품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겠고 「탐」의 작품의 특성은 작더라도 도로변 앞마당을 최대한 살려놓고 뒷마당(절벽부분)을 멋있는 조경공간으로 활용하여 대예배실의 홀과 연계시켜 도심교회에서 볼 수 없는 최대의 매력적인 외부공간으로 조성한 점이였다. 교회 외관은 도심에 맞게 박스형으로 단순화시키되 세련된 미래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내부기능이 명쾌하여 활용성이 높고 융통성이 많게 계획하였다. 수차례 건축위원회에서 응모작들을 심의 검토하고 전교인 앞에서 또 설명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당선작통보를 받았다. 의사인 건축위원장은 매우 합리적인 분이셨고 오랫동안 교회 역사와 함께하신 다른 장로님들도 열성을 가지고 교회응모작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하셨다. 건축을 전공한 간사집사는 건축적으로 장단점을 잘 분석 설명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설계경기에 적극적으로 봉사하였다. 목사님 이하 성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새 성전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협의를 거쳐 설계는 보완되며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설계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시공되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건축은 그 설계로 인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 어찌 설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싸구려로 적당히 해 넘기는 요식행위가 될 수 있겠는가. 건축주는 이러한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가자들은 이러한 경기를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며 서로서로 건축의 인식과 경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의 주안점

설계는 건축사가 하지만 그 건축의 주인은 건축주이다. 건축주의 안목을 탓하지 말고 건축주의 안목을 높여주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역할까지 어쩔 수 없이 건축사가 감당하여야 한다. 판단의 최종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지만 너무 쉽게 설계 넘어가는 것은 건축사 책임이다.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제점을 거론하며 최적의 해법과 결과를 모색하는 진지한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책임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도 만리현교회는 계획을 다듬고 협의하고 설명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 과정을 건축주나 건축사나 모두 공부라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보다 현명한 결론을 낼 수 있고 후회 없는 건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일은 그 밖에도 많다. 구조, 설비, 재료, 음향..... 그러나 그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축계획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축은 건축주의 것이고 그 건축을 바르게 가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참모이자 브레인인 건축사

임을 잊지 말자.

남은 문제들

사례를 통해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과 설계라는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았다. 건축사라는 직업인의 아픔과 설계풍토도 토론했다. 만리현교회는 그래도 신사도를 갖춘 건축위원장과 반듯한 교회지도자들을 덕분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참가비를 받을 수 있었고(당선작 제외) 설계비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무례한 과정 없이 심사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요즈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설계경기때 부터 설계비견적을 제출하라 한다. 설계경기에 부치려면 설계조건과 함께 설계비를 밝히라고 요구해 보지만 별로 먹히지를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값싼 설계비로 건축주의 실속만 처리겠다는 속셈이 다분히 보이는데 선진 한국에서 제발 이러한 것들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자신의 조건을 밝히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풍토가 아쉽다. 어려운 설계지만 만리현교회는 바른 정신이 있기에 난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고 준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사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바른 풍토를 조성하는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조금 손해 본다고 손해가 아니다. 더 큰 열매를 얻는 길이다.

전문가들이여 건축사들이여 전문가 위기시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圓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

Citizen-Friendly Architecture

이순희 / 안산1대학 건축설계과 교수

by Lee Soon-Hee

9월 17일 개막한 경기시민건축대학에 한 강좌를 맡게 되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경기도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서울시민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남 순천에서 까지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과 나눈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다소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소리를 공유하고 싶어 몇 자 적어본다.

시민건축대학에는 목사, 조각가, 작가, 기자, 백화점 관리인, 제조업체 사장, 아파트 관리소장, 어린이집 원장, 부동산업 종사자, 주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다. 건축은 모든 이에게 관심거리이며,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직접 접하고 살아가는 문화이다. 하지만, 라면을 끓여먹듯이, 양품점에서 기성복을 사서 입듯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건축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참여자 중에서 한 주부는 건축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퇴근하여 돌아온 남편이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건축적으로 아내와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적극 추천해 주었다고 했다. "접수해주면서 남편이 저에게 주문하기를 열심히 배우고 주시포가 뭔지 다포가 뭔지도 꼭 물어서 알아오라고 했어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늑한 생각되어진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밀접한 것이면서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련된 어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퓨전 음식점이다, 패션쇼다 해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건축은 어디 그러한가? 우선 우리가 만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축의 이미지는 매우 딱딱하고 전문가의 일로만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순수한 우리의 전통건축에 사용되어온 부재나 관련된 간단한 어휘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건축을 전공하고 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좀 더 가까이 생각하고 제대로 안다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설계비를 터무니없이 깎자고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스케치한 계획도면을 단순한 서비스 차원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치하고라도 언제 누구라도 건축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끈임 없는 교육과 건축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는가?

한편, 이번 시민건축대학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1년 혹은 2년 후에, 내 집을 직접 지어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다 보니 스스로가 답답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여러 각도에서 전문가들이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시작하였으나 멀리는 순천에서부터 서울시민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기회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일반시민이 건축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함께 느껴보는 시민대학'이란 주제 아래 약 1개월 동안 1주에 2강좌씩 총 8강좌로 계획되었다. 그 중에 건축사들이 5강좌를 맡았고, 교수가 3강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강좌의 내용은 주제에 걸맞도록 쉽게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갔다. 소개하자면, '산나는 건축이야기', '건축은 이렇게', '주거건축의 발달', '아파트의 현주소', '생활건축', '풍수와 건축', '수원화성의 보전과 회복', '건축여행'이란 테마로 비교적 가볍게 기획하였다.

예상한대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생활 속에 어우러지는 건축적 상황들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주택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좋은 건축가 선정, 설계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

또한, 건축가협회 경기지회에서는 시민대학 종강하는 날에 맞추어 건축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직접 보여주고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설명 듣던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공간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건축에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다면, 대중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건축의 언어, 생활 속에서 꼭 담고 싶어 하는 공간의 의미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건설회사에서 분양되어온 아파트가 마치 기성복과 같은 경우라면 기성복집이 아닌 맞춤복집으로, 이제는 주문자, 즉 살 사람의 개성에 맞추어 맞춤식의 건축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산업사회의 경

제논리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 건축문화의 후퇴를 가져왔으며, 획일적인 건축물로 인해 사용자의 개성과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맞는 공간의 창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거주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 중심의 건축공간을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 뿐 만 아니라 모두가 좀더 건축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건축수준의 눈높이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참여하는 건축으로 함께 할 때 보다 기능적이고 발전된 우리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경기도에 국한된 아쉬움은 있지만,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문화로서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큰 의의를 갖는다.

전에 읽었던 한 건축소설에 등장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설계학 교수께 굴뚝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네. 당시 나는 중정식으로 된 연립주택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지. 나는 그 지붕의 굴뚝에 특별한 시각적 기능을 주고 싶었네. 그 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야! 연기나게 그리면 돼."였네 배움의 기쁨에 흥분해 있던 내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지.' 굴뚝은 연기나게 그리면 된다는 소설 속 교수님의 대답이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속에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건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건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 여겨진다.

건축에 대한 감상은 다분히 개인적이다. 그것은 제각기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언어에 대한 이해도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다. 이 의미는 곧 기본적인 것을 말하며, 그 이상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물로 형성되어지는 도시는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건축가들의 꿈은 개인적인 것이기 보다는 대중을 위한 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

공간 클럽 - 05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 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능지도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격공간과 사적공간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위계
- c. 공간의 전이

7회

- a. 공간의 창조
- b. 기억나는 공간
- c. 쉬운 공간만들기
- d. 공간실험

8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9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10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1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세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2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a. 안티 중성의 공간 Anti-Neutral Space

어떠한 특성의 성격이 없는 중성의 공간에 대한 매력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쉽게는 특성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적응력을 갖게 되는 매력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세월에 대한 변화나 용도의 변환, 거주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수용가능한 무한의 적응성은 곧 영원성을 의미하며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함으로서, 중성공간은 그 이상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또한 중성 공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예술적 의지는 건축가의 오랜 꿈이기도 하다.

원초적인 중성의 공간은 아마도 우주공간일 것이다. 누구의 손때도 묻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며, 그 무한의 크기에서 오는 성격 없는 공간 그 자체이다. 그러나 우주공간은 분별되지 않는 무한 공간일 뿐, 인간에게 의미 있게 와 닿지는 않는다.

건축가에게 기능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는 성격 없는 공간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미스 반데로에의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균질한 구조체에 의해 공간은 무한확장의 개념으로 펼쳐지며, 공간을 구별 짓는 벽체는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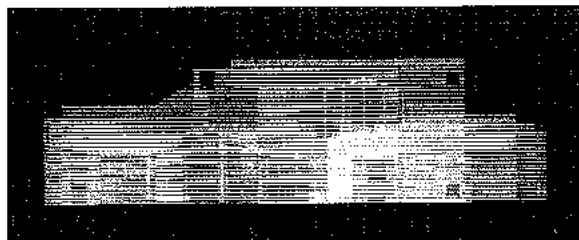


그림 1. 아이디 디크스터, 기지각 주택: 성격없이 선으로 그려진 주택의 모습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모토가 중성의 공간일 수는 있지만 이 공간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갖는다. 즉, 공간을 만드는 구조는 그것이 아무리 의미 없이 건물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간을 구조적 공간으로 성격화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벽식 구조가 공간을 '방'으로서 개념화한 이후, 기둥 구조가 상대적으로 공간의 성격을 해방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둥의 열은 공간을 그렇게 할당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독일에 있는 미스반데로에의 내셔널 갤러리는 내부공간에 기둥이 없고, 벽체가 없으며, 보이는 곳에는 화장실 등의 기능적 공간도 없다. 거대한 내부공간은 무한한 내부공

간으로서 성격이 주어지지 않은 중성의 공간처럼 보여진다. 그것은 또한 갤러리의 특성상 미술품의 성격에 맞춰 중성의 공간으로부터 미술품의 성격에 따른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아마도 이러한 희망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미술품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표출됨으로서 공간의 성격적 제약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조는 더 이상 커질 수 없었고, 방향에 따른 빛의 간섭은 공간의 위치별 특징을 구별 짓게 하고 말았다. 성격 없는 중성 공간의 이상적 상태가 어느 정도 획득되기는 하였지만 건축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은 완전한 이상으로서의 중성 공간의 획득을 불가능한 꿈처럼 보여지게 한다. 또한 아무리 이상적으로 성격없는 중성의 공간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성격이 없다는 성격을 내포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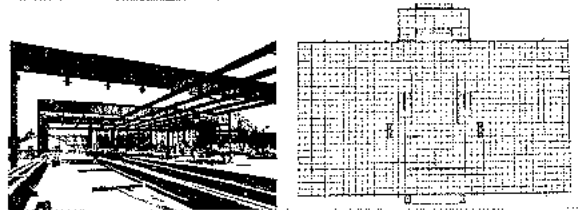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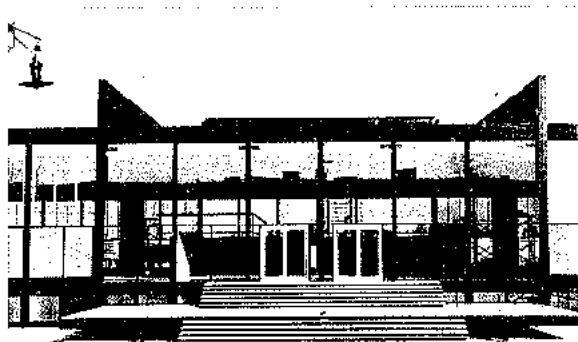


그림 2. 미스 반 데 로에, IIT 크라운 홀: 구조로 성격화되는 무한공간

중성의 공간은 오히려 안티 중성의 공간을 논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를 보면, 안도는 중성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의 건물은 빛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건물이 가져야 할 제약요소를 벗어나고, 개인의 욕망을 삭제하였으며, 건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에 의해서만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중성의 공간에 교회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빛이라는 성분을 넣은 것처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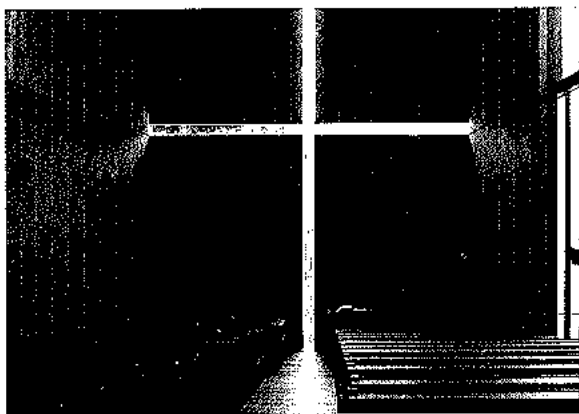


그림 3. 안도 다다오, 빛의 표피: 빛으로만 만들어지는 공간의 성격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 한다. 건물 또한 자유를 느끼게 하려한다. 건축에서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중성 공간을 통해 자유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건축이 자유를 갖는 또 다른 방법은 건축에서의 공간의 성격과 인간이 일체화되게 함으로서 또한 가능한 것이다. 중성의 공간은 없음으로서 모든 성격을 담도록 하지만 안티 중성의 공간은 성격을 부여함으로서 일체성(Identified)의 공간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성의 공간에 성격이 주입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자연이다. 햇빛은 일정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간은 방향이라는 성격을 최초로 갖는다. 오랜 건축물인 사각뿔의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는 방향을 표시하여 그 성격을 드러낸다. 햇빛의 강렬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며, 온도차이에 따른 공간의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한옥은 마루라는 여름공간과 온돌이라는 겨울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날씨는 공간의 성격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이다. 따사로운 햇빛과 음산한 구름끼 날씨는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느끼게 한다. 바람의 흐름은 공간을 구별 짓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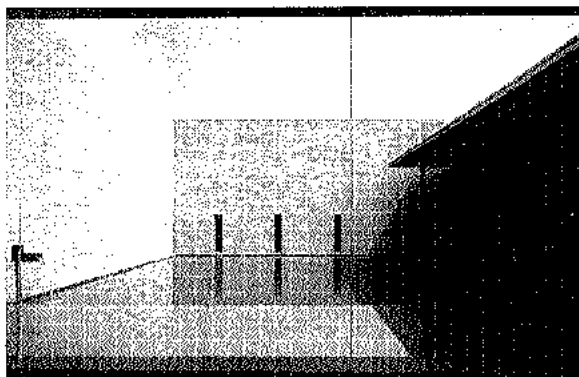


그림 4. 후이허고 마키, 7-체노오카 남쪽모: 하늘이 변화에 의해 공간이 성격이 주어진다.

연의 요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공간에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심히 공간을 바라보면 그 성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요소 외에 건축물의 공간성격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장소의 성격이다. 무한 절대공간의 중성 공간이 아닌 이상, 공간은 장소의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대지의 경사, 대지에서 보이는 전망, 대지내의 수목, 대지의 모양, 인간이 부여한 대지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 대지 주변의 상황 등등, 이들은 대지내의 공간에 성격을 부여한다. 경사에 따른 밑 공간과 윗 공간, 전망 좋은 곳과 막힌 곳, 나무의 푸르름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대지에 붙은 곳과 떨어진 곳, 뜻이 담긴 곳이나 사람이 변화를 주었던 곳, 주변의 냄새, 소음이 있는 곳, 그 외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등등... 모두 공간에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소로부터 오는 공간의 성격이 잘 활용될 때, 그 건축적 가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맨하탄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이형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그리드 체계에 대항하듯 어울리는 장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되며, 보스턴의 JFK 박물관은 바다쪽으로 향한 강한 매스가 장소에 어울린다고 하며,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피라미트 건물은 루브르 궁의 원형을 잘 유지하는 장소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장소는 공간의 성격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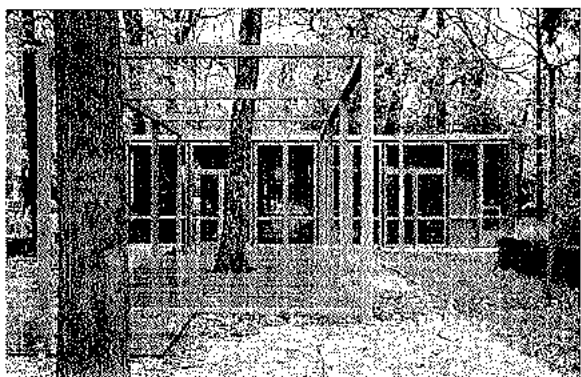


그림 5.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숲속의 다른 공간

이러한 요소에 의한 공간의 성격과는 달리 건축물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하게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의 용도이다. 주택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상점은 일반 대중의 접근이 쉬운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화장실은 대중적인 성격과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동시에 부여되는 공간이다. 관공서는 사회적인 업무가 처리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근래 관공서가 관의 사적인 공간처럼 여겨지는 현상은

잘못된 것이다. 미스 반데 로에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확장 실을 비롯한 모든 기능적 공간을 지하에 위치시킴으로서 주 공간을 중성 공간화하려 하였던 것은 건물의 기능이 갖는 공간 성격의 부여를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절대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는 학교에 맞는 건물의 모양이 있어 보이고, 사무소는 사무소의 성격에 맞는 공간의 모양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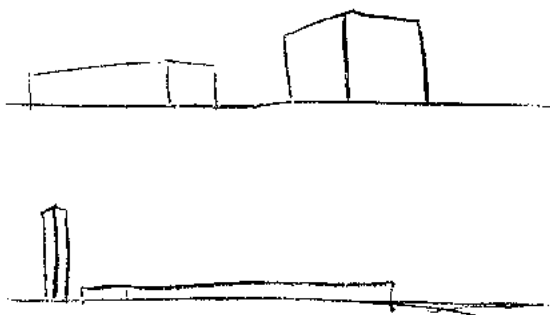


그림 6. 르 꼬르뷔제의 스케치: 매스와 전좌에 의해 자연스런 성격이 주어진다. *은 매스는 학교처럼 같아 보이며, 서있는 매스는 사무소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용도가 변화되며 공간의 성격이 변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지만 용도가 변하여도 공간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과거 일제시대에 지어져 총독부 건물로 사용되다가 정부청사의 기능을 담당한 후 중앙박물관으로 바뀌어, 건물에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성격을 회색시키고자 했으나 결국 허물어버려짐으로서 건물의 성격이 종료되어버린 사건이 있었다. 건물의 성격에 용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성격 부여의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인간은 건축공간에 성격을 부여해 왔으며, 또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청처럼 시대가 갖는 의미로 인하여 역사적 성격이 부여되거나 독립기념관처럼 한국고건축의 성격을 답습하는 방식에 의해 공간에 성격이 부여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부여도 성격형성의 이상적 방법일 것이다. 자유주의나 환경보호주의, 반권위주의, 여성주의, 역사성 등 등은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의 출현으로부터 성격화되어 건물에 주입될 수 있을 것이며, 건축의 또다른 장르를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의해 권위주의 건축의 특징들이 있듯이, 남성주의 건축이 있듯이, 건축에 미래를 중용하는 성질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연요소에 대한 인위적인 대응방식이 커지고 있으며, 익명적인 도시공간 속에서의 장소적 성격은 사라지고, 건물의 용도는 더 이상 성격창조의 근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가나 건축주의 의도에 의한 인위적인 방법의 공간에 대한 성격 주입은 현대건축에서 두드러

지게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과거의 건축가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바탕, 기술적 지지를 수용하며 자신의 주관에 배제하고, 주변 인자를 문제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답 찾기에 주력하는 입장이었으며, 공모전에서는 어느 건축가가 설계하더라도 가장 모범답안을 만드는 건축가가 승리하는 입장이었다. 모범답안은 수많은 대안 스테디를 통해 만들어지며, 치열한 공방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정선된 안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건축에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발생되고, 공통적 가치보다는 개별적 가치가 커지면서, 모범안 보다는 개성안이 나오고 있다. 건축가의 성격이 표출되는 건물이다. 나의 중요성이 커지며, 나를 찾는 자세를 중요시하고, 내가 중시하는 가치를 발견하려 한다. 그것이 공간에 투영되어 안티 중성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안티 중성의 공간을 통해 나나 우리, 또는 우리를 대신하는 그 무엇과의 동질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듯 보여진다.

b. 시간을 넣은 공간 Time in Space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항상 같은 공간은 시간속에서 다를 뿐이다. 내가 일하는 이 자리는 50 년 전 누군가가 행상을 하던 자리였는지도 모르며, 몇 백년 전에는 누군가 농사를 짓던 곳이였는지도 모른다.

몇년 전 20세기를 마감하며 타임캡슐 열풍이 불었다. 몇 백년 전 유구가 발견되듯, 타임캡슐 속에 현재 쓰고 있는 각종의 물건들을 집어넣어 먼 훗날 꺼내보겠다는 것이다. 시간 마케팅이라고나 할까? 시간은 지나고 가면 기화처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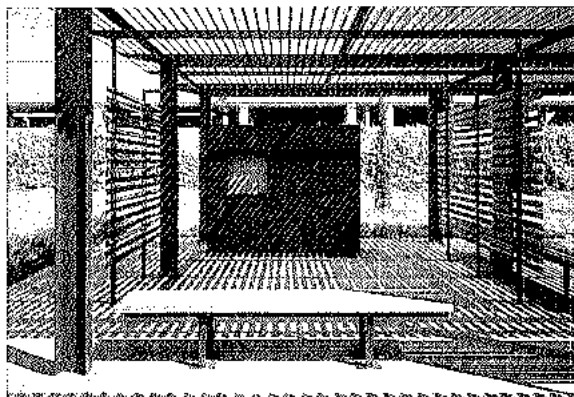


그림 7.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시간

이기도 하고, 너무 쉬운 해결책을 보여주기도 한다. 때를 잘 못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업적이 부각되기도 한다.

공간은 다룰 수 있어 제어가 가능하지만 인생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시간인 경우가 많다. 시간을 알리고, 느끼고, 시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을까? 중성 공간속에서의 무한성에 대한 이상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순간성으로 이상을 대신해낼 수는 없을까? 시간을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다음의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1. 공간에서 시간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그림자를 이용하거나 방위각을 연구한다.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의 변화는 곧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 여름과 겨울의 오후에 비추어지는 햇빛의 방향은 그 다른 시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시간을 느끼게 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이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공간을 스펀시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풍경을 만들도록 한다. 타워의 꼭대기에 24시간 또는 수시간마다 360° 한바퀴씩 도는 공간을 설치하여 각도의 이동으로서 시간 변화를 경험토록 하는 것이다.

2. 공간에서 순간을 느끼도록 하여 시간의 의미를 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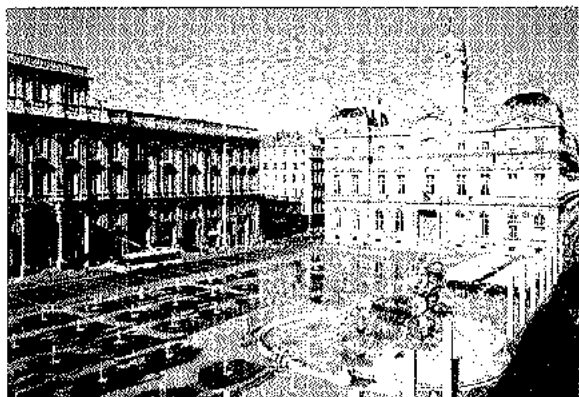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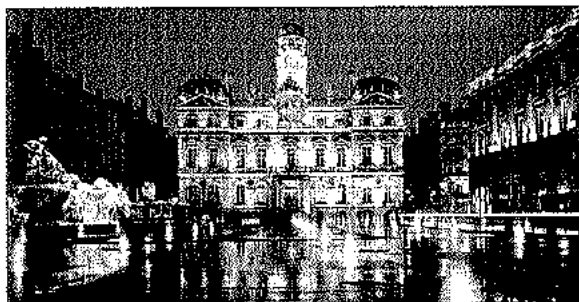


그림 8. 크리스찬 도레베, 테로(Terraux) 광장: 낮과 밤의 시간에 보여주는 광장의 다른 모습

일으킨다. 물 떨어지는 소리나 빛의 깜박임과 같은 순간적 사건이 공간과 관련지어질 수 있다면 하나의 시공간적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틸트로 떨어지는 빛은 한 순간을 암시하기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시간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인간에게 시간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는 순간, 오히려 시간을 느끼게 될 것이다. 피라밋 속의 적막한 공간이나 터널속의 공간이 그러하다.

4. 여유를 갖도록 한다. 일상에 젖은 사람은 시간을 느낄 틈이 없다.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 시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시계만이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차려진 밥상이 식사시간을 알려줄 수 있듯이 평상이나 정자와 같은 건축적 요소는 휴식의 시간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헝가리 헝가리 가문에 놓여있는 계단에서 시간대의 차이를 느낀다

지도하는 학생이 시간 박물관을 만들고자 한 적이 있다. 시간을 담는 박물관이다. 시간을 느끼고 시간을 즐기고,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곳이다. 시간을 공간처럼 다룰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공간속에 이입시키려 한 과제였다. 먼저 시작은 시간의 흐름이 있는 물흐름이었다. 건물내부에 물흐름을 두었고, 그와 연계하여 시간의 움직임처럼 길을 만들었으며, 그 길에는 빛의 변화와 풍경의 변화가 있게 하였다. 그 길은 뫼비우스 띠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공간의 크기는 다 다르게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도 다 다르게 하여 시간 변화에 공간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지나온 공간은 보이드를 통해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붕은 경사져 내부적으로는 벽과 천정의 구분이 없게 하여 연속에 대한 의미를 살렸으며, 외적으로는 빛의 그림자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다양한 축은 빛의 궤적과 관련짓도록 하였으며 지하공간은 어둠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림 10. 시간 박물관 외관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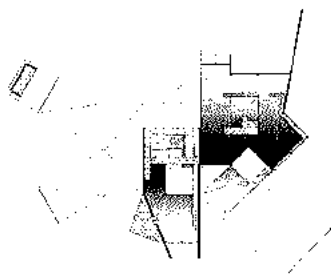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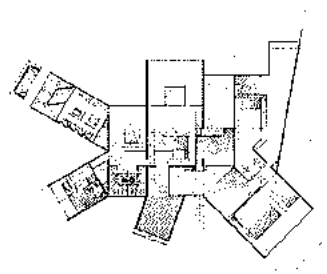


그림 11. 시간 박물관 평면도

공간에 시간을 넣는 일은 중성의 공간이 영원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의 일상을 건축에 부여하여 인간과 건축을 일체화하는 의미를 부분적으로 내포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시간에 대한 관심을 알려줌으로서 내가 이 순간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Public Space & Private Space

인간이 개인 생활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며 부딪치는 문제는 나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 사이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일 것이다. 가깝게는 가족간에 T.V. 채널권을 두고 내가 보고 싶은 방송과 다른 가족이 보고 싶어 하는 방송 프로그램간에 차이가 발생되고, 그로부터 요구의 상충과 중재의 프로세스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각자의 방이 주어져 있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식당에서는 타인과의

아 개인 영역을 줄여야하는 문제도 있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거실 내에 휴지를 마구 버릴 수도 없다. 이로부터 개인의 영역, 즉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즉 타인과의 공유영역 간의 조절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개인으로서는 각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최대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같이 사용해야하는 공적인 입장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하여 개인의 활동범주를 제약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다. 재산이 사유화되고 생활에서의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므로 사적(개인적) 공간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개인은 전체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므로 공적 공간에 의한 통제는 불가결하다. 즉, 항상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긴장과 조절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건물에 있어서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관계설정은 오랜 시간 동안 정련화 되어온 분야라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적 공간의 성격을 부여했던 경우는 1686년, 파리의 방돔광장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루이 14세는 광장의 모양을 정하고 그에 따라 광장을 형성하는 주변 가옥의 전면을 먼저 지어놓는 조치를 취하였다. 각 개인은 이미 만들어진 정면을 유지하면서 정면 뒤에 각 개인이 희망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공적으로 사용될 공간이 가져야할 어떤 성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적 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부분에 공적인 성격을 우선 확보한 경우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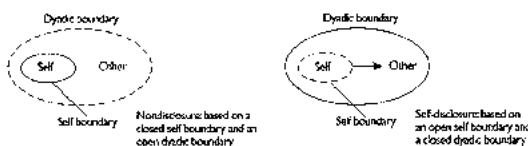


그림 12.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사이의 이중적 경계 다이어그램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적인 활동이 제약된다. 어렸이 있는 가운데 소파에 걸터 누워있기는 힘들다. 소파의 크기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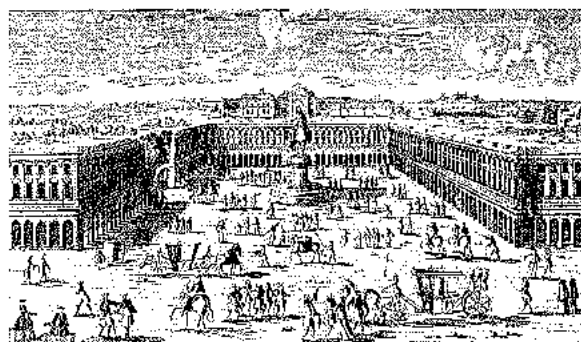


그림 13 루이 14세 광장, 1685년, 피에르 레블랑의 그림: 광장을 만든 두분만 건물의 정면이 먼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4. 방돔 광장의 현재 모습, 사진 - www.jfirst.hs.kr/

위와 같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켜내기 위하여 공적인 공간에 면하는 사적 공간이 지켜야할 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방돔광장과 같이 절대적이며 획일적인 구성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자율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물론 이때, 공적 공간의 성격 확보를 위한 규정의 많고 적음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건축심의회와 같은 방법이 이에 해당되지만 건물의 외장재료나 색상, 건물의 층수, 지붕의 모양, 창문의 크기, 지붕처마의 튀어나옴 등을 규정할 수도 있으며, 건물의 섹백, 1층의 용도, 건물 출입구의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법규에 의해 적용된다고 보다는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규정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공적 공간의 역할이 사유재산에 많이 제약하게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공적 공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공감대나 동의가 없을 때, 특별히 공적 공간을 고려하여 사적 공간을 제약해야할 당위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각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회의 공통적 목적과 사회적 삶의 양식은 그 독자적 형태를 소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개인은 개인의 영역 밖으로 외출해야하며, 공용의 영역은 그 나름의 공간적 성격을 갖고 싶어 한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사이의 관계설정에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오스트리아의 근대 건축가인 아돌프 로스는 도시 주택에서 도로에 면한 쪽과 정원을 향한 쪽의 건물입면을 매우 다르게 처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도로쪽으로는 매우 작은 창을 두어 밖에 대한 차단의 의미를 주었으며, 정원쪽으로는 큰 창을 두어 사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도시주거의 확충을 위해 일산, 분당 등의 신도시가 계획되었을 때, 단지내에 시범주택단지를 설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두 신도시의 시범주택단지를 보면, 일산은 매우 개성적인 단독주택들이 재미있는 동화마을을 만들 듯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분당은 3-4층의 정방형에 가까운 뚱뚱한 매스의 다세대 주거형 주택단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시범주택단지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자체의 단지규정에서 일산은 택지별로 1가구를 설치해야하며, 지붕 모양의 1/3 이상이 평지붕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지켰던 반면, 분당에서는 3가구의 설치가 가능하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분당에서는 개인적 권한을 많이 주었던 결과 경제적 효과를 위해 대지를 꼭 메우는 주택형을 만들었고, 결국은 단지의 맛을 위한 공공적 특성은 제외되고 말았던 것이다. 대지내에서 담장을 대지 안쪽으로 넣어 정원의 일부를 공적인 공간으로 할애한 경우는 매우 자비롭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다. 공공공지를 두어 사적 공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상호 긍정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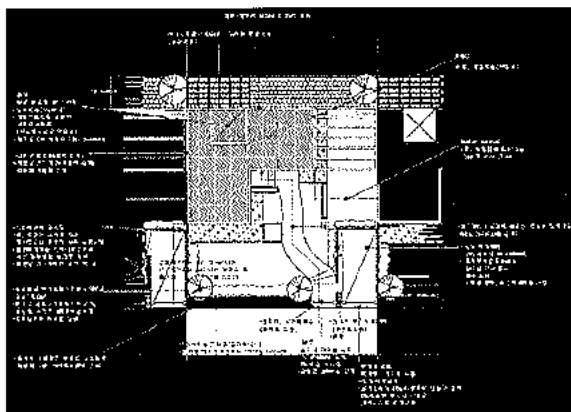


그림 15. 규약, 사적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주택의 공공규약의 예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의 대응은 경계를 두고 이루어지는 서로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 다양한 해석에 따라서는 매우 재미있는 건축적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인간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圖

건축계소식 / 92

현상설계 / 96

해외잡지동향 / 111

건축계소식 archi-net

2003건축사자격시험 실시

지난 9월 21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지난 9월 21일(일)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2003 건축사자격시험이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6,269명이 출원하고 5,177명이 응시하여 82.6%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83.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합격예정자는 오는 11월 20일 건 교 부 (www.moct.go.kr)와 우리 협회 (www.k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학 · 경력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몽고건축사협회 대표단 방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몽고건축사협회 부회장(Batbayar Tseveenravdan)외 8인의 몽고대표단이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우리 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95년에 상호교류 협정을 맺고 격년으로 초청, 방문하여 서로의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함

에 따라 우리협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몽고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중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을 견학하였으며, 양국 건축사단체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갔다.



경기대, 2004학년도 건축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11월 25일까지 접수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석사과정(건축설계전공)과 박사과정(건축디자인전공, 건축역사/이론/비평전공)으로 모집인원은 각각 50명과 6명이다. 특별전형은 11월 18일(화)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하고 11월 20일(목)에 시험을 치르며, 일반전형은 11월 25일(화)까지 원서교부와 접수를 하고 11월 27일(목)에 시험을 치른다.
문의: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02-390-5245) <http://gsak.ac.kr>

헤이리 건축박물관 도시건축전시『센스 시티즈 전』

오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헤이리 건축박물관에서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센스 시티즈(Sense cities)』를 주제로 개관전을 연다. 따스한 인간애를 발견하는 도시 건축의 현실 속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는 신개념의 도시 건축 제언,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전시와 출판으로 건강한 도시 건축문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전시기획은 우경국(예공건축)씨가 했으며, 코디네이터는 전인호(아들리에 데스빠스)씨가 맡았다. 참여작가는 김선아, 박준호, 성우철, 안우성, 윤희진, 임지택 씨이다.

문의: 02-730-8834

heyrimoa.byus.net

마인드 익스체인지 2003- 한중 실내건축 작품 교류전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중국 칭화대 환경예술과와 「마인드 익스체인지 2003」이라는 주제로 작품 교류전을 갖는다.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교류전은 지난 1월 두 학과가 맺은 협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전시의 첫 번째다. 두 학교는 앞으로 전시 뿐 아니라 다양한 워크샵, 공동강의, 교수교환, 학생교류 등 학과간의 실제적이고 광범위한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전시작품들은 11월중 칭화대학교 전시관에서도 전시할 예정이며 학과 교수들의 방문 특강도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두 학과간의 공동 워크샵 및 작품 교류전 뿐 아니라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와의 제10회 건축전을 겸하고 있으며, 실내건축학과만의 브랜드를 가진 디자인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아트샵과 경원대 실내건축학과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실내건축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선보인다. 이런 다양한 기획과 전시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실내건축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경원대 이정옥 교수

011-282-5376,

학생 홍보대표 윤두한

016-292-9205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국제건축설계공모 기념 출품작 전시회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건립을 위한 UIA 국제 건축설계공모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념하여 국제공모 출품작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토탈미술관(서울 평창동소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그리다 라는 독특한 전시 명칭을 내걸고 1등 당선작인 「The Matrix」를 비롯한 1차 선정작 77점을 전시하고 있다. 현대 미술관의 건축경향을 대변하면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인 국제공모 출품작들을 선별하여 마련하는 이번 전시회는 미술관 건축의 세계적인 경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조류를 수용하는 미술관 건축의 집적된 연구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031-231-8531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2003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의 두 번째 전시가 ‘스타디자이너(Star Designer)’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스타급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물론, 그들의 디자인 철학과 이를 반영한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볼 수 있으며, 신예 디자이너들의 신선한 발상을 경험할 수 있다. 해외작품으로는 정열과 감성의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스페인 디자인의 바르셀로나 ‘OBJ’ 그룹과 모던함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줄 스웨덴 스톡홀름의 아키텔라고(Archipelago)의 디자인이 전시된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이스라엘 현대 디자인 작품들도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초청됐다. 예술의 전당 야외 광장에는 30여 개의 젊은 디자인 업체들을 선보일 ‘클로즈 아트마켓(Cloz Artmark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문화장터가 들어선다. 이는 10월 24일 열리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과 더불어 10월 중 매주 주말에 열리게 된다. 그 밖의 디자이너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두가지 세미나가 마련되었다. 그 중 이탈리아 최고의 디자인 교육 대학원인 도무스 아카데미는 ‘숍 디자인 비전’을 주제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에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전시기간 중 서울 시내 각지에서

열릴 '디자이너스 플래닛(Designers Planet, www.designersplanet.net)'은 70여 명의 현직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외부의 상업적 조건에 맞추어져 타성에 젖어 가는 디자인계의 현실에 색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이 행사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인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의 주요 상업공간에서 열린다.

문의: 서울 디자인페스티벌 사무국
02-2262-5537
www.designfestival.co.kr

제11회 MBC건축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11회 MBC건축박람회가 2004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유행할 주택의 신경향을 제시하고 인테리어 및 가구와 조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참가업체에게는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전시는 건축자재전, 가구·인테리어전, 건축리노베이션, 조명산업전, 조경산업전, 건축공구전, DIY산업전, 전원주택전 및 패션산업전으로 펼쳐진다.

문의: 동아전람 02-780-0366

2003 한국주거학회 추계예술 발표대회

한국주거학회에서는 오는 11월 8일 연세대학교에서 「공존과 공생의 주거환경」을 주제로 학술 발표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권오열 과장(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제강연을 하고, '풍요로운 일상 생활 공간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박철수 교수(서울시립대)와 '환경과 생활의 조화를 지향하는 주거 공간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김수암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를 한다.

문의: 한국주거학회(02-362-0453)

제1회 명동서재상 수상자 발표

비평부문/정인하, 언론부문/조경재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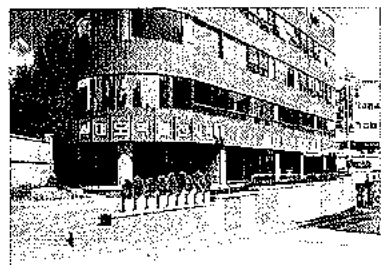
건축비평가들과 건축 언론인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건축 저널리즘을 활성화시키고자 해마다 건축 비평과 건축 언론 두 부문으로 나눠 한국 건축 발전에 애쓴 이들을 격려하게 될 명동서재상의 1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추천된 작품은 총 20편으로 그 중 심사결격사유를 안고 있는 6편을 제외한 14편(비평부문 6편, 언론부문 8편)을 최종심사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9월 27일 이강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섭(김영섭 건축문화연구소 대표), 박기원(월간 이상건축 편집장) 세가 심사를 맡아 진행한 결과 건축비평부문은 정

인하(한양대 교수) - 김수근, 김종업, 이희태, 김종성 4인의 건축론 4권(시공문화사 발행), 건축언론부문은 조경재(전 월간 이상건축 기자) - '우리시대 광장만들기, 이상건축 0208호'가 선정됐다. 지난 10월 10일 간향건축사옥 내 뜰마당(사무국 옥상)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됐다.

문의: 02-325-1659(간향건축),
02-3142-1996(사무국)

대도벽돌, 상설전시장 오픈

강남 신사동 서울사무소빌딩 1층에



대도벽돌이 지난 9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서울사무소빌딩 1층에 국내 벽돌관련 자재전시장으로는 가장 큰 150여평 규모의 상설 벽돌전시장을 열었다. 전시장에는 각종 점토벽돌과 다기능 바닥벽돌, DHB연결보강재, 동시줄눈 경용 조적물탈 풀리물 및 크리너 등 다양한 벽돌관련 상품과 각종 건강관련 제품이 적용된 전시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A/V시설,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벽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시장내에 라테일바를 무료로 운영하는 등 방문객이 전시장에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축설계 및 건설업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대도산업(주) 02-543-0092

www.brick.co.kr

제26회 한국건축가협회상 후보작 모집

한국건축가협회에서 1979년에 제정한 한국건축가협회상(Best7)을 매 해당연도에 완성된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여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도 제26회 한국건축가협회상」 후보작 작품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 사이에 건축이 목적하는 바의 기능이 완성된 건축 작품이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문의: 02-744-8050

http://www.kia.or.kr

LG전자,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수상

에어컨, 냉장고 2개 부문에서 대상 수상

LG전자의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인 멀티브이와 초절전 리니어 기술을 적용한 리니어 디오스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관하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대상에 공동으로 선정됐다.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는 기존 중앙공조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별공조 시스템으로 개인별 온도 조절이 자유롭고 3세대 압축기인 인버터 압축기를 채용, 중앙공조 대비 최고 50%의 전기로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리니어 디오스는 지난 8월말 세계 최초로 리니어 컴프레서를 적용한 양문형 냉장고를 출시, 기존 냉장고 대비 최고 약 30%정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와 소비전력량이 많은 대용량 냉장고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은 최고 30마력까지 낼 수 있는 대용량 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모아 대형 빌딩 건설물이 일고 있는 유럽, 중국 등지에서 수출상담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위너상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소비 확산을 위해 1997년 제정,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신기술을 높이 평가받는 제품에 수여하는 것으로 수상 제품은 시민단체와 정부로부터 그 해 가장 우수한 고효율 기술을 가진 제품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86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64-5828) · 금천구건축사회/(6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30-6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등각구건축사회/(815-3026) · 기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8100) · 성동구건축사회/(26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9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용문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8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3~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98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93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9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평창지역건축사회/(033)743-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8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35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9788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8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C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6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3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8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834-68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6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서울시 건축사회 청년건축사회원 건축연수기행

- ▶ 일시: 2003. 11. 7(금) 11:00~8(토) 21:00
- ▶ 대상: 입회 5년차 이하의 회원
- ▶ 인원: 선착순 50명
- ▶ 참가비: 10,000원
- ▶ 장소: 경북안동, 예천지방
- ▶ 문의: 서울시건축사회(581-5715~8)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제주대학교병원 / 96

안양박달문화정보센터 / 102

백남준 미술관 / 104

제주대학교병원

Ch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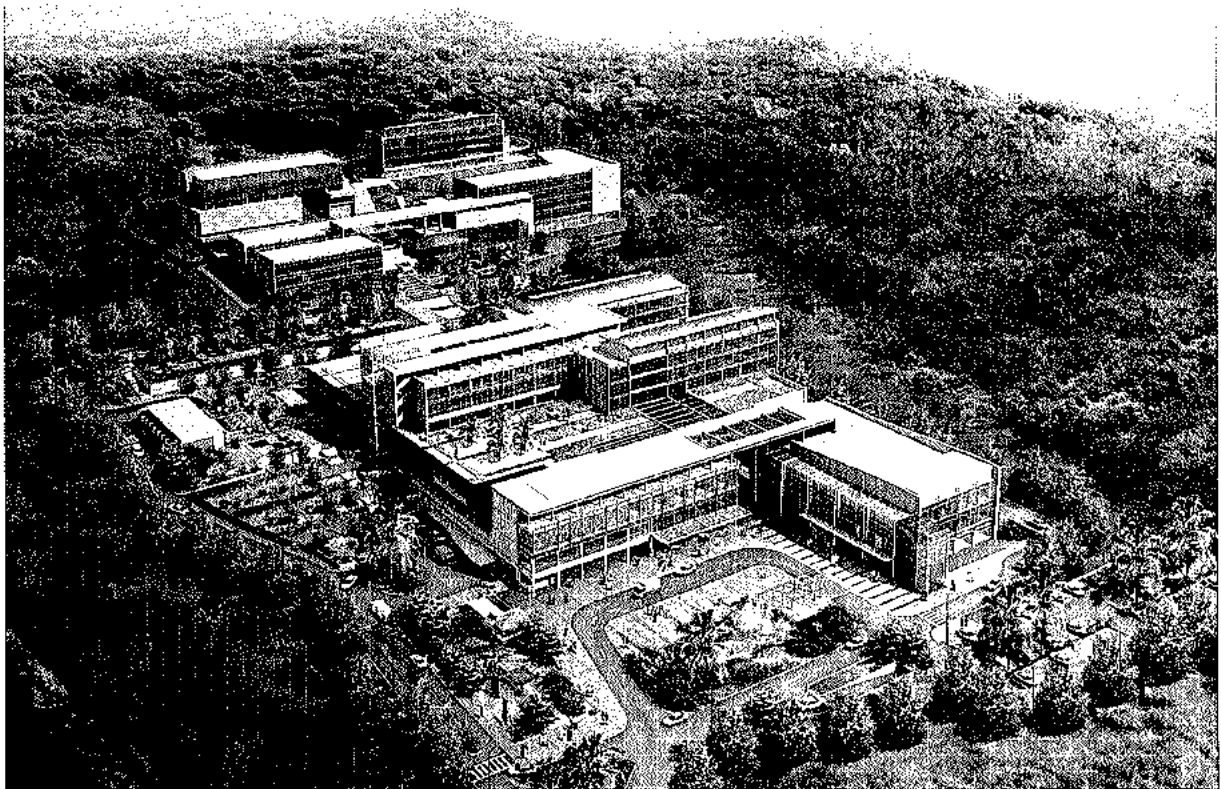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한종률·이혜원) + 양택훈
건축사사무소(양택훈)

제주대학교는 제주도내의 최초 3차 진료기
관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
공을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 건립을 위한 현
상설계를 실시하여 지난 7월 22일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양택훈건축사사무소안
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정립건축 + 간심건축 + 김영식건
축 인이, 가작으로 현신건축의 인이 각각 선
정됐다.

대지위치 제주시 아라1동 1753-3번지 일대
지역지구 생산녹지/보전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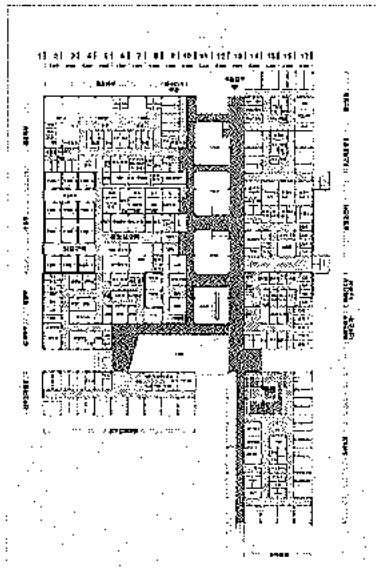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대지면적	141,579㎡(42,827평)
건축면적	14,933.79㎡(4,157.47평)
연면적	69,174.78㎡(20,925.37평)
건폐율	10.55%(법정 20%)
용적률	24.85%(법정 100%)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HK 24 복층유리 / 알루미늄 북 합패널 / 제주자연석
내부마감	화강석/대리석/수성 아크릴페인트
구조설계	삼우구조
설비	선진설비
전기	삼우전기
조경	ID(이드)
토목	새길엔지니어링
설계팀	박순희, 이용술, 류연철, 김성남, 한준일, 김치현, 임성보, 이동훈, 김상원, 한태권, 노준철

계획대지는 5.16 제주순환도로에 인접한
부지로서 제주 도심으로부터 4KM 지점에
위치 해 있다. 남측으로 멀리 한라산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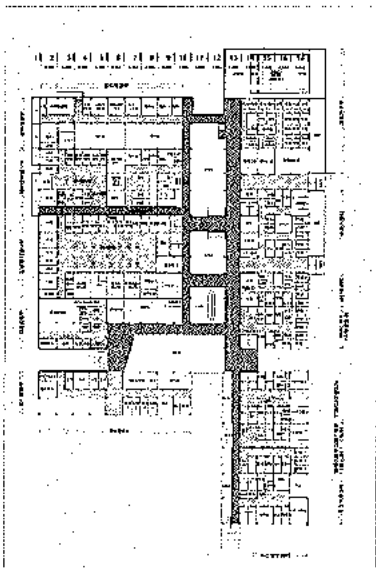


고 북측으로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완만한 경사지형이고 현재 농원인 이곳은 높은 크기의 수목이 주변 경관을 에워싸고 있다. 남,북으로 개방된 대지형태는 차후 병원이 건축됐을 때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천연의 요소를 갖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의 완공이후 접근체계가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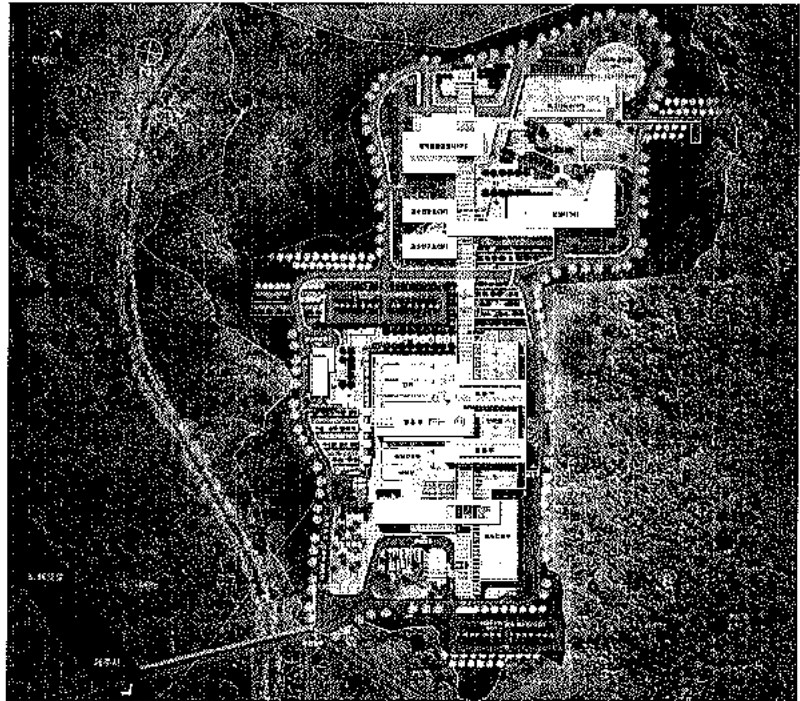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병원은 제주도내의 최초 3차 진료기관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를 건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00병상 규모로써 급회에는 500병상, 추후 100병상 증축으로 계획하였고 추후 2단계 개발부지에 권역별 응급센터, 암센터, 연구소, 기숙사 등이 건축되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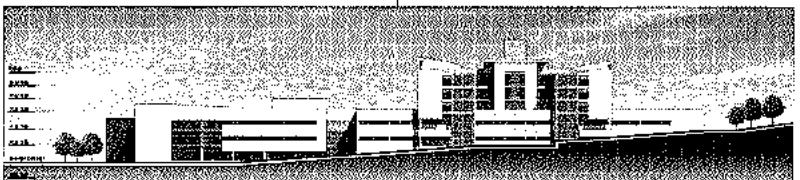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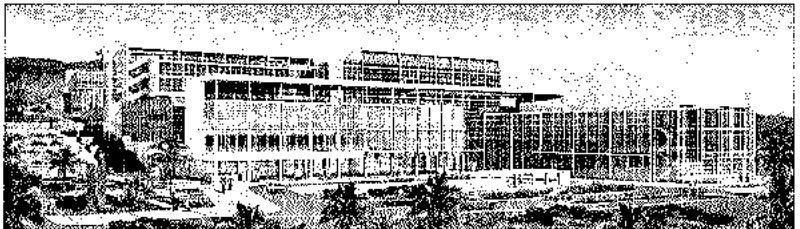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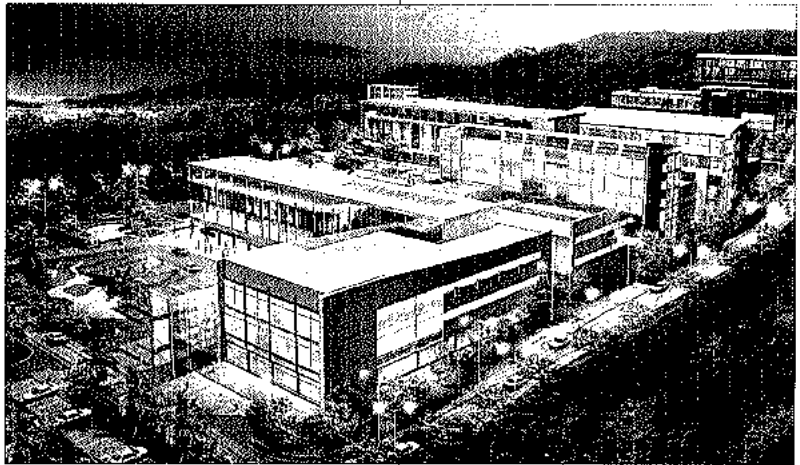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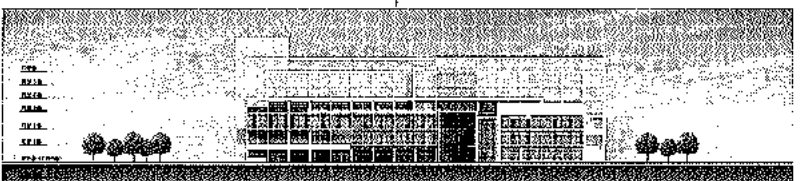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부지도



우측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김정식) + (주)간삼종합
건축사사무소(이광만) + 김영식
건축사사무소(김영식)**

대지위치	제주지아라1동 1753-3번지 일대
건축면적	12,256.17㎡
연면적	69,485.45㎡
병상수	539병상(장래 600병상 증설예정)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용도	의료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차대수	630대
설계팀	책임: 임진우 정림건축: 박원배 실장, 정관택 팀장, 조대근 팀장, 이상석 팀장 간삼건축: 김전행 소장, 강동균 사원, 조인영 사원

삼나무가 무성한 제주도 외곽의 보전지역 수림 속에 들어설 제주대학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이다. 대지의 지형은 남북지형의 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멀리 해안선과 한라산이 바라보이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의 울창한 수림과 녹음이라는 자연적 여건은 병원이라는 치유기능의 시설과 접목되어 친환경적 계획의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숲속의 병원' 개념은 휴식과 안식의 치유공간을 제공하며 Natural Healing 과 Resort Hospital의 성격을 가지는 병원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이 갖는 제주의 선과 '올레'라는 제주민가의 길, 부드러운 지붕선을 형상화하여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조화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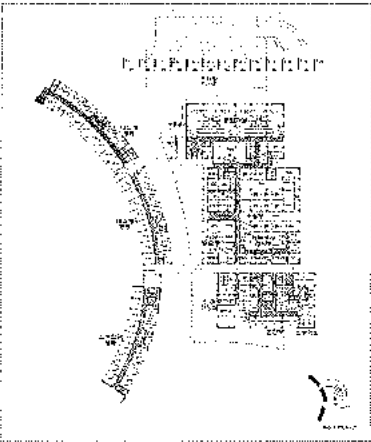
대지조건을 활용하는 시설배치에 있어서는 경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시설의 개방성을 중시하였으며 병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대보전지역에 인접배

치하고 독립적 외부공간을 마련하여 환자 중심의 환경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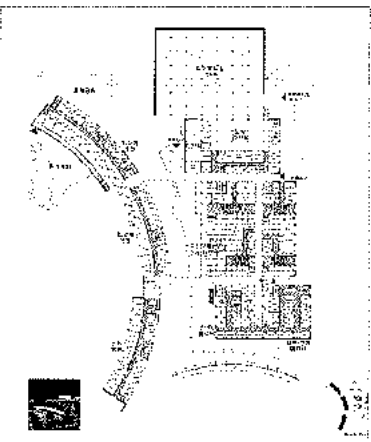
병원의 기능에 있어서는 병동과 진료동이 분리된 저층형 병원으로 명확한 조닝을 통하여 적절한 기능적 분리를 하고 있고 Hospital Street를 통한 동선의 중심축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가지고 인접기능간 수평, 수직간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향후의 성장을 대비하여서는 병동의 증설을 대비하고 있으며 권역별 응급센터와 암센터, 기숙사와 의학연구동의 교육시설의 기능별 영역분리와 융통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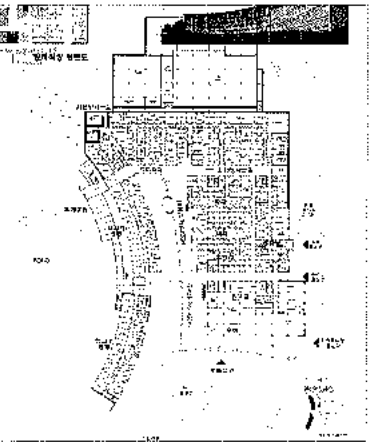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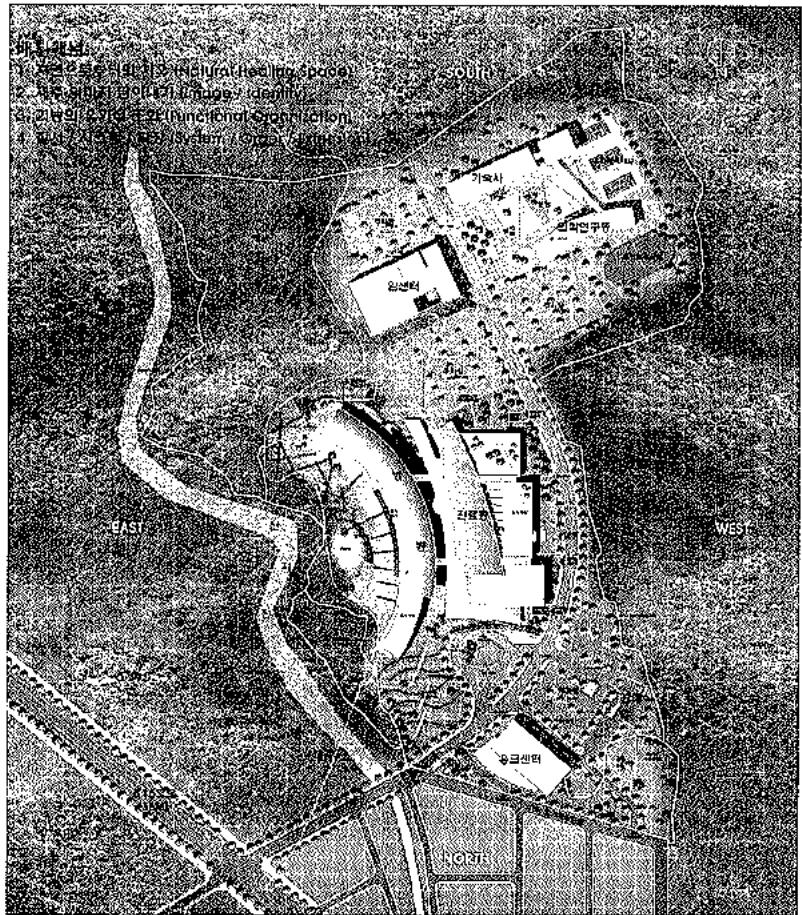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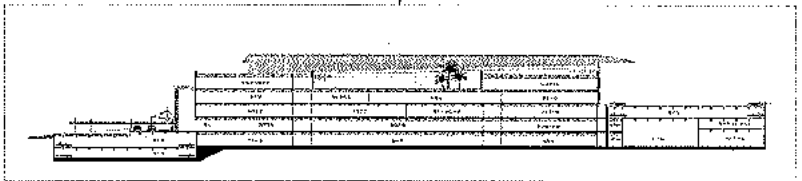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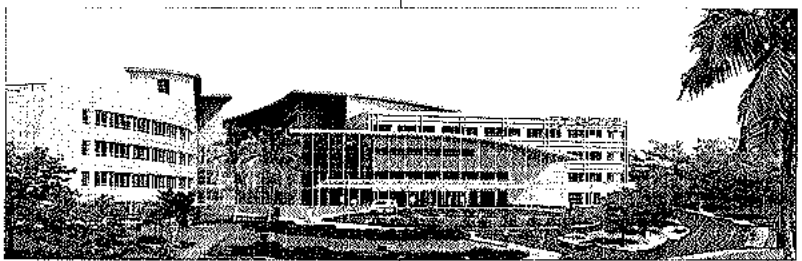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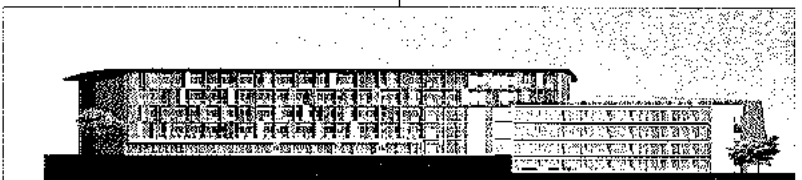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종단면도



병동 입면도



절면도

▶ 가작 / (주)무영건축+(주)현신
건축+(주)POS·A.C

대지위치	제주지아라1동 1753-3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대지면적	56,669.00㎡
건축면적	11,186.46㎡
연면적	59,427.53㎡
건폐율	19.74%
용적률	71.2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598대(법정 : 594대) (직원용 예비주차 300대 별도)

- 자연친화적인 의료 환경

- 적극적인 자연환경요소 도입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연친화적 시스템 도입

• 환자 및 방문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 지역성과 미래의 변화에 유연한 병원
- 성장과 확장이 쉬운 병원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병원
- 제주도의 상징성 구현
- 지역 공공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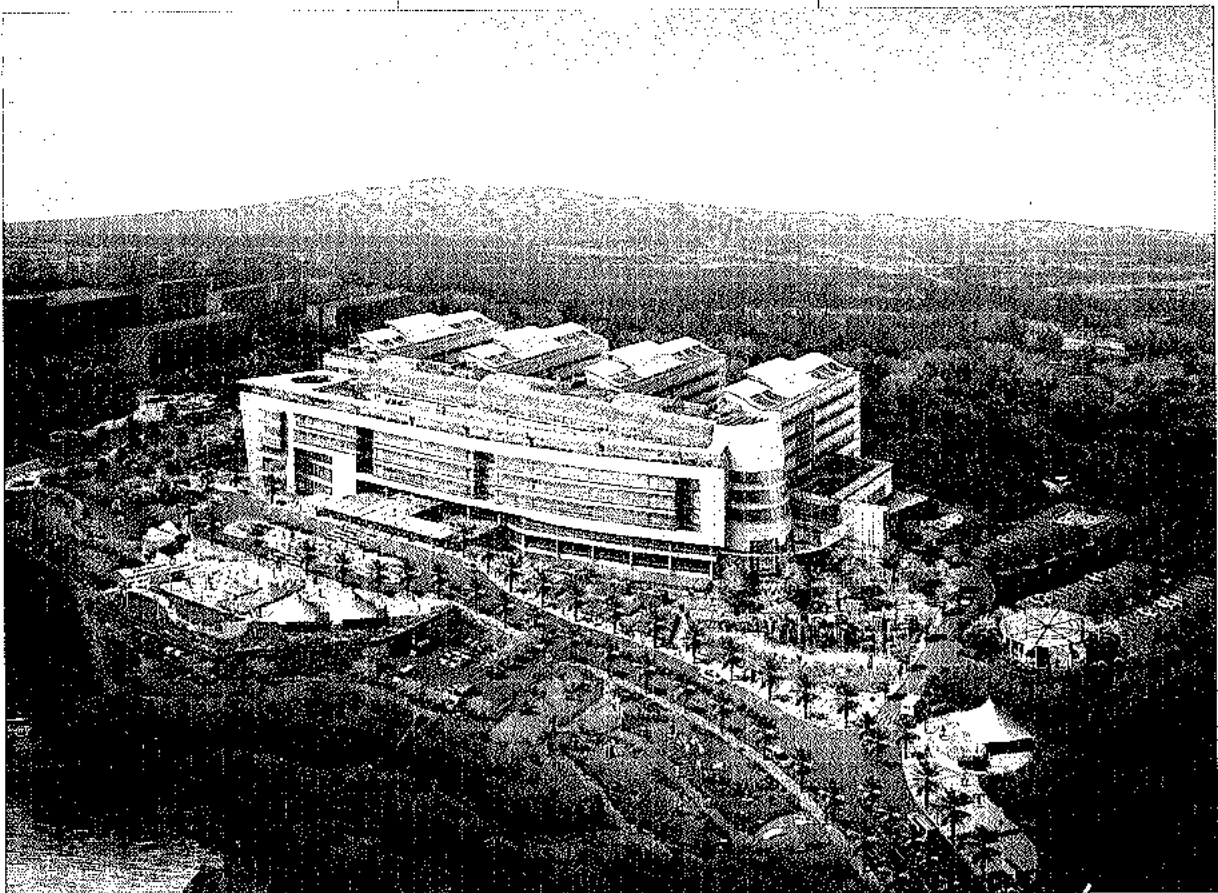
- 새로운 제주대학병원 이미지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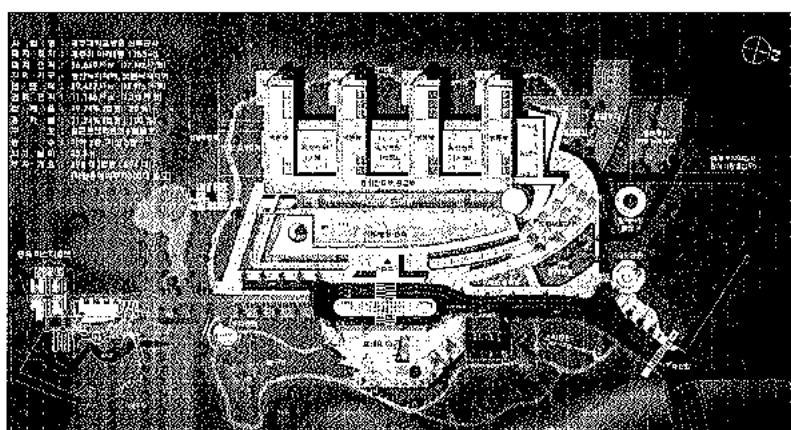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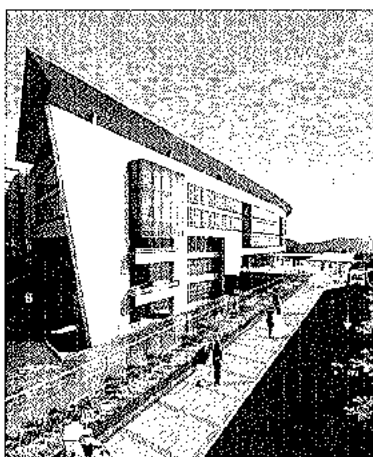
- 최적의 휴양형 의료환경 제공
- 환자중심의 진료
- 제주도민의 중심적 의료서비스 제공
- 대학병원으로서의 질 높은 의료 환경 제공

-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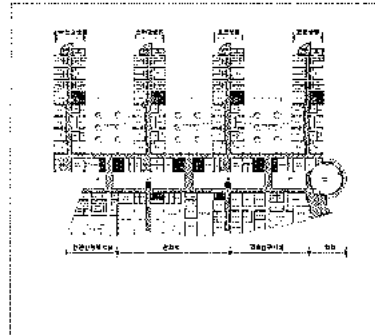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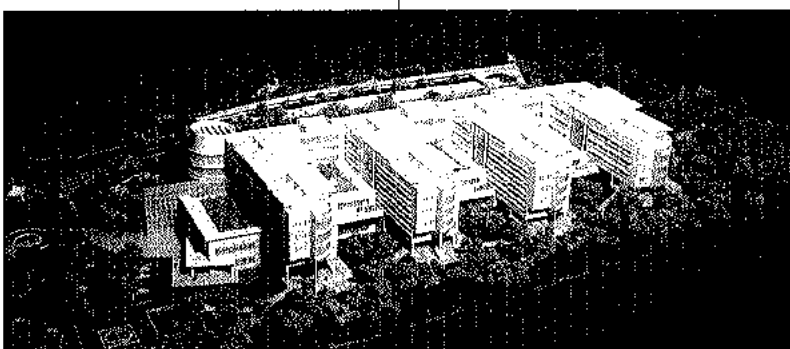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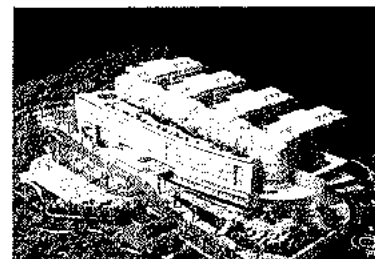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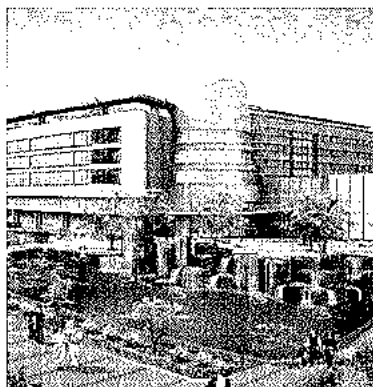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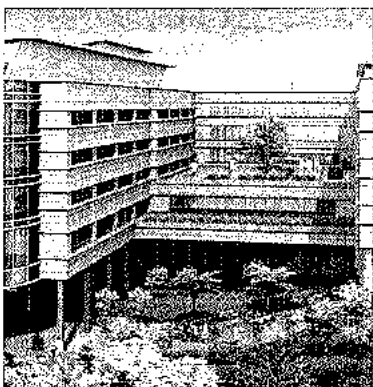
- 대지리벨을 이용한 평면 및 단면계획
- 층고를 고려한 마스터 플랜
- 자연환경과 의료환경의 조화
- 자연환경 도입을 위한 디자인
- 호스피탈 스트리트에 의한 내부동선 단 순화

• 천장을 통한 자연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내부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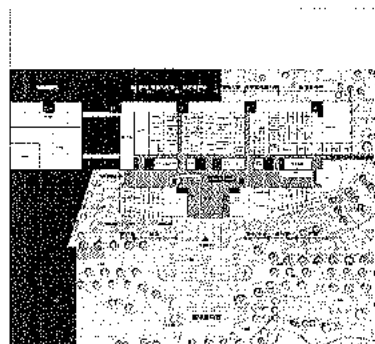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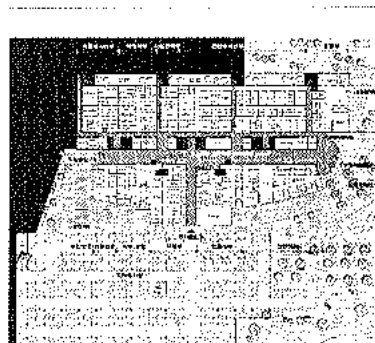
5층 평면도



우측면도



종면도



지하층 평면도

안양박달문화정보센터

Bakdal Culture & Information Center

▶ 당선작 / (주)회현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영 · 구자선 · 이대근)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지난 7월 30일 (주)회현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영 · 구자선 · 이대근)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4-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674.00㎡
건축면적	400.16㎡
연면적	2,521.32㎡
건폐율	59.37%
용적률	229.36%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1 대
외부미감	THK3알루미늄슈트, THK24컬러 복층유리,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
설계팀	천만철, 박수복, 구태형, 김수정, 차순호, 김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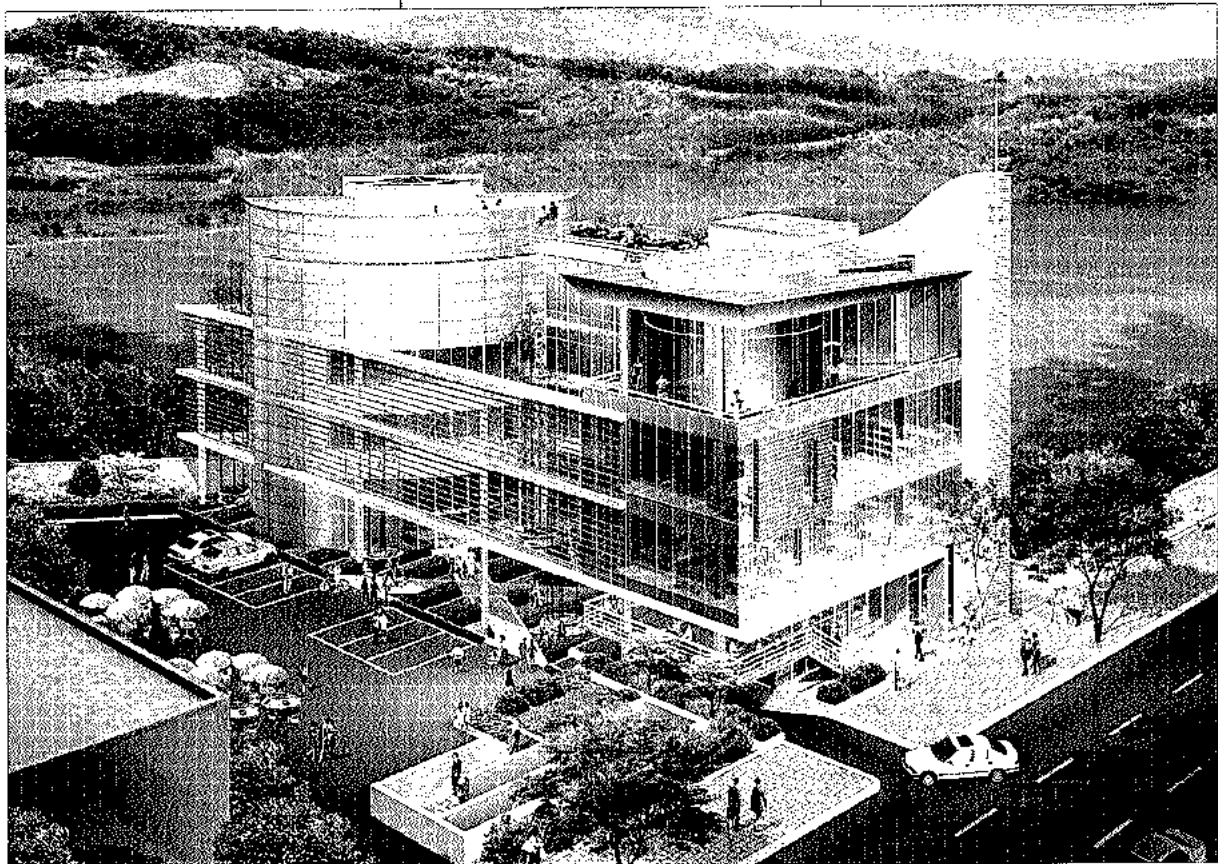
평면 계획

- 1층 내부 공간의 기능과 외부 공간과의 연계고려
- 문화사랑방과 누마루의 약속장소는 지역 주민과 시설을 연계하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함

- 안마당에서 각기능으로 출입을 연계하여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강조
- 외부공간(사랑마당, 안마당)과 내부(문화사랑방, 멀티미디어실)가 분리 되지 않는 공간(누마루)의 시각적 투명함으로 연속된 공간으로 창출함
- 각기능별 멀티미디어존은 아용의 편리성과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구성함(충고 계획 및 평면의 아용)

입면 계획

- 지역적 특성과 장소성 및 인지성을 고려한 입면형태 구성
- 수평선과 수직성의 조화로 매스의 비례와 균형을 잡아 건물에 안정감을 부여
-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입면의 요소로 반영시켜 입면에 생동감을 주도록 표현됨
- 시설의 랜드마크 요소를 상층부에 둥으로 써 먼 거리에서도 시설의 인지성을 높임
- 안마당의 공간을 구획하는 수평목재 루버의 사용으로 인근 상가와 적절한 프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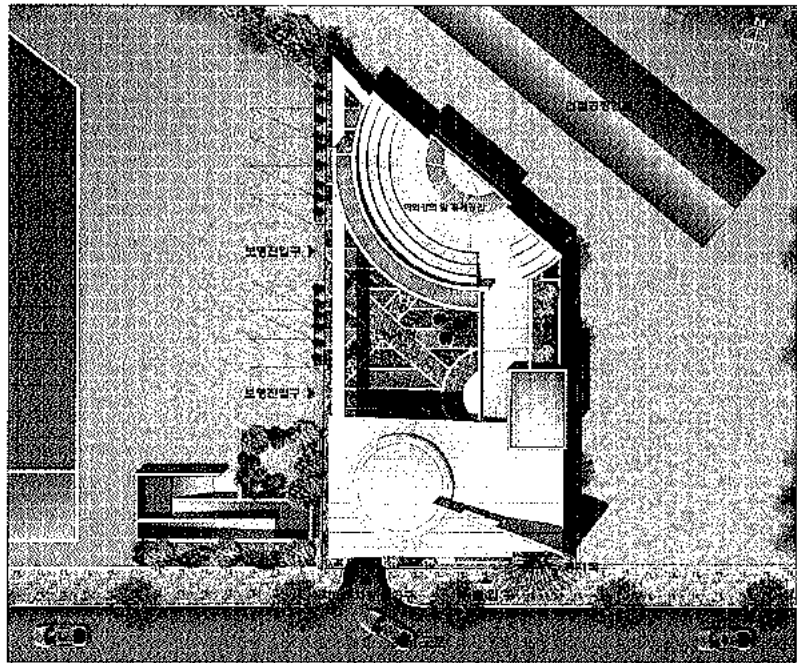


바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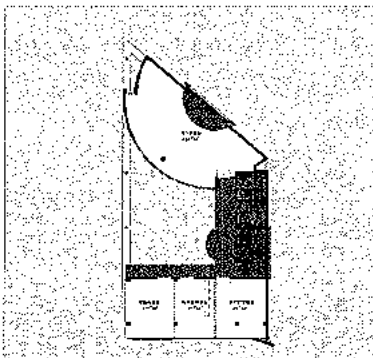
- 개방감과 안정감을 개념화해 전체 입면 디자인 구성요소로 전개함
-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강조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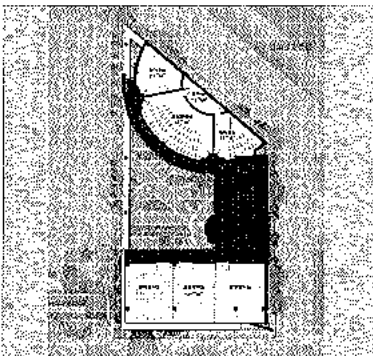
- 실별 기능에 맞는 적절한 층고계획
- 낮정원 어린이 열람실, 가가식 열람실의 적절한 빛의 양의 조절
-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채의 방법으로 나누고, 전이 공간인 비움의 안마당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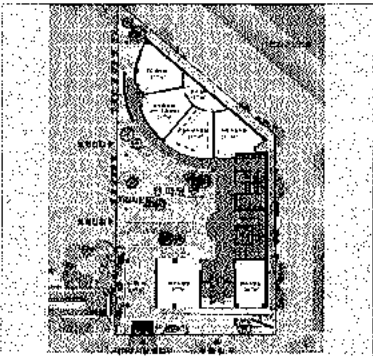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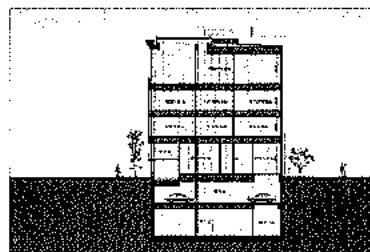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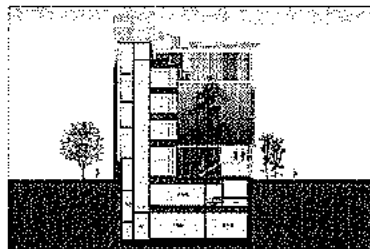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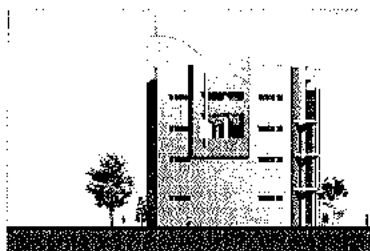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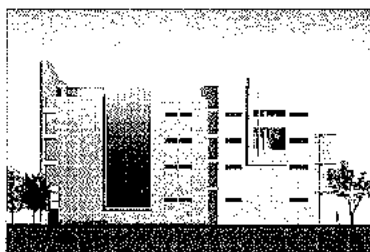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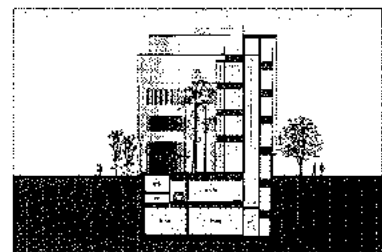
종단면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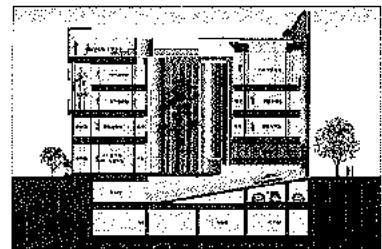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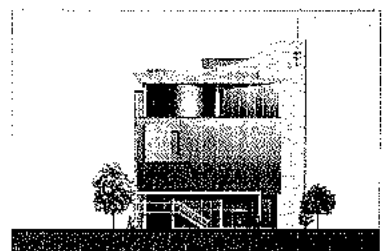
우측면도



종단면도-2



횡단면도



정면도



외측면도

백남준미술관

The Nan June Paik Museum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국제건축가연맹(UIA)을 통한 국제현상공모의 최종 작품이 선정, 발표됐다. 이번 국제현상 공모의 1등상은「The Matrix」를 제출한 키르스텐 쉐멜(Kirsten Schemel, 독일)이 차지했으며, 2등상은 「Experimental Boxes」의 우규송(Kyu Sung Woo, 미국), 3등상은 「Threshold Screen」의 노리아끼 오가베(Noriaki Okabe, 일본)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신청을 했던 55개국 940팀 중 439팀이 작품접수를 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졌다. 1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각자 떨어뜨릴 작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77개의 작품을 선정했고,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합동으로

개별작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18개 작품을 선정했으며, 3차 심사에서는 18개 제출 작품의 디자인 설명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 각자가 무기명으로 67개안을 선정,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개의 제출안을 최종심사에 넘겨 4차 심사에서 8개 작품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2개작품으로 압축하였고, 2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 전원의 재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1등과 2등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는 김종성, 김진균, 오기수, 악셀 슈테츠(독일), 존 행하르트(구겐하임 수석큐레이터), 오딜 데크(프랑스), 로베르토 시몬(브라질)이 맡았으며, 김종성씨와 오딜 데크가 공동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 당선작/Matrix (Kirsten Schemel, Germany)

공간 프로그램

매트릭스의 목적은 유연한 공간들을 형성하

는데 있다. 이러한 원리는 기둥은 물론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정없는 건축에서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백남준미술관-매트릭스의 도시적 측면은 다양한 다층 기관을 위해 보다 충실하게 가능하며, 랜드스케이프 측면은 방문객들을 위한 모든 공공미술관의 공간을 수용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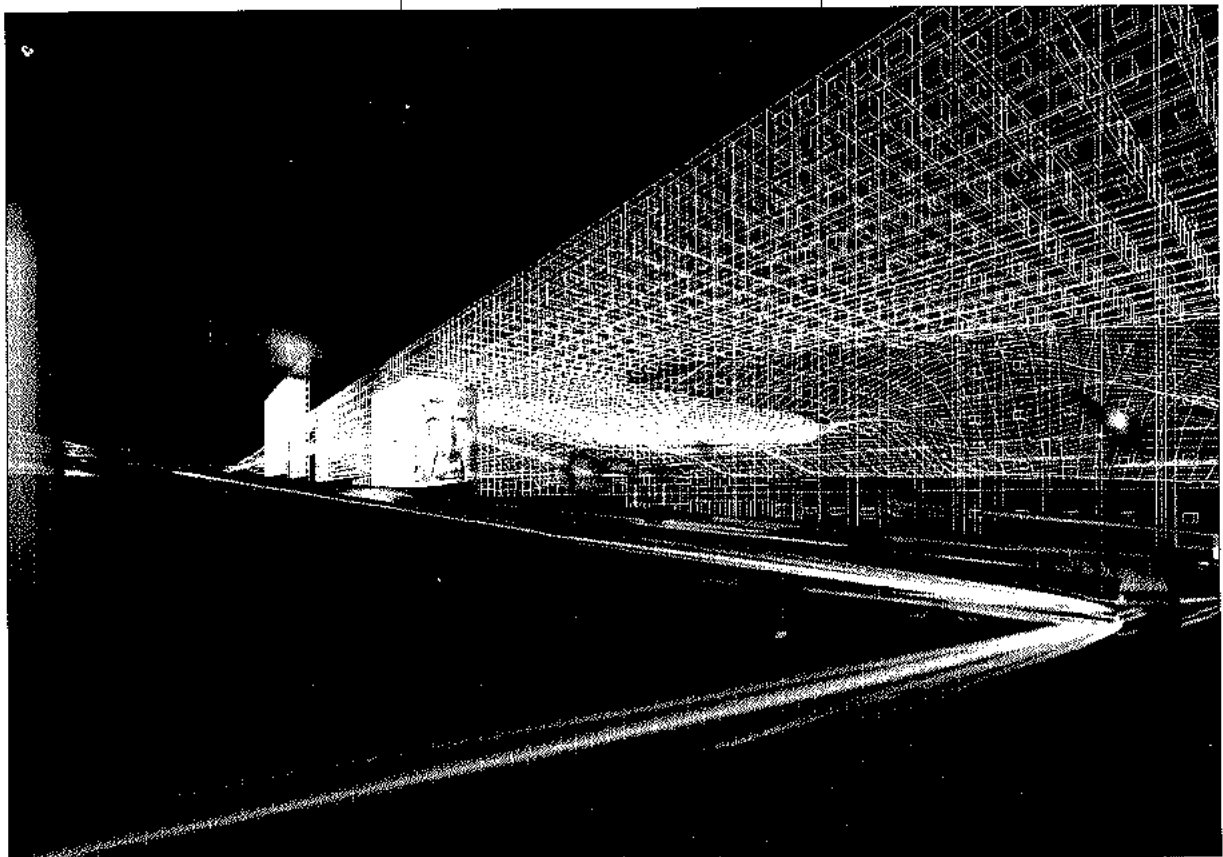
1. 공동의 동선구역(콘크리트 표면)
2. 전시 - 공간(강철 구조물로부터 매달린 구조물)

이들 전시 공간은 석화된 지형인 첫 번째 표면 위에 떠있다. 대개 이들 전시공간은 수평 바닥을 갖추며 때로는 수평 바닥없이 그 아래로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떠 있는 전시 공간은 외파를 가지며, 이들 외파는 투명, 반투명 또는 불투명하다. 이들 외파는 유리(투명하거나 검정 에나멜이 칠해진 유리)이거나 섬유 스크린이다. 미술관 공간은 그림자와 빛의 공간에 의해 그 분위기를 달리한다.

- 하늘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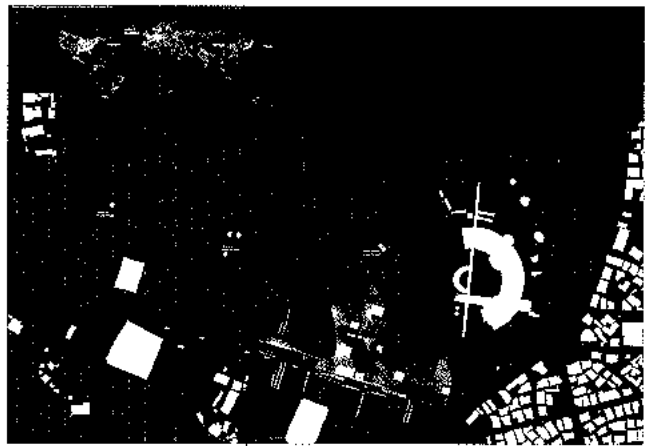
- 수상 테이블 - 땅 위의 하늘

- 천공된 외부 정원 : 선(禪)정원, 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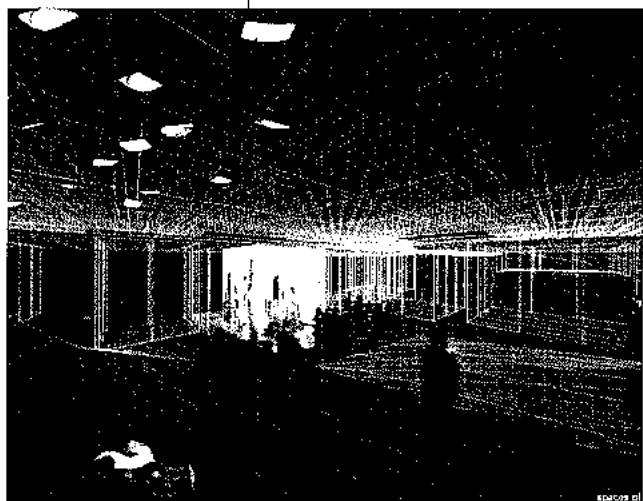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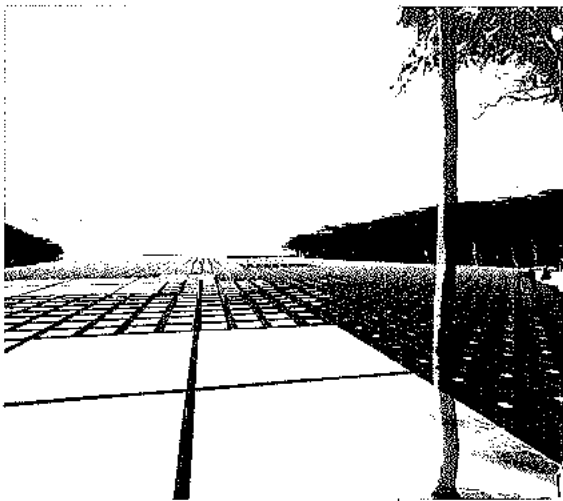


정원, 소나무정원, 카트리지 정원, '코요테 정원' 등 격자로 덮인 출입구 및 강당과 같은 외부 확장 공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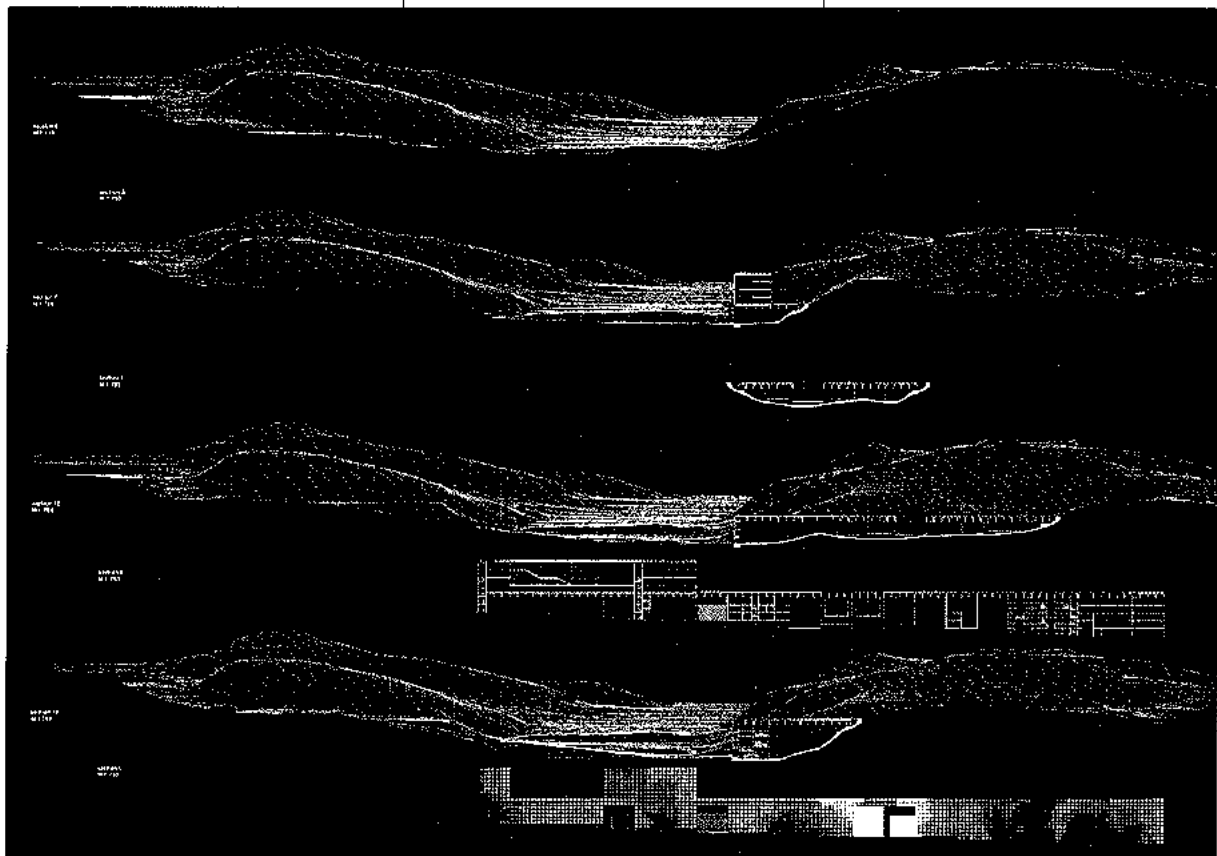
이들 정원은 구분할 수 없는 동작들, 바람/태양/달빛의 실시간 연출, 예술품의 구조화된 시간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 정원은 부분적으로 내향적으로 집중된 전시 공간과 기술적인 예술작품들에 대한 고품스러운 또 다른 공간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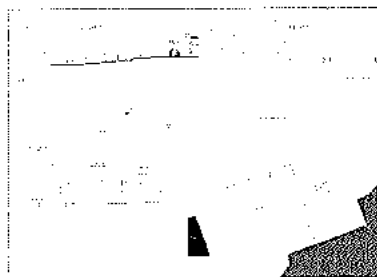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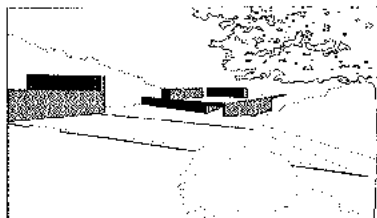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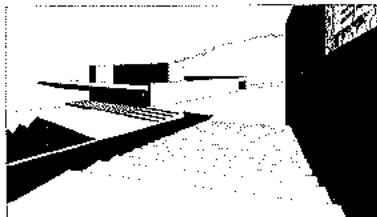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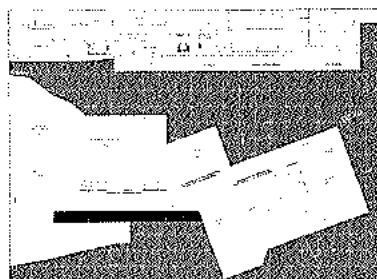
SPACE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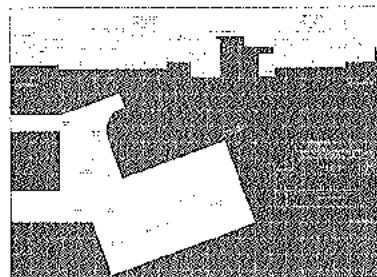
▶ 2등작 / Experimental Boxes
(Kyu Sung Woo,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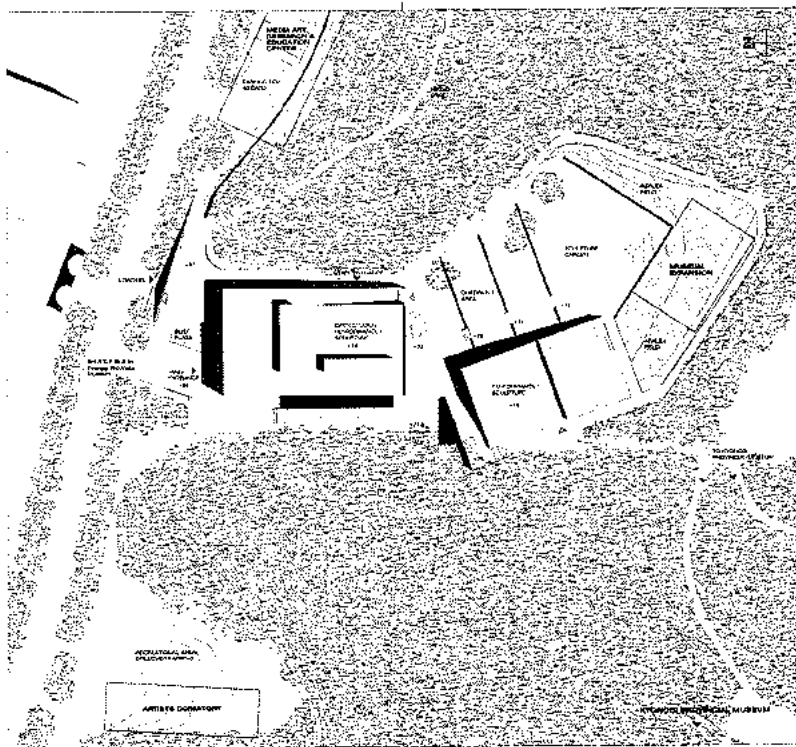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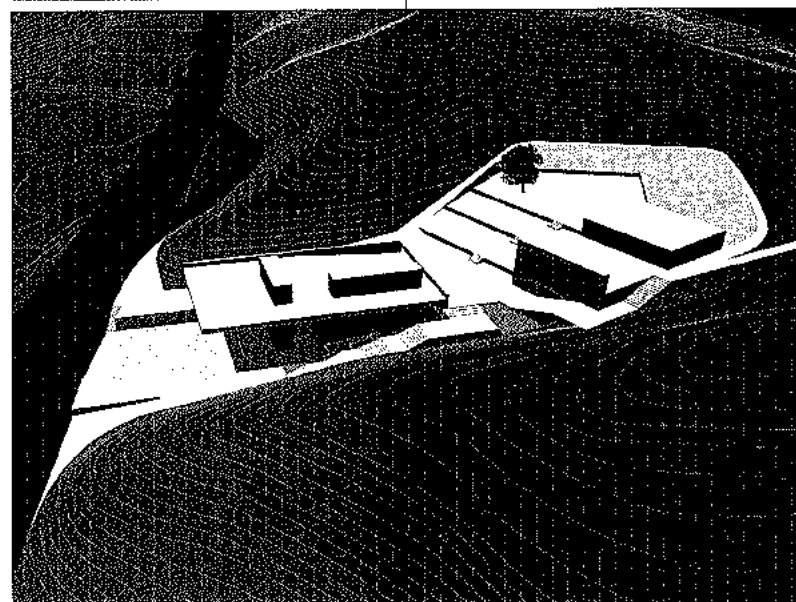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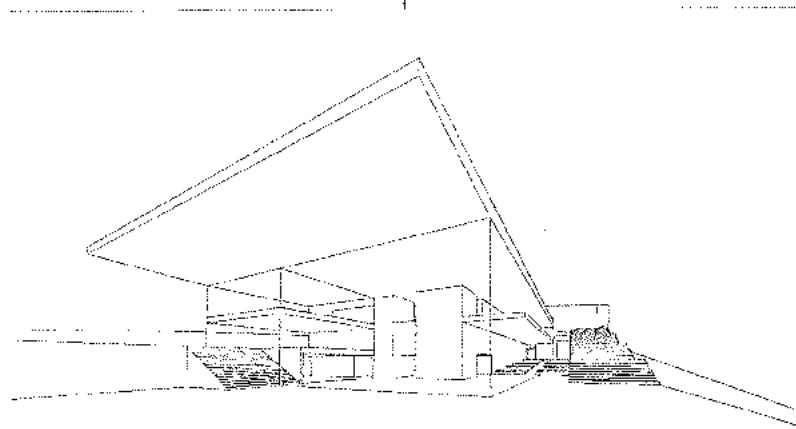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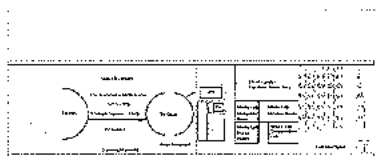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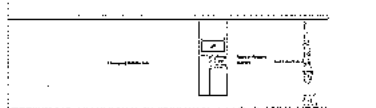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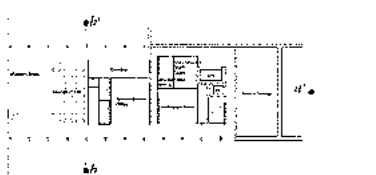
▶ 3등작 / A Threshold Screen
(Noriaki Okabe, Japan)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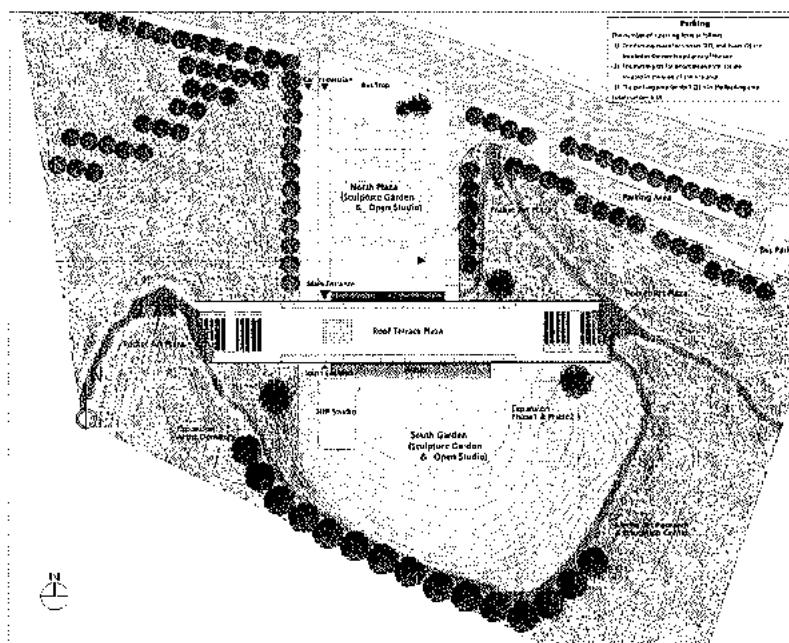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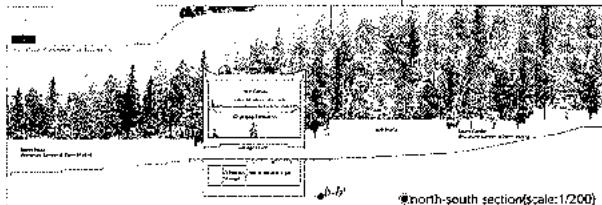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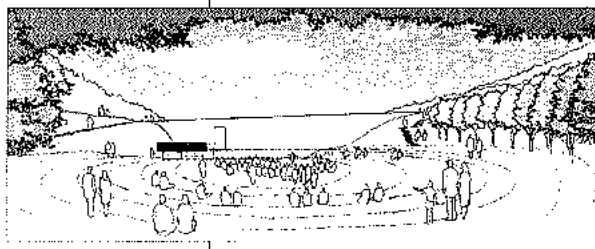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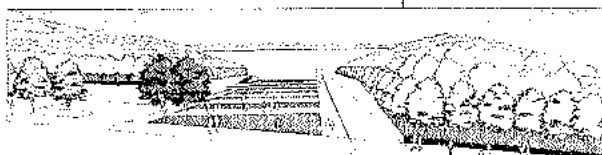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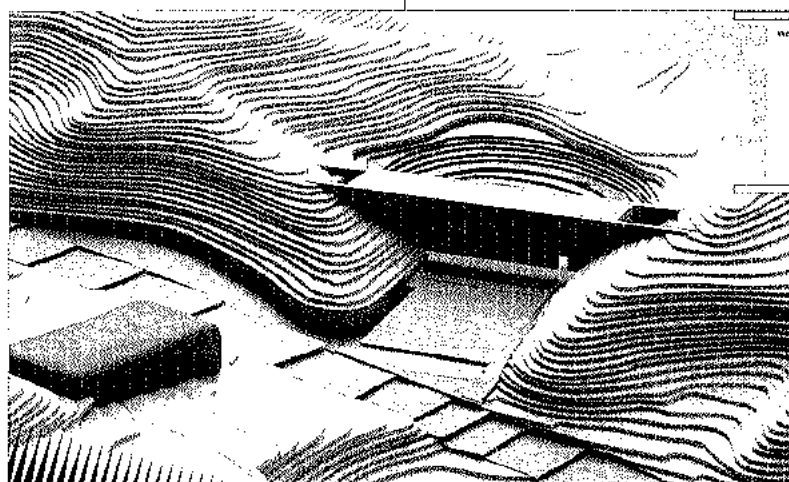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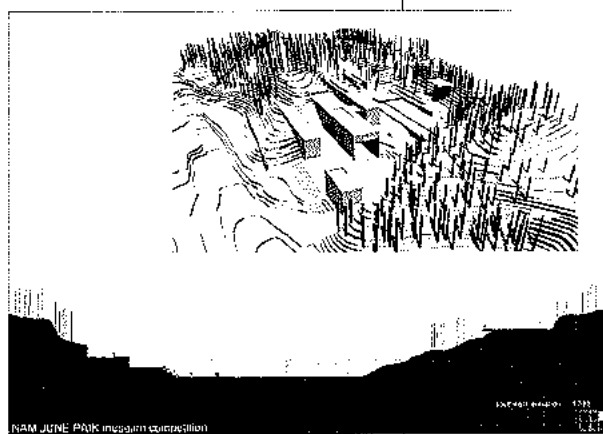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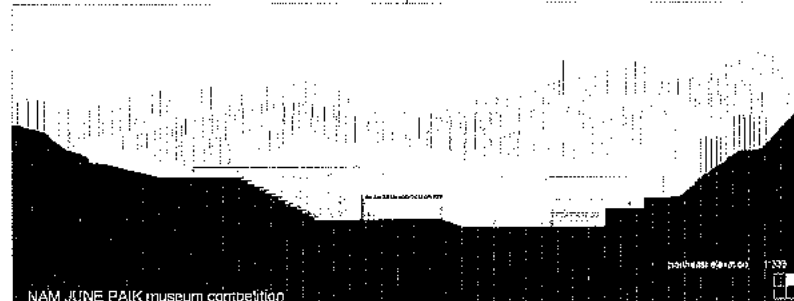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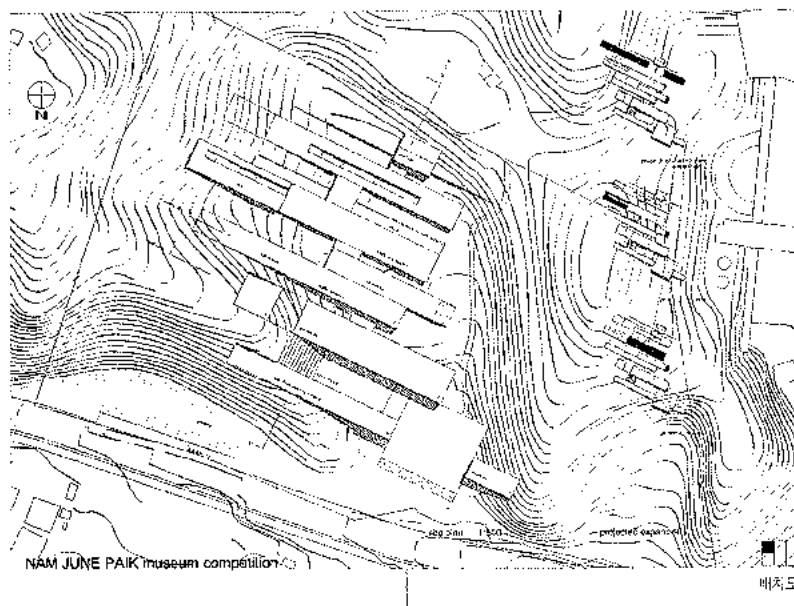
●north-south section(scale: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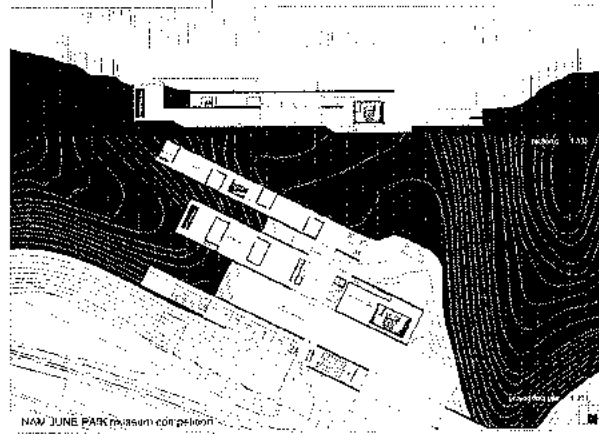
East-west section(scale: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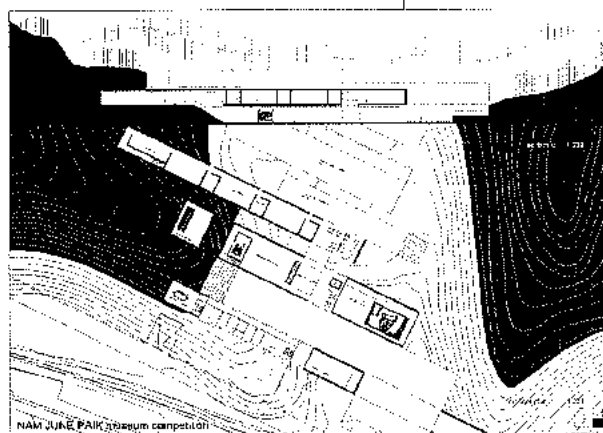
▶ 가작/Three Bars
(Karlheinz Sendelbach,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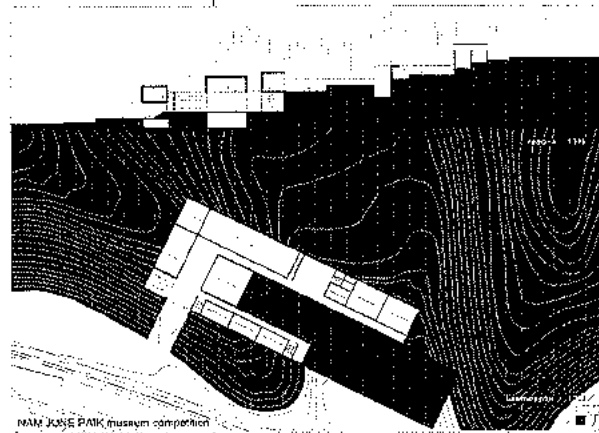
southwest elevation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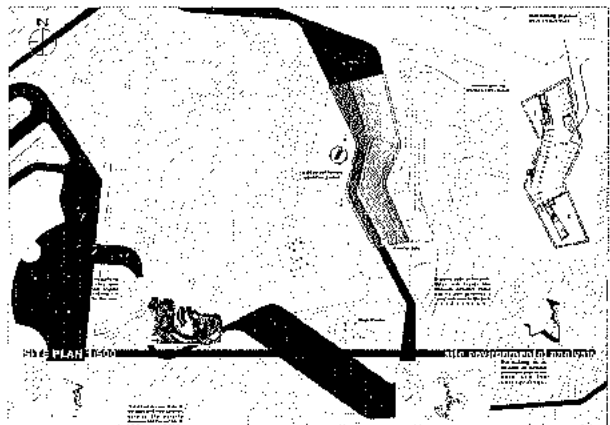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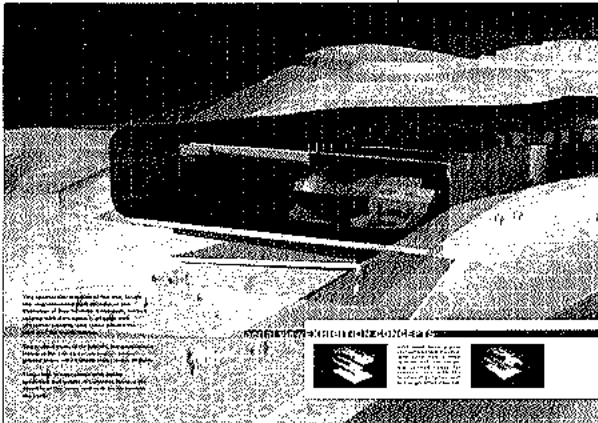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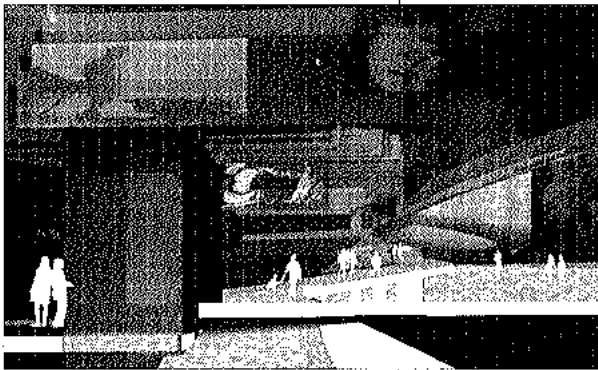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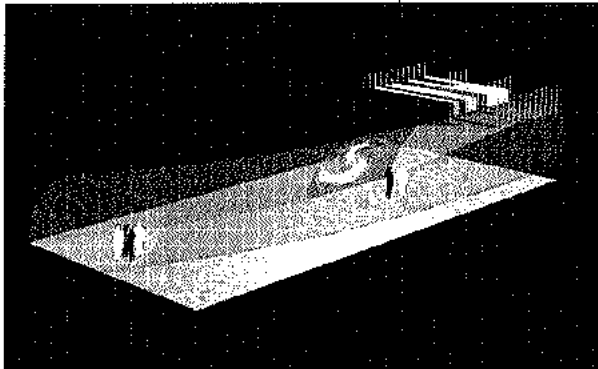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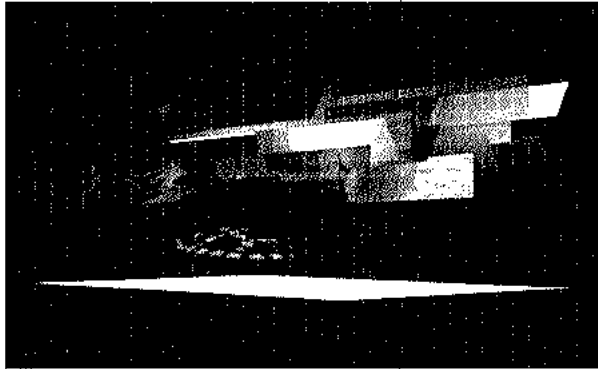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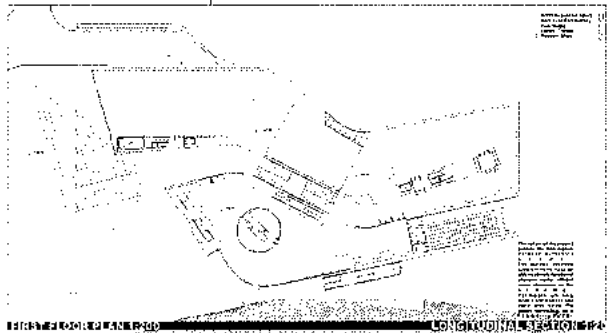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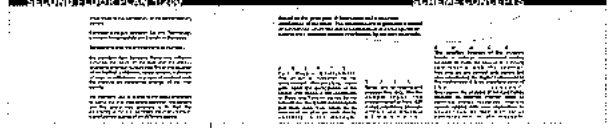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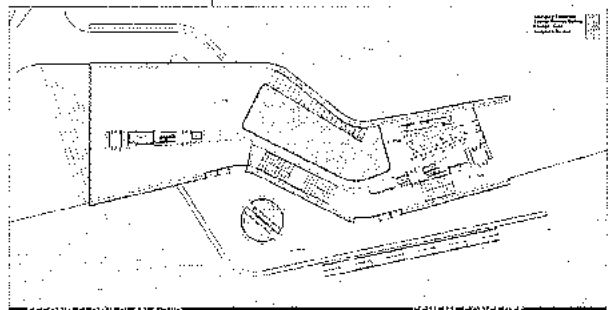


basemen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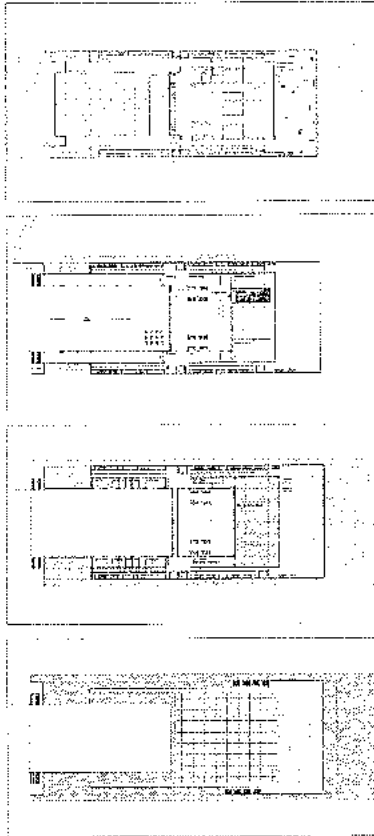
▶ 가작/Boomerang
(Diego Suarez,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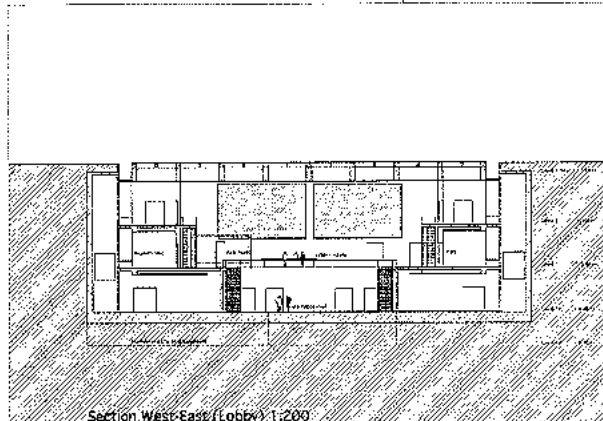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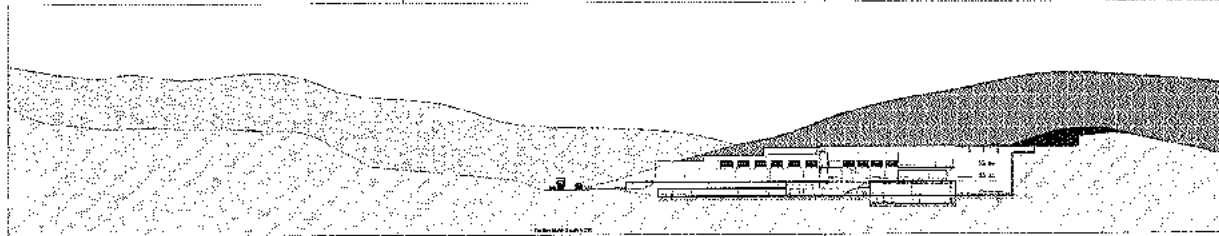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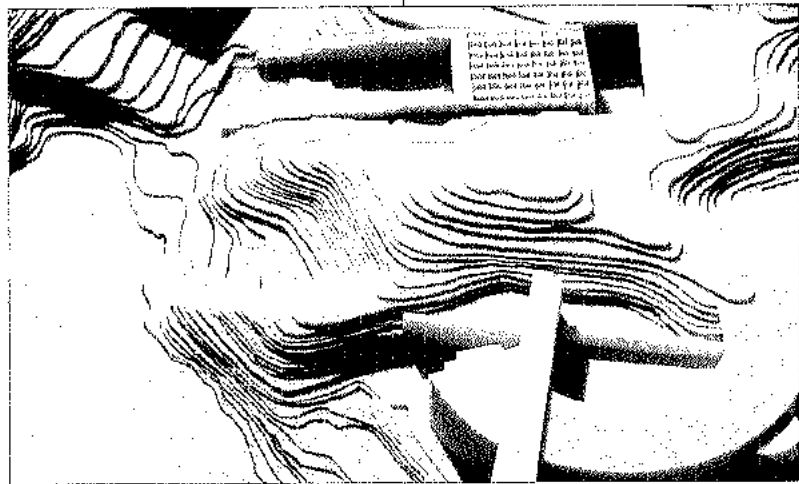
배치도



▶ 가작 / Excavation
(Hannelore Deubzer,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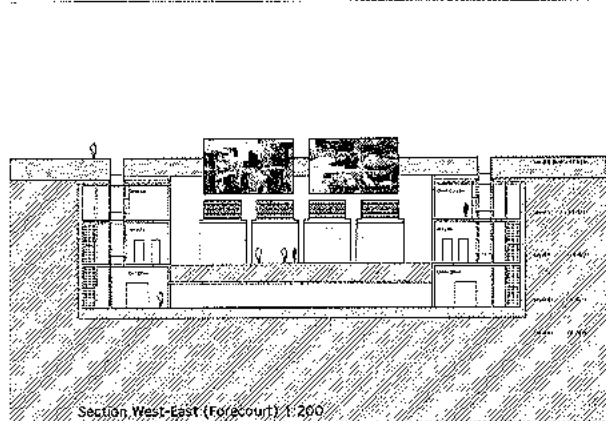


배치도



Section West-East (Lobby) 1:200

축면도



Section West-East (For a court) 1:200

축면도

a + 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DOMUS

a+u

2003년 9월

이번 호의 특
집은 최근 건
축계에서 시
도되고 있는
형태에 초점
을 맞춘 것이
다. 소개된 작
품들이 흔히



볼 수 없는 형태를 지닌 건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주요 작품들과 비교해 그리 생소할 것 없
는 작품들을 소개한 이 특집에서 '건축
의 새로운 형태'라는 주제가 갖는 의미
는 「형태를 지닌 존재로서의 건축」, 「건
축이 갖는 형태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이클 스피크스의 에세이도 비록 언
급한 사례가 발당에 집중되고 있지만
1968년 이후 건축의 다양한 전개 후에,
오늘날 건축이 그 형태를 통한 이루어가
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지적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특집: 건축의 새로운 형태(Emergent Architectural Forms)

건축은 진화한다. 새로운 건축기술의 진
전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나 기능, 의미를
가진 건축이 실현되고, 사회 속에서 수용
되는 일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경향이 되
어가고 있다. 건축을 둘러싼 상황, 즉 한
경과 사회제도는 변화하며 결과적으로
건축 그 자체도 크게 변화해가고 있는 것
이다. 건축은 진화함과 동시에 변이(變
異)를 일으키고, 이러한 변화는 기후나
풍토, 사회상황의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그 존재
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테
크놀러지와 엔지니어링의 발전이 그 배
경이 되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없으나, 건

축이 만들어낸 형태는 기술의 혁신에
대한 선언이자 사회인식의 변화를 시각
적 혹은 물리적으로 체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러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건축의 형태는
앞으로의 건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무엇을 암시하고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는가. 이는 마땅히 활발히 토론되
고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번 특집은
「건축의 새로운 형태: Emergent
Architectural Form」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 진행형의 건축 상황을 재인식하는
것이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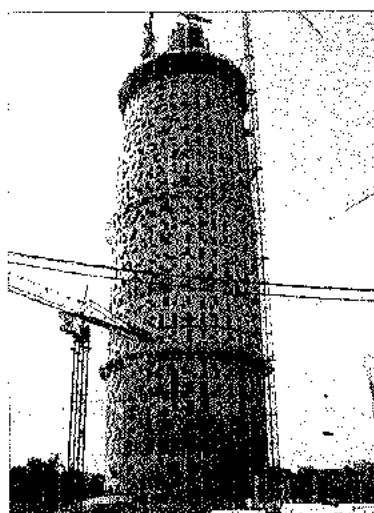
▶ 에세이: 「1968년 이후 (After '68)」,
마이클 스피크스(Michael Speaks)

1968년 5월 1일을 하나의 기점으로 하
여 그 이후의 건축사를 정리해 보자. 서두
에는 먼저 실제의 경험을 절대시했던 현
상화의 몰락부터 언급될 것이다. 연이어
서 기호학의 등장, 그리고 이미지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계의 출현. 이것은 이미지
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들과의 연결고
리를 여러 가지로 끊어놓게 되었다. 물론
이 전개를 한탄할지, 축하할지, 단지 담담
하게 이야기할지는 글을 쓰는 사람에게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하나의 장(章) 혹
은 그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여, 어떻게 건
축교육에서 현장의 살아있는 경험이 경
시되고 어떻게 번들번들한 컬러 잡지의
특집이나 무겁고 과도한 모노그래프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논해줄 것이다. 앞서 언급
한 잡지와 같은 출판물을 소비하는 것은
건축애호가 뿐만 아니라 건축가 본인이
영합하게 되는 대중들이기도 했다. 건축
은 1968년을 경계로 1970년대, 1980년
대를 거치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
체로 변화해 갔으며 건축이 전달하는 '의
미'라는 것은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 해
체주의이든, 혹은 비판적 지역주의이든
간에 그 세계에 있어서 화폐와 같은 역할
을 하게 되었다. 1968년 이후의 건축계
를 움직여온 여러 운동들은 서로 간에 전
혀 다른 것이기도 했지만 그 사고체계

는 공통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공간 그 자체보다 어떠한 기호나 이미지, 혹은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마치 「리스베가스의 교훈」을 통해 이들 모두가 배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 드디어 건축의 집중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축적되어 온 난해한 지시내용(레퍼런스)이나 역사에의 간접적인 언급은 결국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통용 가능한 무의미한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의미'는 중국에 일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 그 쓸모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미지가 대두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진실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의 세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기도 했다. 한편으로 앞으로는 중립성, 혹은 미니멀리즘이다 라고 하여 침묵을 선택한 자들은 이리하여 비유나 은유, 난해한 지시내용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탐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의미' 이외에 보다 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자들도 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건축계는 '의미'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그것에 의해 다른 나머지가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8년 셋의 한 사람인 장 누벨(Jean Nouvel)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 누벨은 기호나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적이다. 그러나 그의 경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각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기호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은 누벨이 현재 바로셀로나에 건설중인 「아그바 타워(Agbar Tower, 물의 탑)」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아니면 그의 드로잉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명확해진다. 그 아름다운 외관을 보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기는하겠으나), 이 타워는 소위 진정한 건축의 재현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현상학에 도취되어있는 듯한 지역주의자들이 기뻐할 작품도 아닌 것이다. 그 액체와도 같은 실루엣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것

일까. 모자이크 모양이 가득 찬 벽면의 밑에는 역사적 은유도, 형태의 모방도 숨어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당공질의 모놀리스(monolith)이며, 거기에 유리로 만들어진 다면체를 통째로 덮어 버린 것이다. 우리들의 감정은 그 색채, 움직임, 반사가 만들어내는 작은 생태환경에 유혹당하는 것이다. 훈훈한 공기가 감도는 밤에 몬세라트(Montserrat)산의 정상에서 슬쩍 돌아보았을 때, 붉은스레 올라오는 빛, 혹은 글로리아스 광장을 향해 차를 달릴 때 머리 위로 덮쳐 오는 듯한 위용, 이 타워는 마치 망령과도 같이 우리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가우디의 영혼, 카탈로니아의 혼을 불러낸다. 그것도 어떠한 역사적·양식적인 걸쳐장을 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누벨은 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건축은 결코 연속적으로 체험되는 일은 없다. 오히려 사람이 길을 이동하면서, 순간 순간 맞혀져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건축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건축가는 상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존재로서 건물을 설계한다고 말이다. 누벨은 여기서 미국의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끌어들인다. 미국에서라면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상황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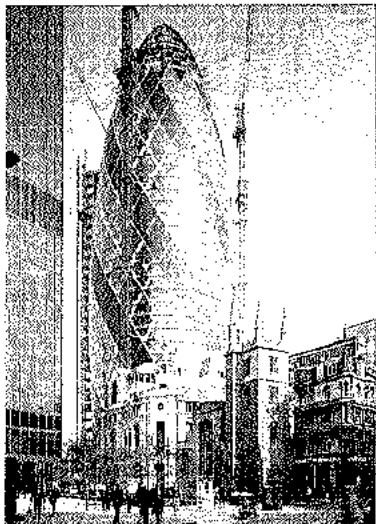
아그바 타워(Agbar Tower, 물의 탑)

식의 생각은 잊게 된다. "거기라면 마치 사막의 한 기운데에 있는 것처럼 혹은 여러 가지 사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 애써 예술이다, 미학이다, 미술사다, 건축사(建築史)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막을 배화하고 있으면 돌연 맹렬한 힘에 감각이 압도당하고, 그 힘이 우리의 지각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 한 종류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아그바 타워」는 우리들 속에 있는 감성적 지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자극한다. 이것이 압도적인 존재감과 실체인 것이다. 비교적 평탄한 바로셀로나의 가로에 우뚝 선 34층의 타워, 누벨은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표현한다. 그 분출력은 2종류의 피막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두어진다. 내측의 피막은 4,400개소에 불규칙한 창을 뚫은 콘크리트이며, 이 외측을 56,619장의 유리판을 이어 붙인 피막이 덮고 있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맨하튼의 그리드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하는 52층의 「뉴욕타임즈 사옥」,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감성적인 지성을 자극하는 것이나 그 힘은 오히려 추상적이고 묵시적이다. 이 우아한 타워는 「아그바 타워」와 마찬가지로 2장의 피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1장은 복층단열유리의 커튼월이며, 그것으로부터 약 60cm 외측에는 두 번째의 피막, 즉 스틸 프레임에 부착된 세라믹 튜브가 루버처럼 건물을 감싼다. 「아그바 타워」에서는 콘크리트의 피는 유리의 피막으로 채워지고, 그 유리 피막은 덧입혀진 색체에 의해 요동치며 붙어지지만, 뉴욕타임즈 사옥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의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획득하였다. 그리 정감에 넘치는 건물은 아니지만 이 「뉴욕타임즈 사옥」은 그 착공 전부터 「아그바 타워」, 아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건축이다. 커튼월은 건물의 열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깊숙이까지 빛을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주위의 색체에도 반응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온

후에는 푸르게 빛나고, 해질녘에는 붉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하늘과 건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 피아노는 그것을 여기에 세운 것이며, 우리들 인간은 거기에 끌려 들어갈 뿐 그 커뮤니케이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누벨의 「아그바 타워」가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건축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제시한 건축이 있다.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설계의 「스위스 리 런던사옥(Swiss-Re in London)」이 그것으로, 곧 40층 높이의 고층오피스가 런던에 세워지게 된다. 누벨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감성적 지성을 자극하는 것은 건물의 남측면의 태양전지패널과 함께 부착한 브리즈 솔레이유 등이다. 한 편 포스터의 타워는 그러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자기완결적인 생태계와 같은 것이 상정되어 있어 태양, 바람, 비, 사용자라는 인자에 의해 보다 큰 인텔리전트한 유기체가 조직되는 것이다. 에로틱한 피클이라는 애칭을 갖는 이 타워는 피아노가 「뉴욕타임즈 사옥」과 그 주변 환경과의 대화를 고려해 가며 디자인을 풀어간 것처럼 비슷한 대화가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디자인



스위스 리 런던사옥(Swiss-Re in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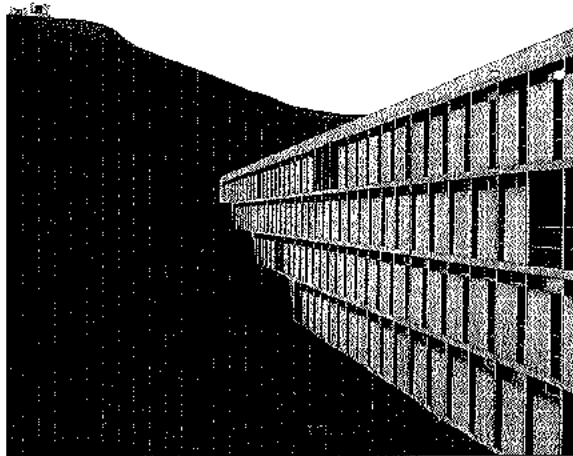
요소와 디자인의 처리는 모두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적화된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의해 만들어졌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의 이점은 표 계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3차원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설계변경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평면상에서 말하자면 타워는 원형을 이루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굽어졌다가 최상부에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역학적인 형태는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나 이러한 형태의 덕택으로 외벽의 주위로 공기가 말아 올라가게 되어 빌딩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국지적인 강풍이 적어지게 된다. 이처럼 빌딩 외벽의 풍압이 균일하지 않은 점을 실내의 자연환기에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면(全面)이 유리로 덮인 피막은 중공층을 내포한 2중유리로 되어 있어 오피스의 배기는 이 공간을 이용해 옥상정원이나 6개 층을 관통한 아트리움으로 회수되어 수목에 의해 다시 산소를 보충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스터의 「스위스 리 런던사옥」은 기능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누벨의 「아그바 타워」는 감성적으로 뛰어난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피아노의 「뉴욕타임즈 사옥」과 함께 이들은 미래의 고층빌딩을 위한 보더라인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머리를 쓴다면 이 보더라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름, 노먼 포스터의 기획에 의해 로알 아카데미에서 「Sky High」展이 열려 회장에는 고층 빌딩의 모형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고층 빌딩은 건축의 야망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세계와 교신을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던져준다. 그렇다. 이것은 1968년의 기분과 강하게 반향을 이루는 것이다. 고층 빌딩은 현재 세계속의 대도시에 계속해서 출현해가고 있으며, 세계 제 1의 높이를 목표로 WTC가

섰던 곳에서, 두바이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새로운 빌딩들이 누벨과 피아노, 그리고 포스터가 만들어 놓은 도전들을 뛰어넘기를 기대해 본다.

▶ 작품

아우에 + 웨버 + 아키텍트(Auer + Webber + Architekten)의 「세로 파라날의 ESO 호텔(ESO Hotel on Cerro Paranel, 1998~2001)」은 사막이라는 광대한 스케일의 대지 속에 땅에 묻힌 듯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건물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광대한 대지에 스스로 동화되어 가는 '경관예술로서의 대지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퓨처시스템(Future System)의 「셀프리지(Selfridge)백화점 버밍햄점(2003)」은 다른 건물들과 무척이나 다르다. 그 입체적인 곡면은 새로이 재개발된 볼 링(Bull Ring)지역을 은빛 물결로 변화시켰다.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가 설계한 바드(Bard) 컬리지의 「리처드 피셔 무대예술 센터(Richard B. Fisher Center for Performing Arts, 2003)」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아래 계속 선보이고 있는 접합된 금속판을 이용한 그의 형태언어를 사용한 작품이다. 선보인 작품 중에 조금 독특한 것으로는 스티븐 홀(Steven Holl)과 조카가 진 하이슈타인(Jene Highstein)의 「타원형의 보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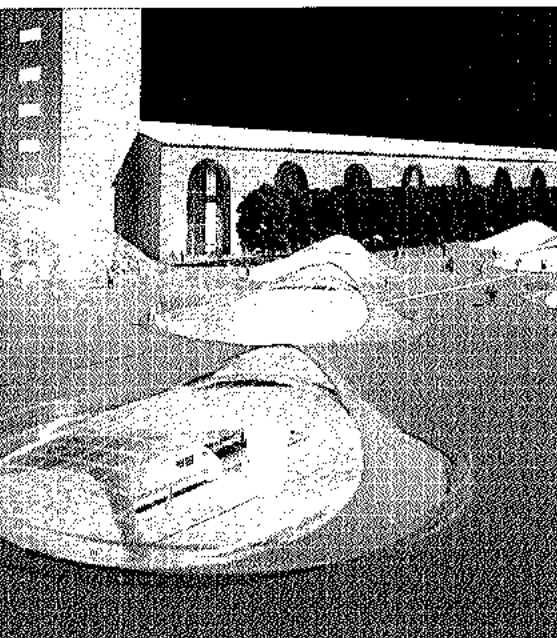


ESO 호텔(ESO Hotel on Cerro Paranel, 1998~2001)



셀프리지(Selfridge) 백화점 버킹엄路店(2003) / 타원형의 모이드 공간

공간이라는 제목의 건축과 조각의 합작품이다. 핀란드에 세워진 이 건조물은 일음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공간과 빛의 체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각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번 호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건축가인 독일의 잉겐호펜 오버디엡 아키텍텐(Ingenhoven Overdiek Architekten)의 「스투트가르트 중앙역」은 형태와 공간에 있어서 참신함을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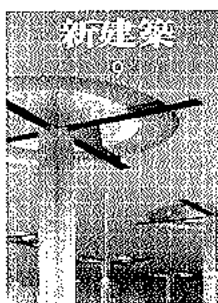


스투트가르트 중앙역

신건축

2003년 9월

이번 호에서는 헤르조그 앤 드 뮈롱(Herzog & de Meuron)의 「프리다 브띠끄 아오야마 집」을 비롯해



여 표지를 장식한 후미히코 마키 종합계획사무소의 「福井縣立도서관·문서관」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 중에서 쿠마 겐코가 설계한 「梅窓院」은 도시의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도시형 사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특징으로는 「집합주택은 변화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도시기반정보공단이 주축이 된 東郷ヶ淵코트 공단 1·2街区 및 하노이에 세운 「스페이스 블록 하노이 모델」 등 7개의 집합주택과 건축가들의 죄담화가 실렸는데, 이중 하노이의 프로젝트는 일본의 건축가가 베트남 하노이에 계획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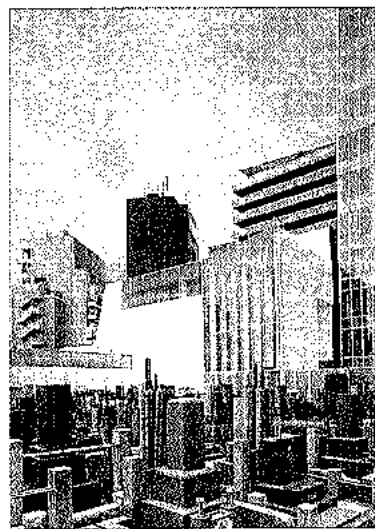
▶ 「梅窓院」: 쿠마 겐코(隈研吾)건축도시시설계사무소

이것은 도시형 사원의 재생 프로젝트이다. 梅窓院은 창립 360년, 도쿄에서도 가장 오래된 절종의 하나로, 아오야마(青山)거리 이름의 유래가 된 에도시대譜代다이묘(大名) 아오야마(青山)家の 보제(菩提)사찰로서 알려져있으며, 아오야마 묘지도 그 경내에 있었다. 지하철 역이 마련된 아오야마지구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현재의 부지 4,400평을 도시에 대해서 닫혀진 구역에서 도시에 대해 개방된 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골격이었다. 이미 사찰은

도시의 커뮤니티 센터로서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이었으며, 서구에 있어서도 교회가 광장이나 길처럼 도시 속의 오픈 존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찰은 도시형의 고밀도 생활스타일 속에서 귀중한 커뮤니케이션 스페이스이며, 그린 스페이스였다. 공공에 의한 도시정비에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종류의 퍼블릭 스페이스를 창조한 사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카시마(中島)주지는 이 프로젝트의 이전부터 「열린 사원」을 구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광장의 창조, 지역을 위한 이벤트 홀과 커뮤니티 스쿨의 병설, 오피스(松田平田設計에 의함), 주거등의 산설에 의한 건설자금의 조달과 도시복합성의 확보가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건축을 볼륨으로 다루지 않고 필터의 집합체로서 디자인함으로써 도시에 대하여 개방된다는 아이디어를 구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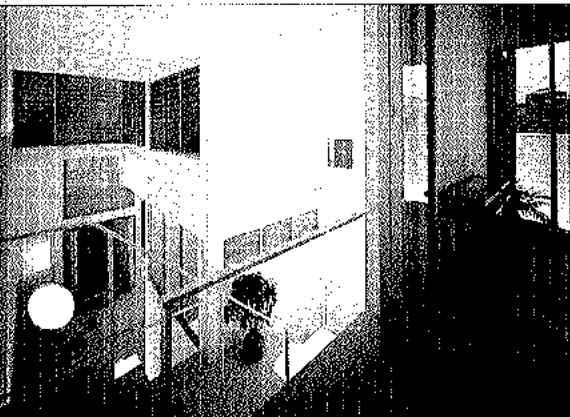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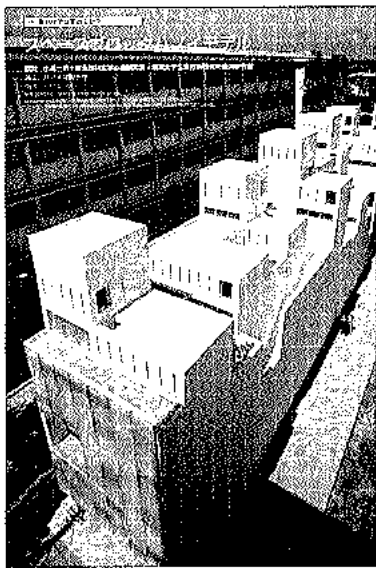
▶ 「스페이스 블록 하노이 모델」: 코지마 카즈히로+동경이과대학 코지마카즈히로 연구실+동경대학생기술연구소 마키리부치 연구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일본과는 다를 수가 없다. 설계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지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이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가 150kg/m²라도 신용할 수 없다



梅窓院

돈가, 알미늄 플레이트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 등 생각지 못했던 발견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타겟은 「지구환경(地球環境)」이다.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건축이 어떻게 그렇게 큰 테마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말하자면 고온다습기후의 동남아시아에서 고밀도를 구현함에 있어 에어컨을 상시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주거 공간 모델의 단위를 조직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테마가 된 것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초고층이 뻗뻗이 들어선 곳과는 다른 저방사(低放射)하면서 컴팩트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하노이 36거리 지구」처럼 원래 고밀도에 거주하는 지혜를 갖춘 장소를 택해 재건축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델은 실험집합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6



스페이스 블록 하노이 모델

가족 30인의 거주를 상정하였다. 연면적은 400㎡이지만 내부의 통풍을 위해 만들어진 오픈 부분과 외부의 입체적인 중정을 합한 시공면적은 1000㎡에 달한다. 외부비율은 50%. 이건의 지구(地區) 보존의 코드로서 중정률(中庭率) 50%로 정해진 것을 각 층 50%로 재해석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외관은 주변의 컨텍스트를 반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베트남풍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이 모델을 실제의 하노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서 반영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번역/김상훈)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7월

이번 호는 도시 문화를 위한 건축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담는 건축 역시 그 사회



와 문화를 반영하는 그릇으로서 다양한 형태와 재료 구성방식은 건축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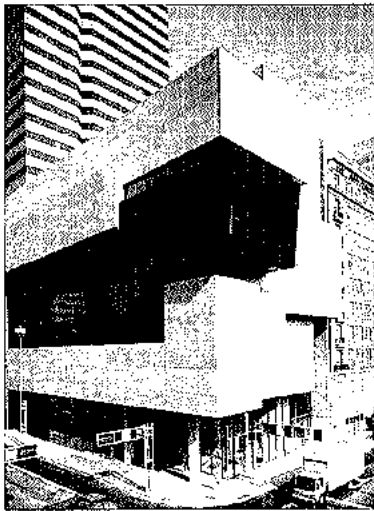
■ 문화시설

오늘날 유럽에서는 고급문화를 위한 건축을 새로이 지음으로써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Frank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성공적인 사례로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시설의 성공적 사례는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시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러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영국 글래스고우에 세워진 팝뮤직 박물관은 낙후된 도시 조직에 대한 해결 없이 추진되어 개관하자마자 문을 닫게 되었다. 지속적이고 기억을 환기시키는 힘을 가진 유형의 건축은 전자 미디어의 순간적인 가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도시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Zaha Hadid의 미국 신시내티 현대미술관

이 미술관의 디렉터인 Charles Desmarais는 도시와 방문객들을 향해 이곳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이고 다양한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곳임을 천명하는 장소로서 미술관 건물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바람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97명의 건축가 가운데 3명의 건축가- Daniel Libeskind, Bernard Tschumi, Zaha Hadid로 좁혀졌으며, 그중 미술관 건립위원회와 열린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조율한 Zaha Hadid에게 최종적으로 작업이 맡겨졌다. Hadid는 미국의 모든 도시를 지배하는 그리드를 깨는 어떤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도시 컨텍스트에 녹아들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한편, 예측불가능성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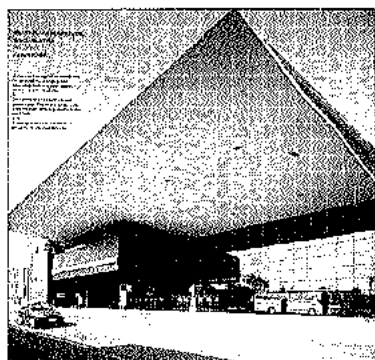


Zaha Hadid의 미국 신시내티 현대 미술관

는 경우나 존재하며, 중성적인 공간은 이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수사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공간은 각각의 기억과 경험으로 채색되어지길 원했다. 건물속의 다양한 장소와 공간의 경험으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어졌다. 다층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거리를 두고 자나온 공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은 보다 풍부하고 복합적인 경험을 발생시킨다. 외관은 연한 회색의 콘크리트와 검정색 알루미늄의 바들이 적층되어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대담하게 분절된 매스는 후퇴되어 있는 푸른색 유리 커튼월 위로 부유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면 외부의 콘크리트 마감 바닥은 건물 내부로 이어지고 이는 건물의 뒷벽으로 감아 올라간다. 'urban carpet'으로 명명된 이 장치는 거리와 갤러리간의 연계를 확고히 한다.

▶ Klaus Kada의 오스트리아 Graz 다목적 홀

다목적 홀과 회의장을 수용하는 이 건물은 가로 95m, 세로 70m, 높이 15m의 대형 볼륨이 건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공간은 다양한 좌석배치에 의해 스포츠 아레나, 전시장, 팝 콘서트홀 등 다양한 용도에 맞게 이용된다. 이러한 장소의 거대한 볼륨은 자칫 비인간적인 스케일의 압도하는 건물이 되기 쉬운데 Klaus Kada는 이러한 문제를 부속 홀 매스를 전면에서 돌출시켜서 입면의 대칭성을 깨고 거대한 스케일을 완화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Mies의 시카고 회의장



Klaus Kada의 오스트리아 Graz 다목적 홀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구조미를 강조한 정형적인 박스형태의 구성방식과는 달리, Kada는 공간적 경계를 다소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Mies가 외관에서 지붕의 표현을 억제한 반면, 이 건물에서는 지붕이 가장 주요한 구조적 표현 요소로 사용되었다. 네 개의 주된 기둥으로 지지되는 지붕은 기둥 스패 이상으로 캔틸레버로 연장된다. 캔틸레버로 연장되는 부분은 스틸트러스로 지지되며 양 끝단으로 갈수록 지붕의 두께는 얇아져서 처마끝은 위로 들어올려지고 그 경계가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 Sverre Fehn의 노르웨이 오슬로 사진 박물관 ▶ Frank Gehry의 뉴욕 Performing Arts Centre ▶ Erick Van Egeraat의 네덜란드 브레다 콘서트 홀 ▶ Wood Marsh의 호주 멜버른 현대 미술관 ▶ Wilkinson Eyre의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연결 브리지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Samyn & Partners의 벨기에 브뤼셀 음악센터

1930년대 지어진 방음곡 건물이 도시의 음악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건물은 현상설계에 당선된 Joseph Diongre의 기능주의적인 건물로서 약 40년동안 벨기에 라디오 국영방송건물로 사용되다가 1974년 건물의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있었다. 그러나 UNESCO에 의해 세계유산 건물로 지정되어 보수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공, 민간 부분의 투자로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중심으로 태어난 것이다. 메인 녹화스튜디오는 500개의 좌석이 더 추가되어 총 900석 규모의 콘서트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삼면으로 발코니석이 매달아졌으며, 1층에는 삼과 카페 등이 계획되었다.

그 외에 ▶ LCM/Fernando Romero의 멕시코 Guerrero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자세히 다뤄졌다.

DOMUS

2003년 7, 8월

최근 완공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Herzog and de Meuron의 도쿄 Prada Shop과 Zaha Hadid의 신시네티 미술관 등



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아울러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작업을 하고 있는 MVRDV의 작업방법과 그러한 작업을 위해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글이 실렸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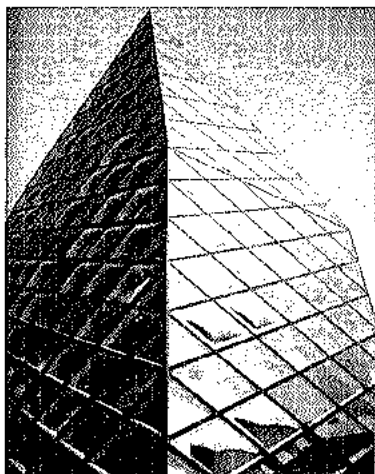
▶ Herzog and de Meuron의 도쿄 Prada Shop

Herzog and de Meuron의 건물은 항상 건축을 보는 신선한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더 잘 알려진 Rem Koolhaas의 뉴욕 프라다 샵에 뒤이어 지어졌지만, 이 프로젝트는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더 야심차며, 과장되지 않다. 6개층 규모의 이 건물은 마치 건축적 포장지 같기도 하고 광고 빌보드 같기도 한 새로운 건물 유형을 제시한다. 1층에 꼬리처럼 붙은 이끼로 덮인 벽은 인접대지에 대하여 가림벽이 되는 동시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기능을 한다. 살아있는 이끼 마감과 페턴은 건물전체를 어우르는 자연 재료의 사용과 유기적 형태의 차용에 부합한다. 총 4가지 종류의 유리-평평하고 투명한 유리, 탈의실에 사용된 애칭유리, 그리고 볼록유리, 오목유리 등이 외벽에 사용되었다. 볼록, 오목유리의 사용으로 건물은 마치 숨쉬는 듯하고 유리표면에 맺힌 물의 표면장력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낸다. 이러한 효과는 내부에서도 보여지는데, 금속 천장재도 등

기구가 들어가는 곳이 부드럽게 함몰된 것 같은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또한 복도의 등은 반대로 실리콘 젤 덩어리같이 볼록 튀어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이 젓어있고 축축한 느낌이라면 내부는 반대로 비스코스 마감등의 털이 있는 복합재료가 주를 이룬다. 이렇듯, 도쿄 프라다 샵은 매우 신체적이며 촉각적인 건축인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스틸 샤프트가 건물 중임을 관통하며 비정형의 탈의실 매스등이 전체 건물 매스를 가로지르는 복합적인 구성을 취한다.

▶ David Chipperfield의 독일 의류회사 사옥

독일의 실용주의 의류 Ernsting이라는 회사를 위한 이 건물은 형태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중간적인 성격의 외관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적이고 수평적인 건축의 큰 창은 어두운 회색의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콘크리트 격자 안쪽에 위치한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면으로 반복되어 브리즈 솔레이유와 로지아를 형성한다. 건물은 세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에 한지의 역할을 하는 블록을 중심으로 나머지 블록들이 각각 주변 랜드스케이프에 조응하여 복합적인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캠퍼스 구성을 통해 내외부 공간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공공 영역을 형성하는 세 개의 블록 사이의 공간이 생성된다. 효율과 단순함이 강조된 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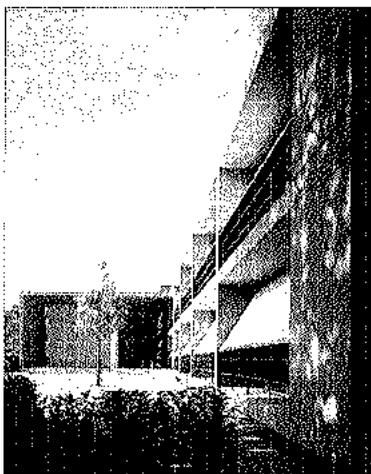
Herzog and de Meuron의 도쿄 Prada Shop

물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그 형태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좋은 건축은 내가 자랄 수 있는 장소를 디자인 하는 것이다"라고 한 건축주의 이념이 잘 반영된 것이다. 건축적 질서에 의한 모듈적 단순성은 벽의 깊이감의 조정에 의해서 변화를 갖는다. Chipperfield에게 있어서 깊이감의 조정은 건축의 정수라고 인식하는 구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깊이감의 표현은 공간과 빛에 따라 조정되는데 전면 벽의 브리즈 솔레이유 역할을 하는 프레임으로서 깊은 음영을 만들어내며 자연적인 빛을 입체적으로 강조한다.

그밖에 ▶ Zaha Hadid의 미국 신사내티 현대 미술관 ▶ Open Office의 뉴욕 Dia Art Foundation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 도시를 만드는 도구 - Winy Maas와 John Thackara의 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대담

대도시에는 다양한 산업과 지역이 존재하여 그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러나 작은 도시의 경우는 이러한 배경이 뒤따라 주지 않아 경쟁력을 잃고 있다. MVRDV의 대표 Winy Maas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답은 작은 도시의 연합과 네트워크의 형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작은 도시들의 유형, 무형의 자산을 결합하여 다중심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연합은



David Chipperfield의 독일 의류회사 사옥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13세기에 이미 유럽에서 70여개 이상의 상업도시가 연합한 Hansa League가 있었으며, 근세에는 1913년 International Union of Cities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57년 Treaty of Rome이 도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가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계화와 더불어 Hansa League와 같은 작은 도시간의 연합은 증가되어, 시장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 이러한 소도시간 네트워크 형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 정보적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동통신또한 소도시간의 연합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미 시공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Winy Maas에 의하면 지역에 관한 정보의 거대함은 압도할 만한 것이며, 복잡다단하며 계속 변화한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은 새로운 것이다. 공간적, 경제적, 정치적인 개발과 프로세스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계획을 위한 보다 역동적인 접근과 수단이 요구된다. 그러한 도구로서 1차 데이터의 양을 시각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계획을 하기 전에 1차적인 자료에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정보들을 통합하고 인지하는가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MVRDV는 이를 위해 Regionmaker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RhineRuhrCity라는 프로젝트에서 처음 적용하였다. 서치엔진과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능을 결합한 Regionmaker는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인구통계, 지리정보시스템등을 한데 모은다. MVRDV는 향후 인간, 상품, 정보의 움직임의 표현을 이 소프트웨어에 부가할 계획이다. 조도 계산기는 건축공간에 자연채광의 필요와 조절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며, 'Function Mixer'는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여 가장 최적의 기능의 조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최원준)